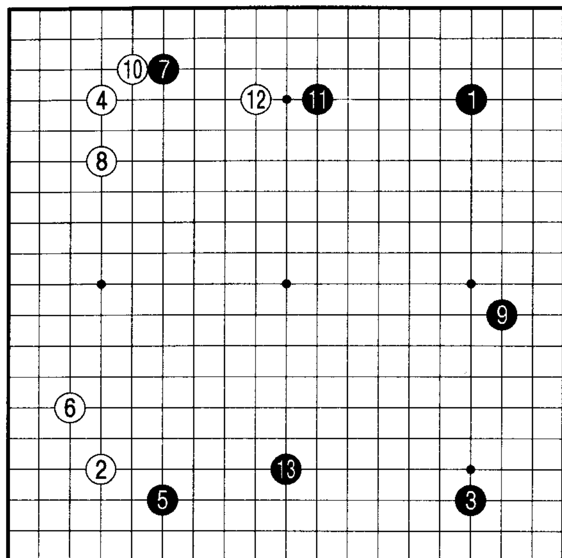
VISIT…

LANZAROTE Caliente.com

중국식 포석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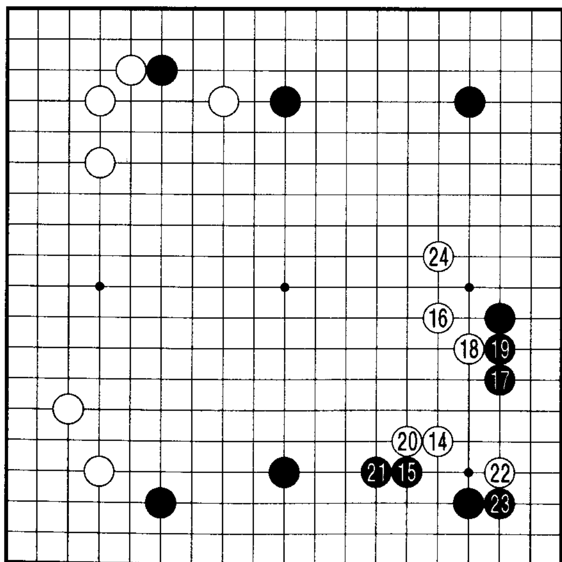
두 수로 귀를 굳히는 포석은 견고하기는 하지만 속도감이 떨어져 진영의 폭을 입체적으로 넓히는데 부적합하다. 중국식 포석은 이런 단점을 보완한 착상으로, 고정관념을 벗어나 귀를 변과 연관시켜 초반의 진영을 능률적으로 확장하는데 그 의도가 있다. 3연성 포석도 이러한 취지는 같으나 현대에는 3연성 포석이 단조롭다고 느껴지는 탓인지 속도감 있고 변화무쌍한 중국식 포석이 2연성과 더불어 유행하고 있다. 이 포석은 이미 20년 전에 가토 마사오(加藤正夫)에 의해 폭발적으로 유행했던 적이 있으며, 그 사고의 자유로움이 현대감각에 부합하는 탓인지 또 다시 현대의 젊은 기사들에 의해 계속 연구되어 여러 개의 발전된 변형을 만들어내고 있다.



〈1보〉

1보(1~13)

흑은 지금까지의 중국식과 달리 흑5와 7을 두어 백이 변으로 넓게 전개하려는 것을 견제한 후 9로 중국식을 펼쳤다. 그리고 백10에 대해서도 11에 착수하여 백의 상변 전개를 12까지로 제한시키고 흑13에 두어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. 이제 백은 흑진을 삭감하지 않으면 안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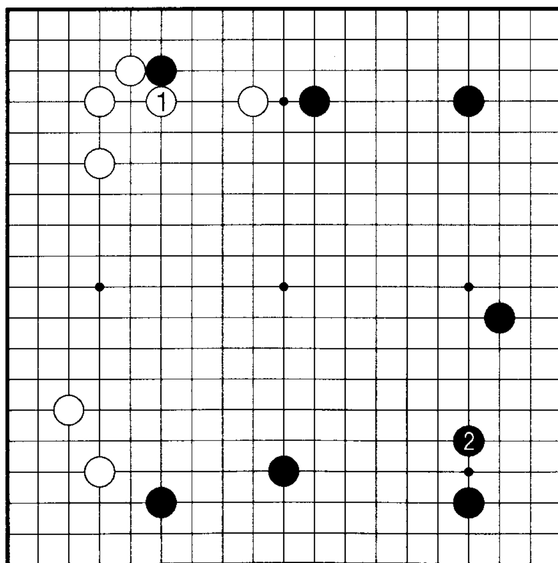


〈2보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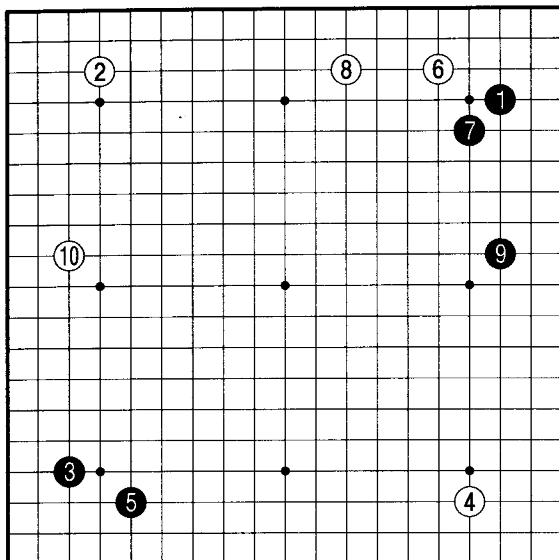
2보(14~24)

백14는 삭감의 요처이다. 이 곳을 게을리하여 방치하면 다음 페이지의 **참고도** 처럼 흑에게 2를 허용하게 되어 흑진이 방대하게 완성되고 만다.

중국식 포석의 역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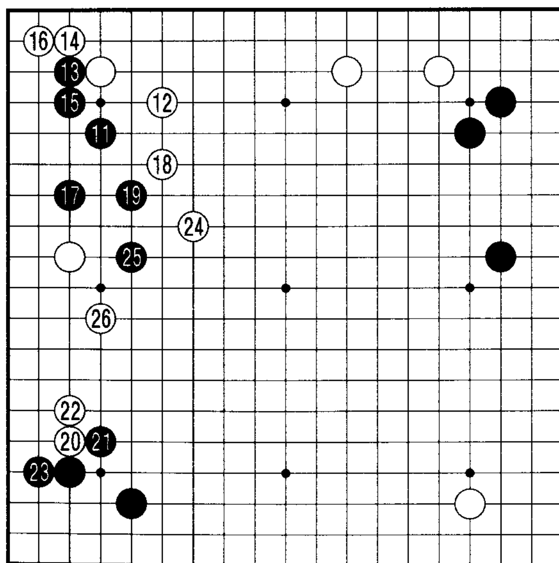
〈참고도〉



〈1보〉

1보(1~1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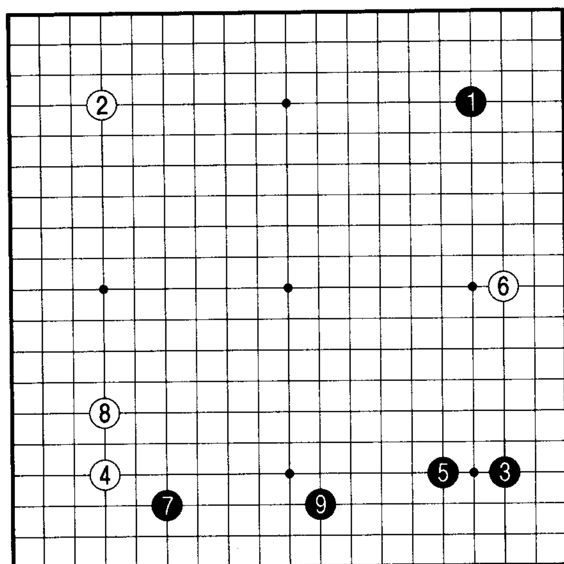
귀를 굳히지 않고 변의 근거리에 착수하려는 발상은 이미 300년전 돌의 효율에 관해 기존 바둑의 틀을 바꾸었던 일본의 기성 도사쿠의 바둑에도 나타나 있다. 백10이 그것이다. 〈백 도사쿠(道策) 대 흑 2세 인세키(因碩)〉



〈2보〉

2보(11~2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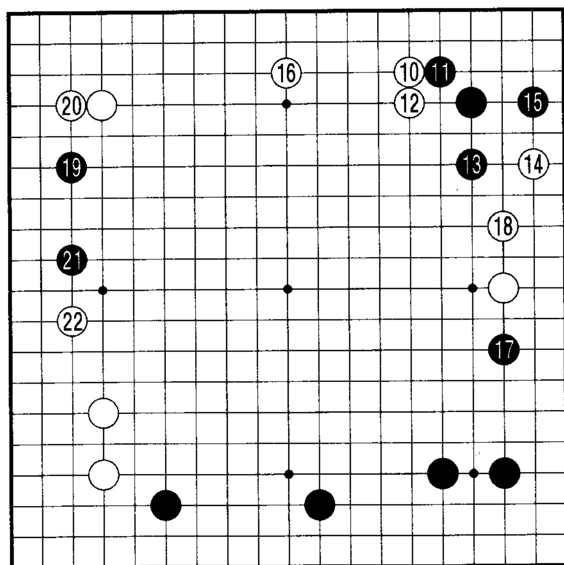
백18과 24로 뛰어 상변을 키우고 26으로 좌변 백을 안정시키는 수순이 자연스럽다.



〈1보〉

1보(1~9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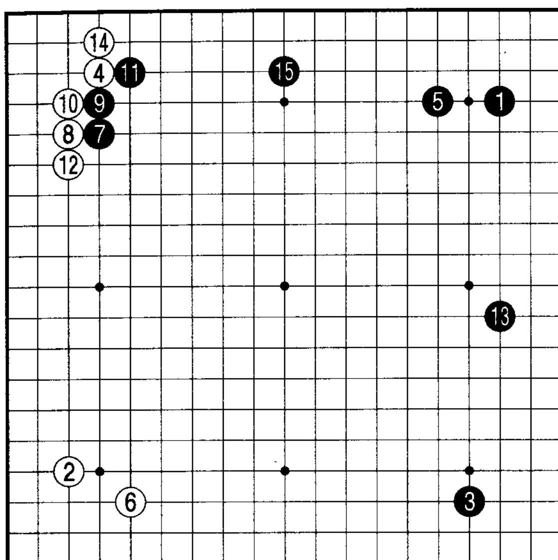
변의 전개와 관련된 사고의 발상은 1948년 우칭위엔(吳清源)의 바둑에서도 볼 수 있다. 흑9의 전개가 그것이다. 〈백 사카다 에이오 대 흑 우치위엔〉



〈2보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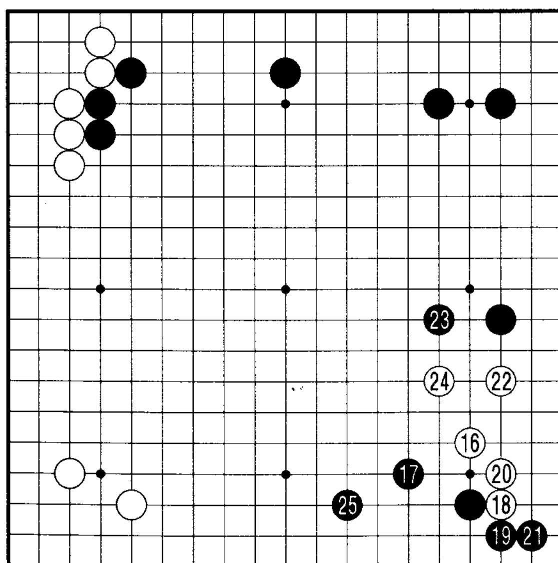
2보(10~22)

흑17로 다가서는 형태의 포진은 현대와 수순은 다르지만 1보 흑9의 위치와 더불어 선각자의 흐름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.


〈1보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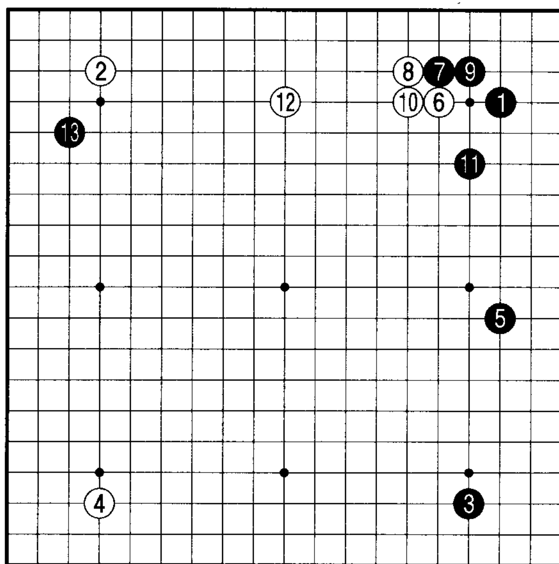
1보(1~15)

이 바둑은 중국식 포진이 태동하기 직전 1958년의 우칭위엔과 후지사와 호사이(藤澤朋濟)의 대국이다. 흑13으로 귀를 굳히지 않고 변에 전개한 것이 중국식 포석의 사고와 동일하다는 것을 음미하기 바란다.


〈2보〉

2보(16~2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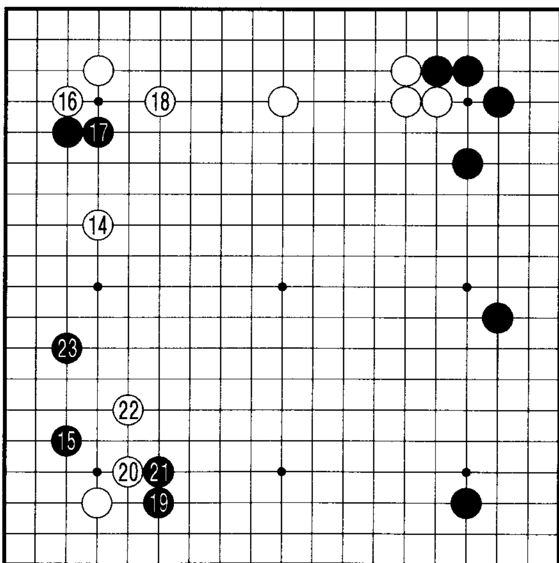
백16을 유도하여 흑이 23쪽의 변을 확장하는 것은 중국식 포석의 발상과 똑같은 것이다.



〈1보〉

1보(1~1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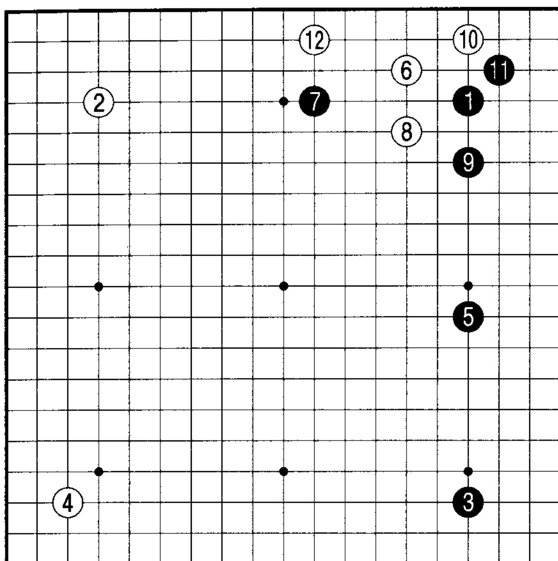
우칭위엔과 함께 신포석을 연구했던 기타니 미노루(木谷實)도 뒤이어 1959년 이와 비슷한 포진을 하고 있다. 흑5가 그것이다. 그리고 5와 균형을 맞추어 흑11의 선택이 자연스럽다.



〈2보〉

2보(14~2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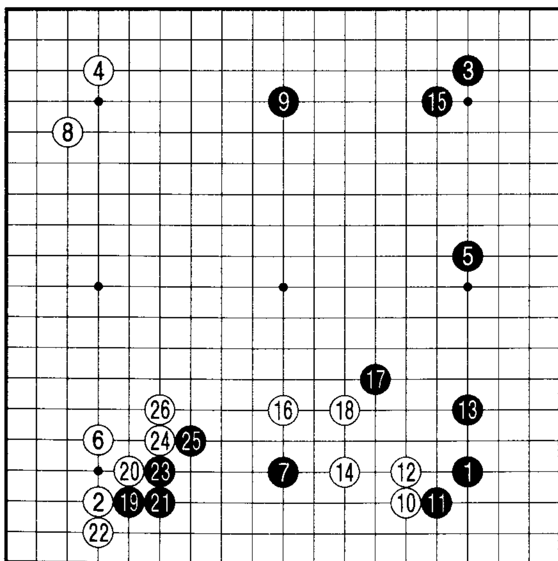
흑이 좌상귀를 손빼고 좌하귀부터 전단을 끌어 주도권을 잡으려는 흐름이 중국식 포석 감각과 다를 바 없다.



〈실전보1〉

실전보1(1~1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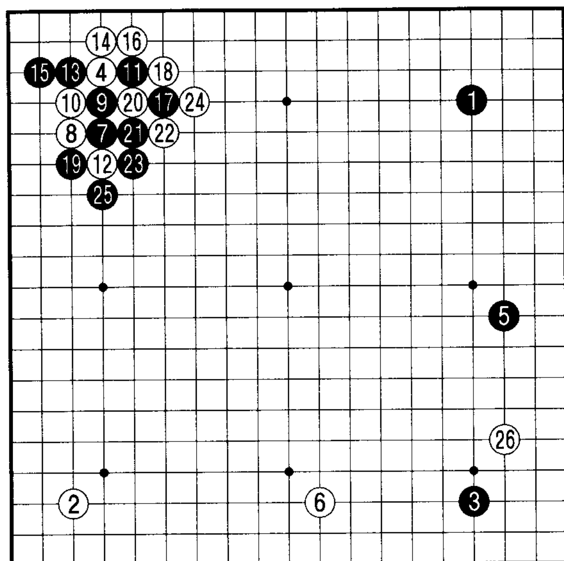
중국식 포석이 중국의 천쥬더(陳祖德)에 의해 일본기사들을 상대로 두어지기 약 4년전인 1961년에는 일본의 아마추어 본인방전에서 아마추어에 의해 높은 중국식이 이미 두어졌다. 〈백 니시무라(西村修) 대 흑 히라다(原田實)〉



〈실전보2〉

실전보2(1~2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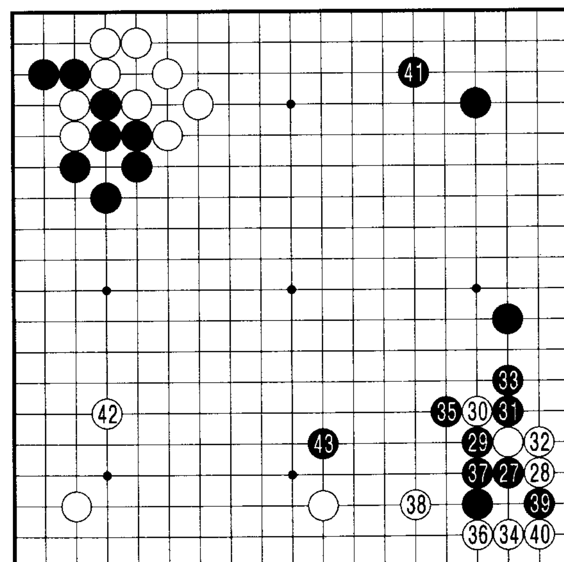
이 바둑도 아마추어의 대국이다. 1965년 낮은 중국식 포석이 천쥬더에 의해 두어질 무렵인데, 여기서 주목할 것은 흑15의 지킴이다. 현대 감각인 것이다. 〈백 요시다(吉田英記) 대 흑 기쿠치(菊池康郎)〉



〈1보〉

1보(1~2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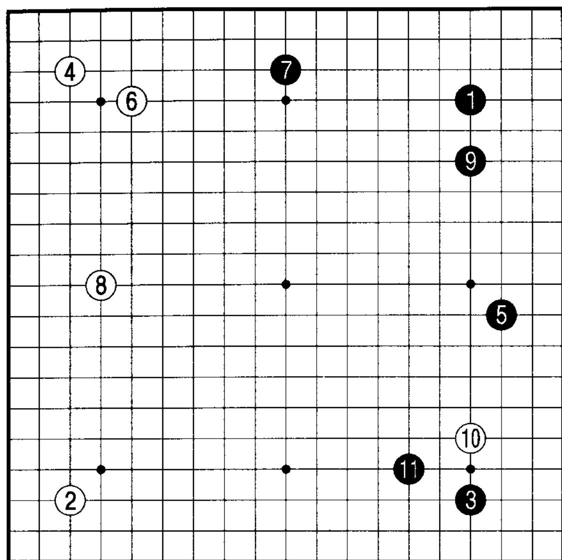
1965년 당시 중국의 대표기사였던 천쥬더 9단이 중국식 포석에 조예가 있던 일본의 가지와라(梶原武雄) 9단을 상대로 시도한 낮은 중국식 포석이다.



〈2보〉

2보(27~4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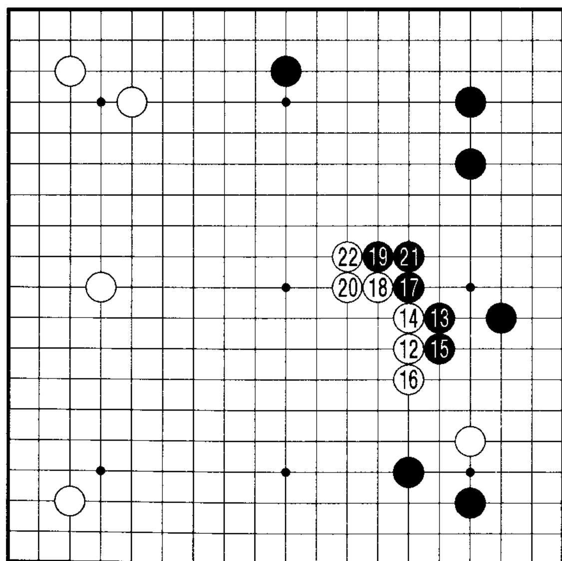
아직 무르익지 않았는지 큰 모양이 만들어지지는 않고 있다.



〈1보〉

1보(1~1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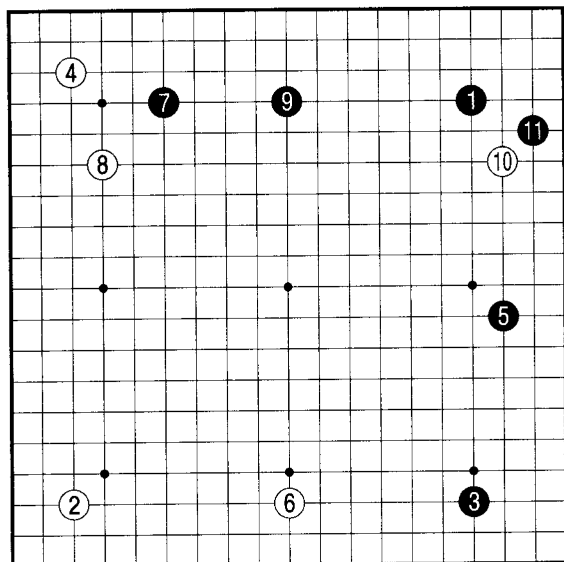
중국식 포석은 1970년대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세련된 틀을 갖추기 시작한다. 이 바둑은 그 시초로 볼 수 있다. 우선 흑9로 지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. 〈백 이시다 요시오(石田芳夫) 대 흑 린하이펑(林海峰)〉



〈2보〉

2보(12~2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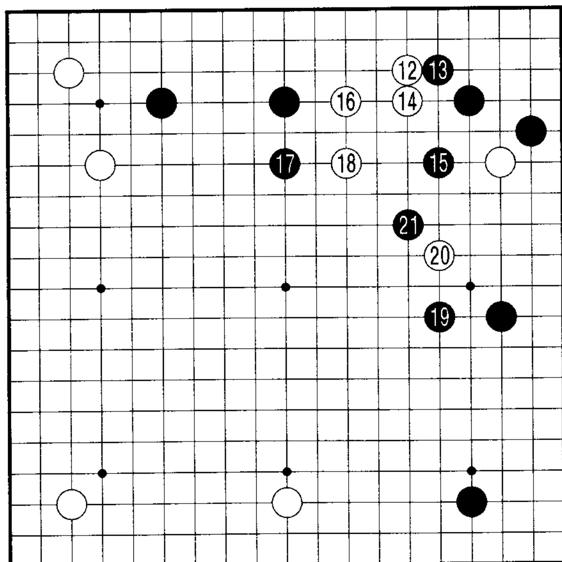
백도 이 포진에 대항하려는 연구가 있었음을 반증한다. 백12와 같은 가벼운 행마가 그것이다. 백은 흑이 발전하려는 모양을 계속 제한하고 있다.



〈1보〉

1보(1~1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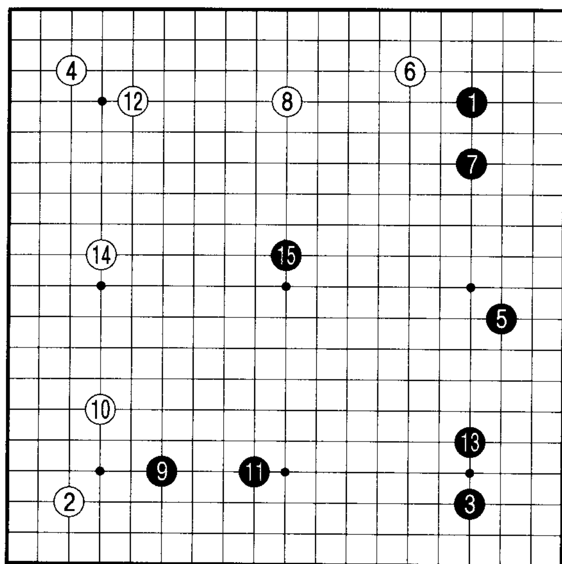
1975년부터 중국식 포석은 폭발적인 유행을 하기 시작한다. 이 바둑은 1975년 다카가와 가쿠(高川格)를 상대로 조치훈이 흑으로 둔 바둑이다. 백10에 대해 흑11의 처진 날일자로 공격하는 진행이 돋보인다.



〈2보〉

2보(12~2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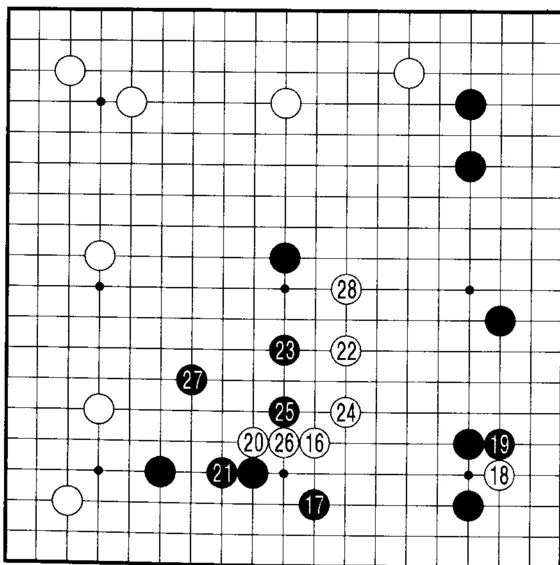
백12의 교란에는 흑13·15로 공격하여 빠르게 주도권을 잡는 이러한 진행이 중국식 포석의 본류이다.



〈1보〉

1보(1~1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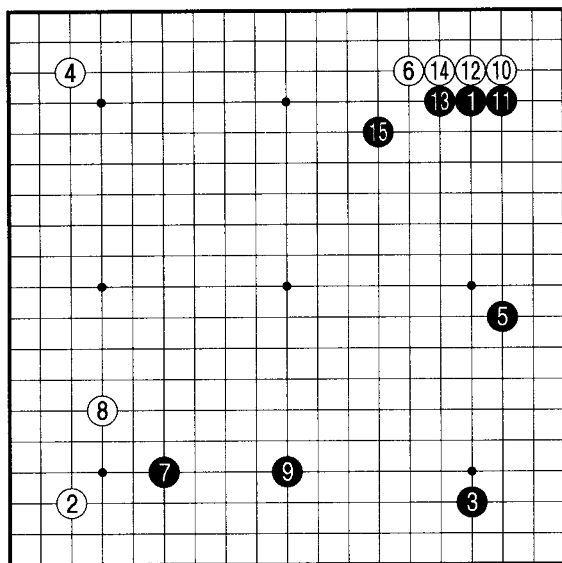
1976년에는 중국식 포석의 연구가 개화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. 이 바둑은 백의 이시다 요시오와 흑의 오다케 히데오(大竹英雄)의 그 당시 대국이다. 흑11의 굳힘에도 동요하지 않고 백12로 지킨 다음 흑13을 기다려 또 백14로 지키고 흑15로 울타리를 칠 때……



〈2보〉

2보(16~2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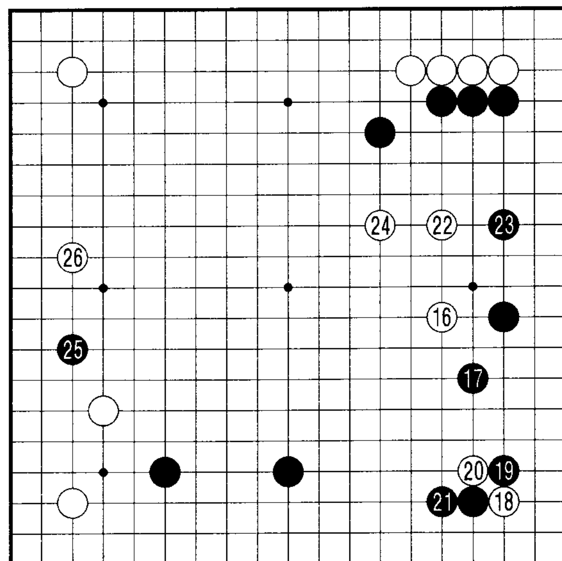
백16으로 삭감을 시작하고 있다. 이 중앙전의 흐름으로 주도권의 향방이 결정된다.



〈1보〉

1보(1~1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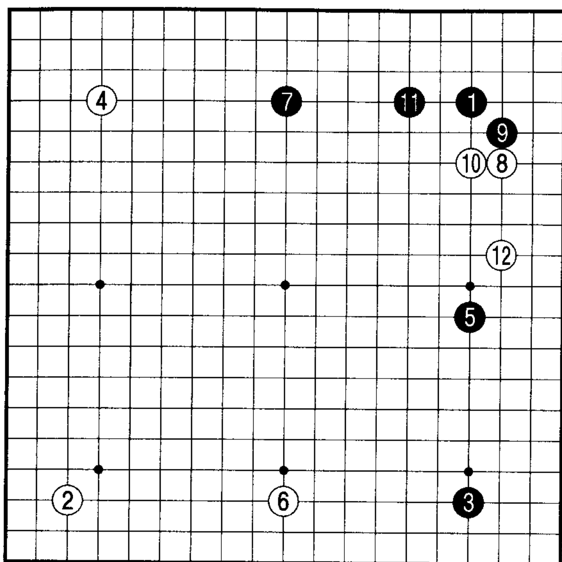
1977년에는 중국식 포석의 전성기를 맞는다. 이 포석의 결론은 흑의 공격과 백의 삭감 중 어느쪽이 잘 진행되었느냐에 따라 주도권의 향방이 결정된다는 것이다. 이 흐름은 다시 유행을 맞고 있는 현재에도 같은 양상이다. 〈백 조치훈 대 흑 고바야시 고이치(小林光一)〉



〈2보〉

2보(16~2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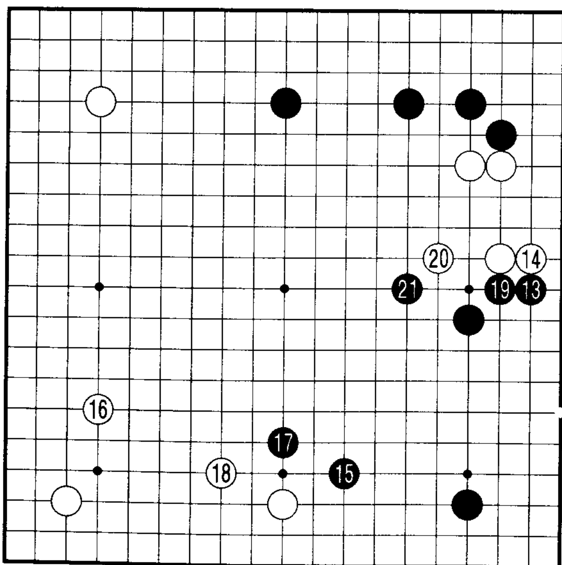
백16의 삭감이 포인트이다. 백18·20으로 뒷맛을 남기고 22·24로 전환하는 것이 백의 흐름이다.



〈1보〉

1보(1~1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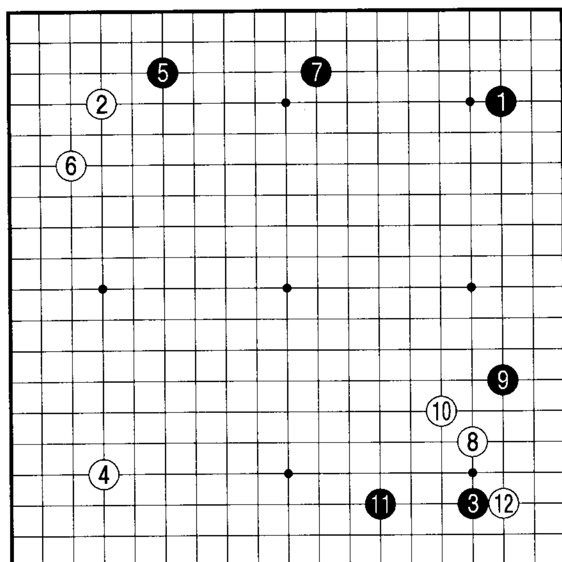
낮은 중국식 포석은 침입에 강한 대신 삭감에 조심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. 그래서 침입을 유도하여 강하게 공격하려는 착상이 높은 중국식 포석이다. 이 바둑은 1976년 중국식 포석으로 맹위를 떨치던 가토 마사오(흑)와 린하이펑의 대국이다. 백8의 침입을 유도하여……



〈2보〉

2보(13~2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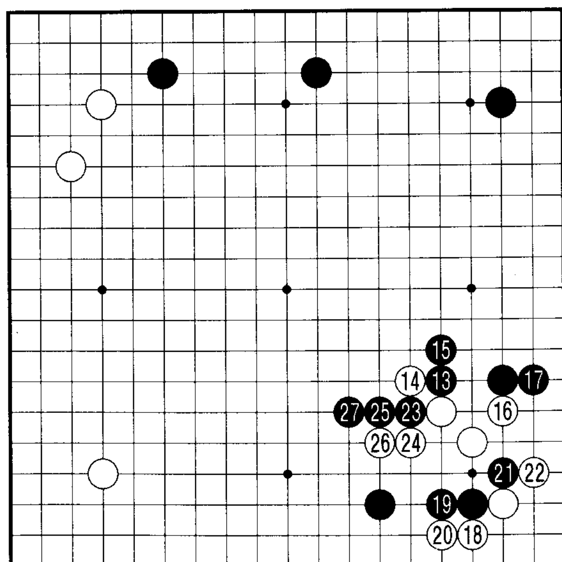
흑13으로 근거를 위협하고 15·17로 선수한 다음 19·21로 우하를 확장하게 되면, 백은 이곳을 또 침입할 수 밖에 없게 되므로 흑은 우상의 백과 연관하여 공격으로 주도권을 잡게 된다.



〈1보〉

1보(1~12)

이 바둑은 미니 중국식이라 불리는 포석이다. 요즘 유행하는 포석이지만 1977년에도 이미 유행의 물결을 탔던 포석이다. 흑의 오다케(大竹英雄)가 백의 린하이펑을 상대로 둔 대국이다. 백8의 걸침에 흑9로 협공하여 우상을 거점으로 커다랗게 포진하려는 것이다.



〈2보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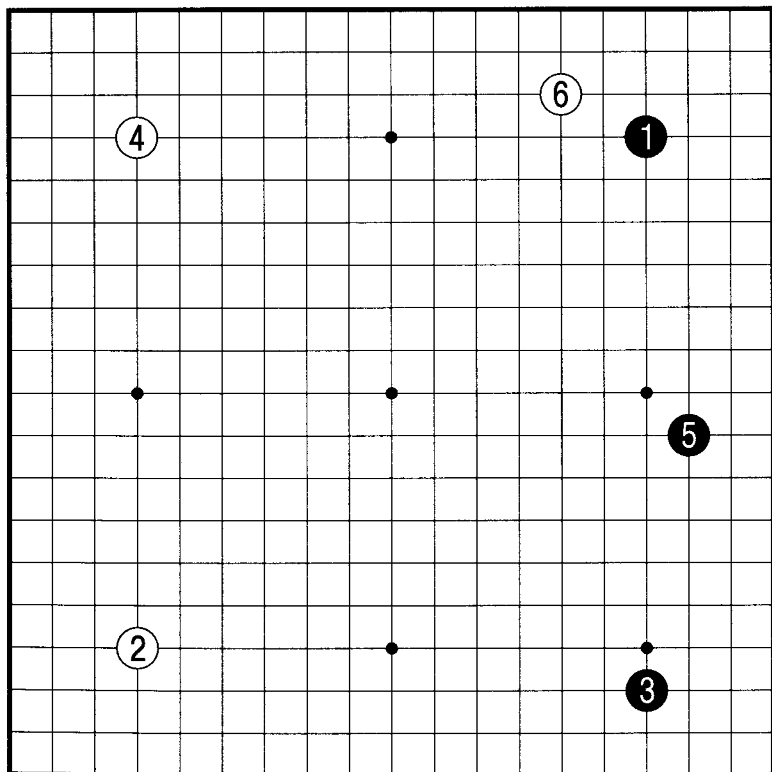
2보(13~27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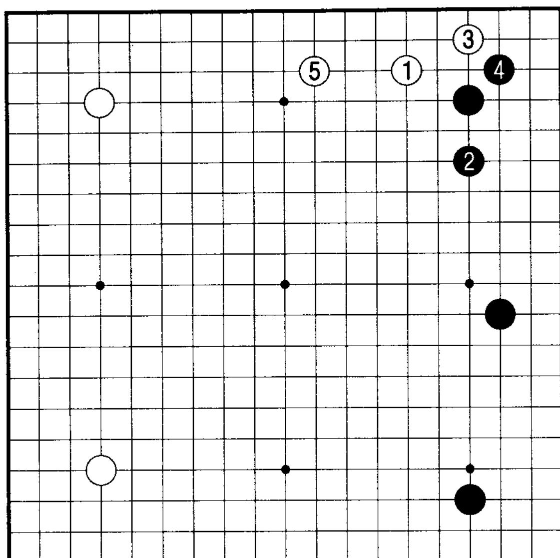
백12에 대해 흑13 · 15로 응수하여 백에게 귀를 허락하는 대신 흑23으로 끊어 우중앙에 두터운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다.

제32형

중국식 포석 1(2연성 대응) — 낮은 중국식(1)

흑이 화점과 소목으로 포진한 후 백2·4 때 흑5로 전개해서 낮은 중국식 포석을 펼친 모습이다. 흑이 중국식 포석을 펼치면 백으로선 걸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, 먼저 백6으로 화점에 걸친 이후 변화를 알아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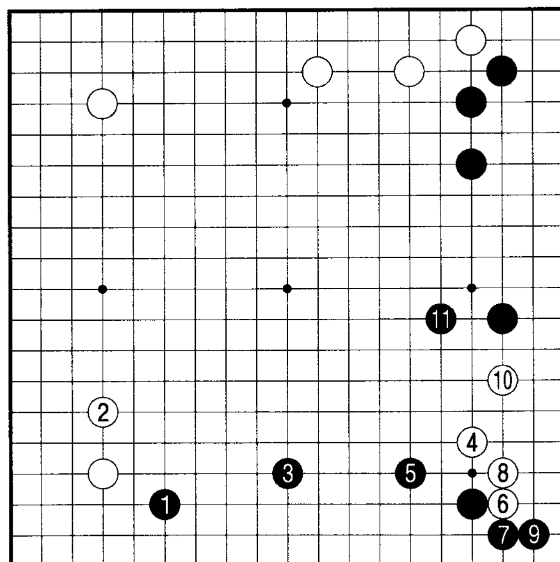




1도

1도(상용 포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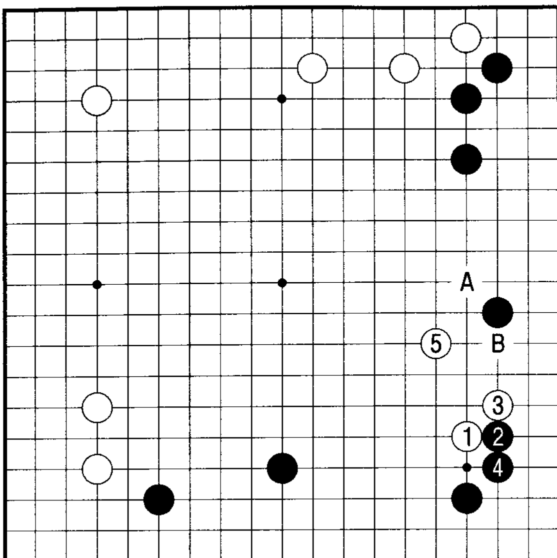
백1로 걸쳤을 때 흑2로 받으면 가장 평범하다. 계속해서 백3으로 날일자하고 흑4, 백5까지 가장 상식적인 진행이다.



2도

2도(흑, 활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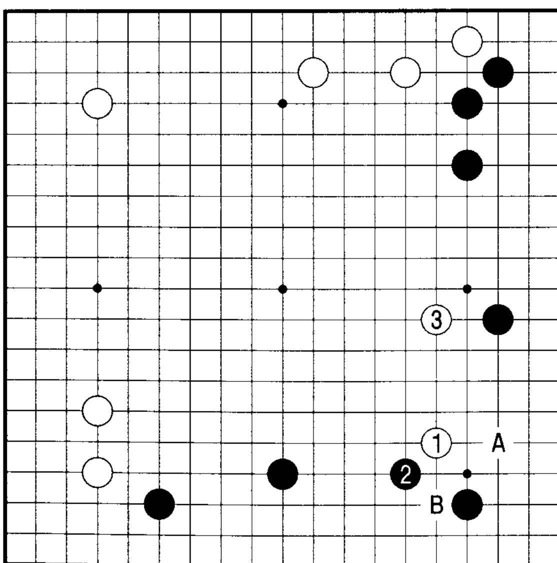
전도 이후 흑은 1로 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. 백2로 받는다면 흑3으로 전개해서 세력의 폭을 넓힐 수 있다. 계속해서 백4로 걸친다면 흑5로 날일자한 후 이하 11까지 처리해서 충분하다.



3도

3도(발전자 행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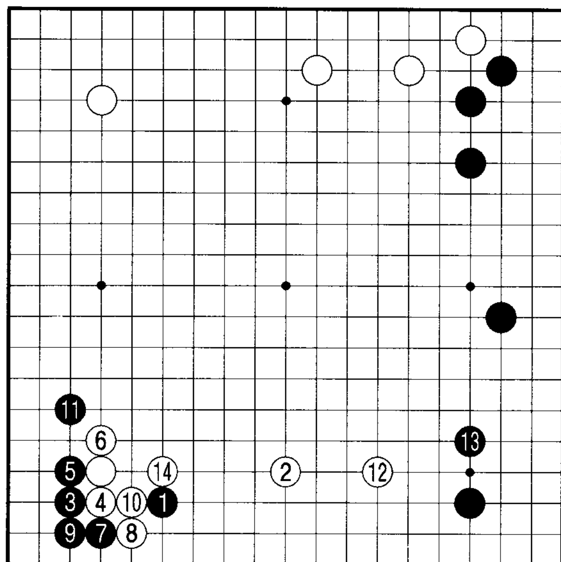
백1로 걸쳤을 때 흑2로 붙이는 것은 의문수이다. 백은 3으로 젖힌 후 5로 발전자 행마하는 것이 경쾌한 수로 이후 A와 B를 맞보기로 하고 있다.



4도

4도(독특한 걸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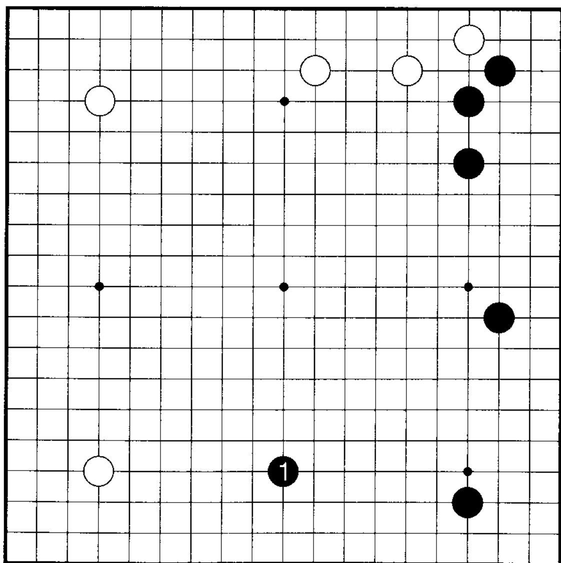
백은 1로 날일자해서 걸치는 수도 가능하다. 계속해서 흑2로 받는다면 백3으로 모자씌워 형태를 정비하는 것이 요령이다. 흑2로 A에 받는다면 백B로 붙여 수습하는 것이 요령이다.



5도

5도(백, 세력 견제)

흑1로 걸쳤을 때 흑의 세력작전을 견제하고 싶다면 백2로 협공하는 것이 좋다. 계속해서 흑3으로 3·三에 침입하고 이하 백14까지가 예상되는 진행인데 피차 불만없는 갈림이다.



6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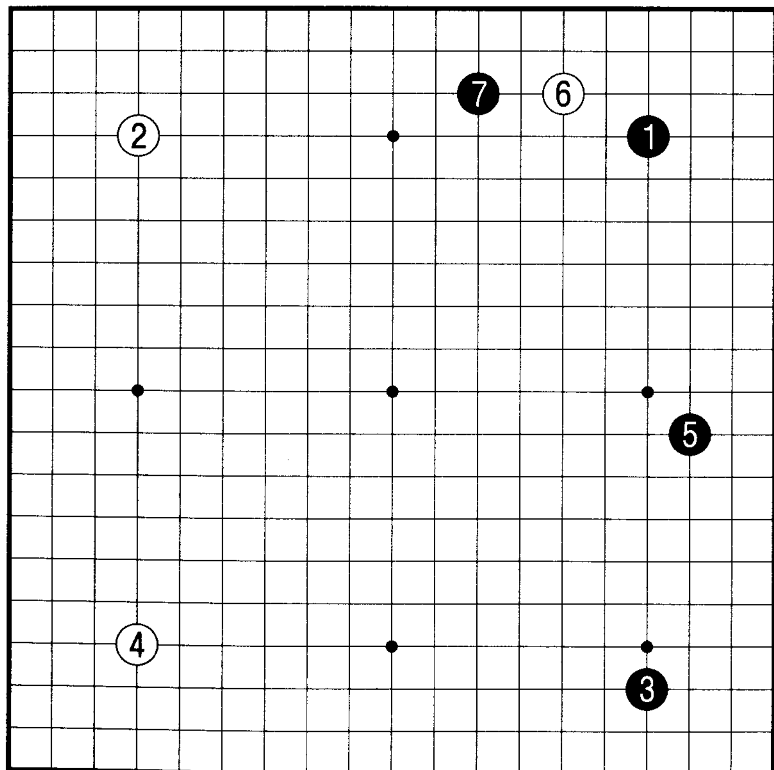
6도(흑, 세력작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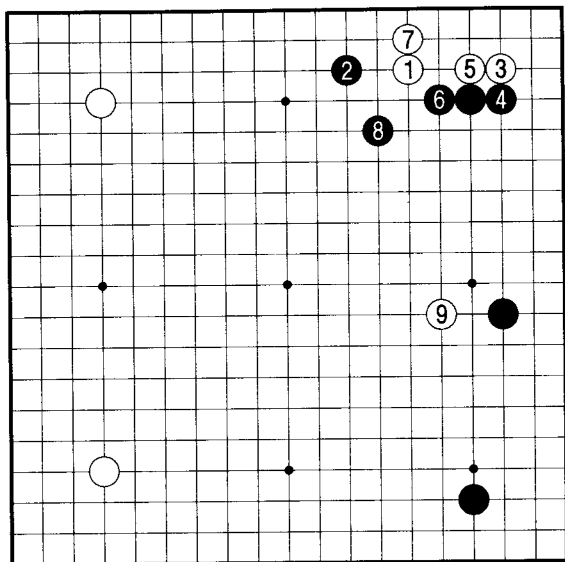
흑으로선 전도처럼 백에게 견제받는 것이 싫다면 단순히 흑1로 전개하는 것이 좋은 수이다. 이렇게 전개해 두면 입체적인 세력작전을 펼칠 수 있다.

제33형

중국식 포석 2(2연성 대응) — 낮은 중국식(2)

백6으로 걸쳤을 때 흑7의 한칸 협공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. 이 수는 예전에는 쓰이던 수법이었지만, 흑의 자세가 좋지 않다 하여 현대에는 사라진 포석이다. 나름대로의 의도는 백으로부터 3·三 침입을 유도하여 흑 진영을 확대하려는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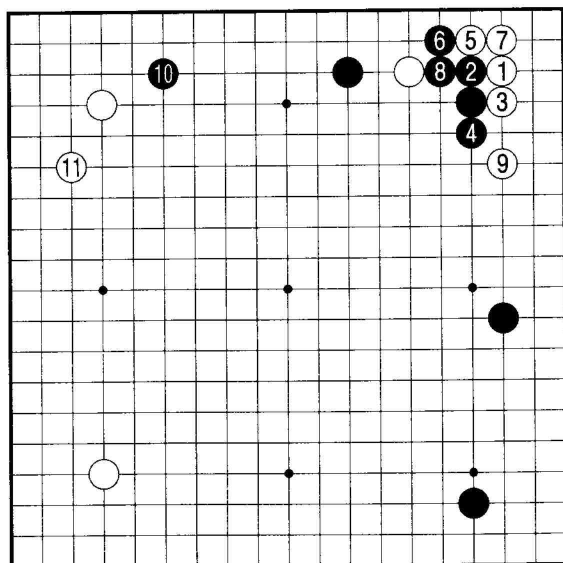




1도

1도(절호의 삭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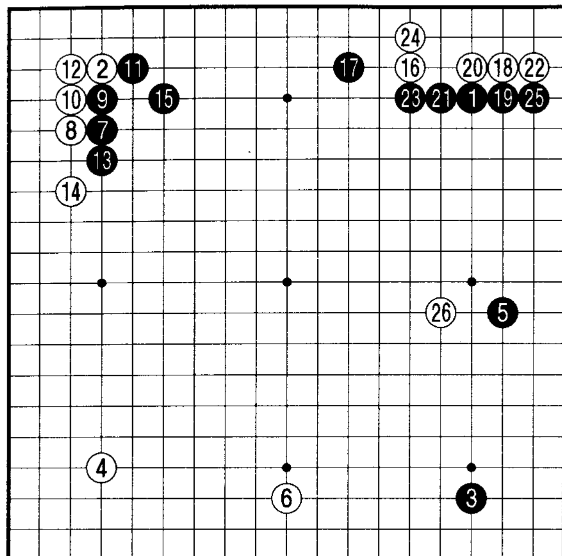
백1로 걸쳤을 때 흑2로 협공하는 것은 세력을 펼치려는 작전이다. 그러나 백은 3으로 3·三 침입해서 이하 흑8까지 선수를 취한 후 백9로 삭감하는 것이 절호점이 된다.



2도

2도(백, 충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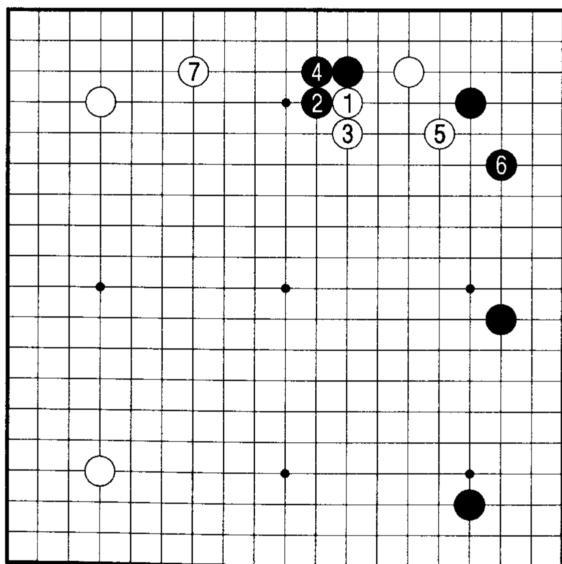
백1 때 흑2로 막는 변화도 검토할 수 있다. 그러나 백3 이하 9까지의 정석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변 흑 세력이 볼품없게 되므로 흑이 좋지 않다.



3도

3도(실전 포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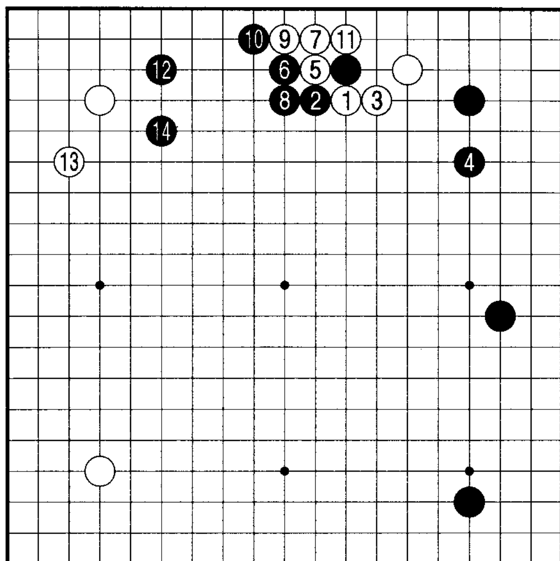
좌상의 진행이 다르기는 하지만 백이 18로 귀를 차지하는 이 정석은 백의 선수정석이므로 백 26의 삭감의 요처도 차지할 수 있다. 낮은 중국식의 포석은 이 곳의 착수 타이밍을 포착하는 것이 포인트다. [24기 일본 왕좌전 도전3국 : 백 오다케(大竹英雄) 대 흑 조치훈]



4도

4도(흑, 작전변경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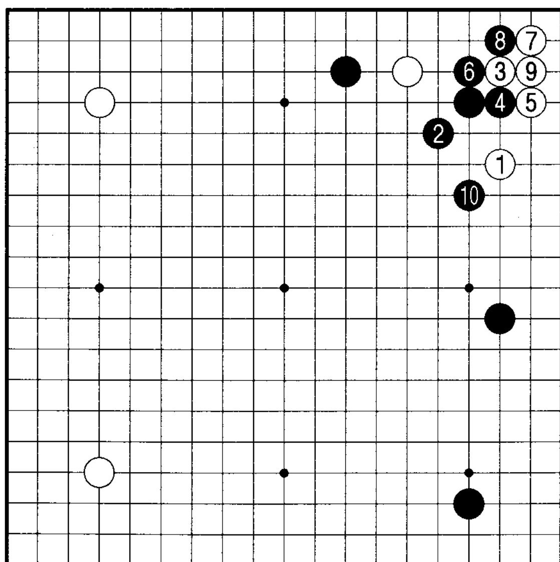
백이 귀를 포기하고 1·3으로 중앙으로 진출하게 되면 흑도 4·6으로 작전을 변경해야 한다. 백7 이후의 진행은 전투가 된다.



5도

5도(백의 변화)

백은 1·3으로 끌어 간단히 처리하고 선수를 잡을 수도 있다. 흑14까지 무난한 진행이라고 볼 수 있다.



6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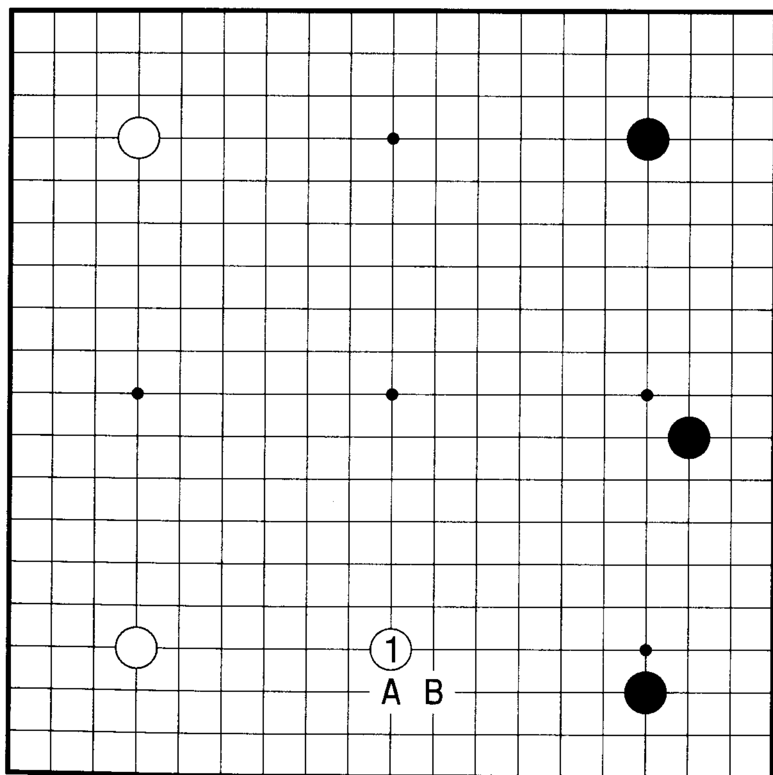
6도(백, 불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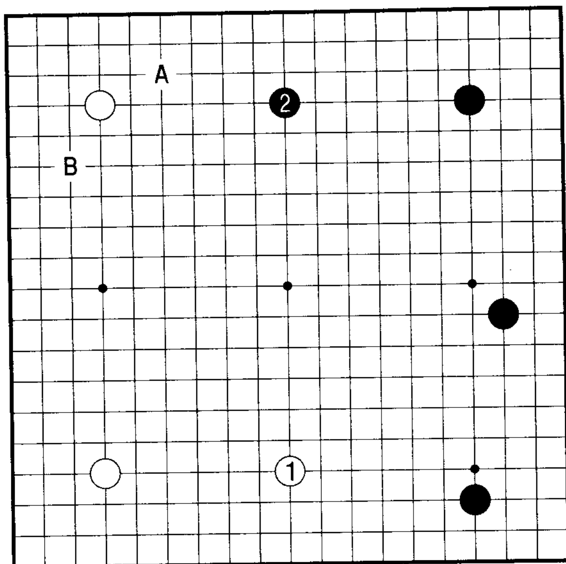
백1로 양걸침하는 변화는 이하 흑10까지가 예상되는 포석 진행인데, 백의 중앙진출이 봉쇄된 대가로 장만한 귀의 집이 적어 불만이다.

제34형

중국식 포석 3(2연성 대응) — 낮은 중국식(3)

백은 급전을 피하여 1로 유연하게 전개할 수도 있다. A나 B의 곳도 같은 맥락이다. 그럼 백1로 하변을 전개한 이후의 포석 변화를 알아보기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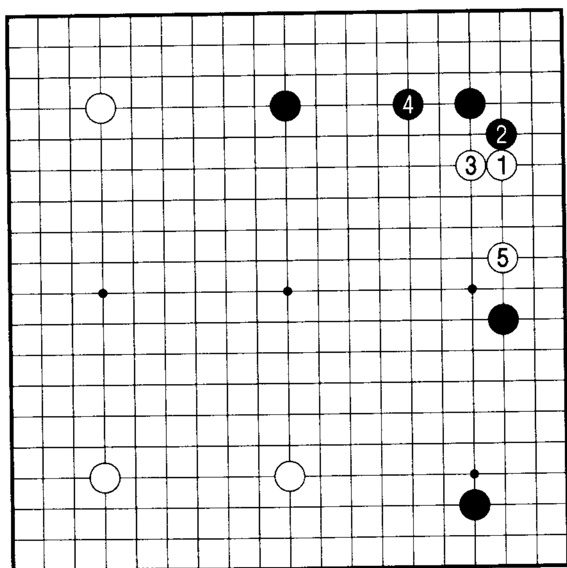




1도

1도(백, 하변 중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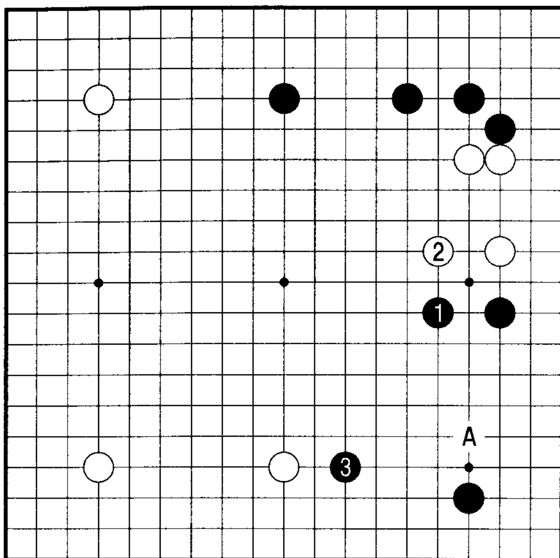
흑의 중국식 포석에 대해 하변을 중시하여 단순히 백1로 전개하는 수도 가능하다. 계속해서 흑은 2로 전개하든지 아니면 흑A, 백B를 결정한 후 2로 전개하는 진행이 예상된다.



2도

2도(백, 의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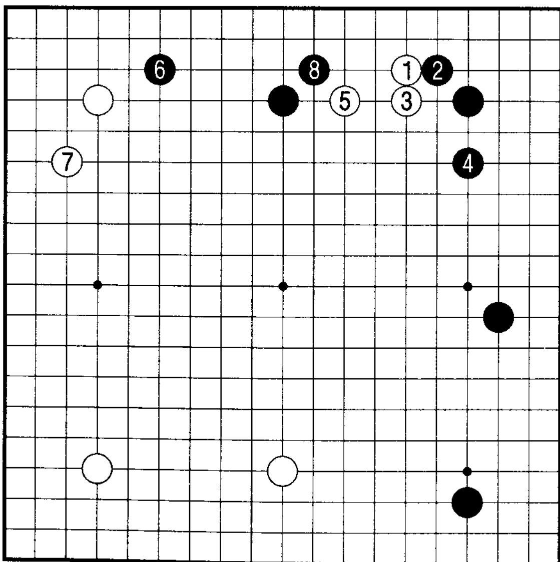
전도 이후 백1로 걸치는 것은 의문이다. 흑은 2로 마늘모 붙인 후 백3 때 흑4로 한칸 뛰는 것이 이 경우 적절한 처리법이다. 백5의 두칸벌림에는……



3도

3도(흑, 활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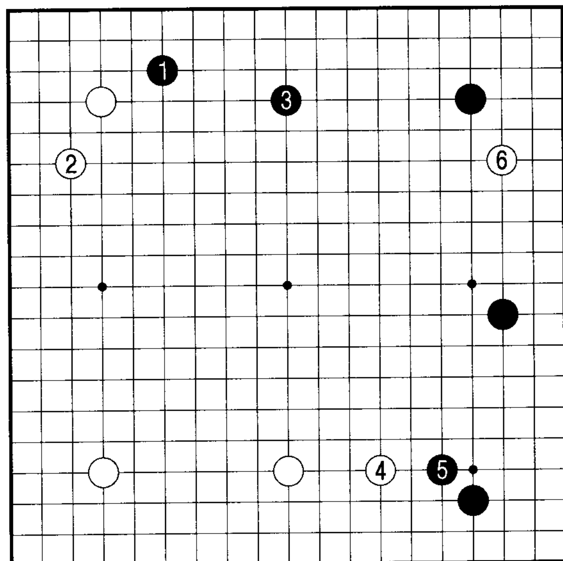
전도에 계속해서 흑1로 한칸 뛰는 것이 흑으로선 좋은 수이다. 백은 2로 한칸 뛰는 정도인데 흑3으로 전개해서 입체적인 모양을 구축할 수 있다. 흑3으로 A에 두는 것은 다소 싱겁다.



4도

4도(대동소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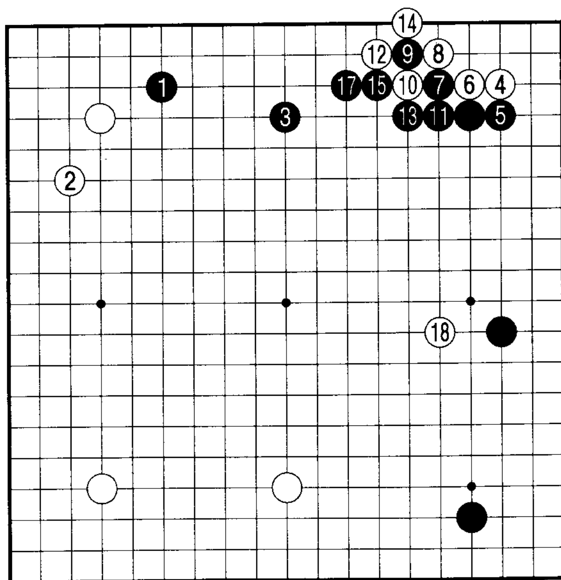
백1로 걸치는 수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. 흑은 2로 붙여 세운 후 이하 8까지 처리하는 것이 요령으로 일방적인 공세를 취할 수 있다.



5도

5도(흑의 변화)

흑이 1·3으로 상변에 포진하면 백4로 흑5를 유도한 후 백6으로 걸쳐 전투가 개시된다.



6도

⑯ … 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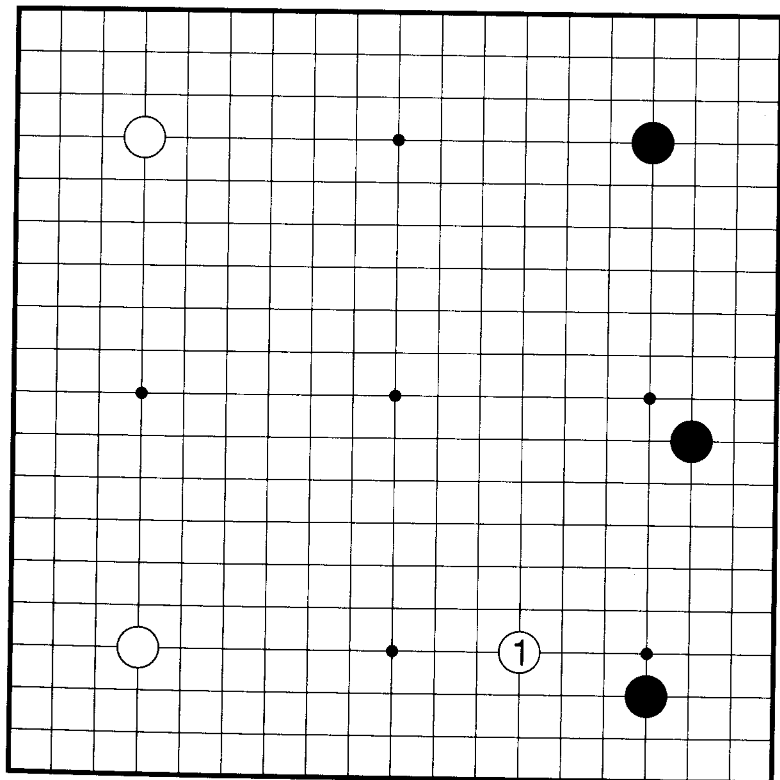
6도(백의 별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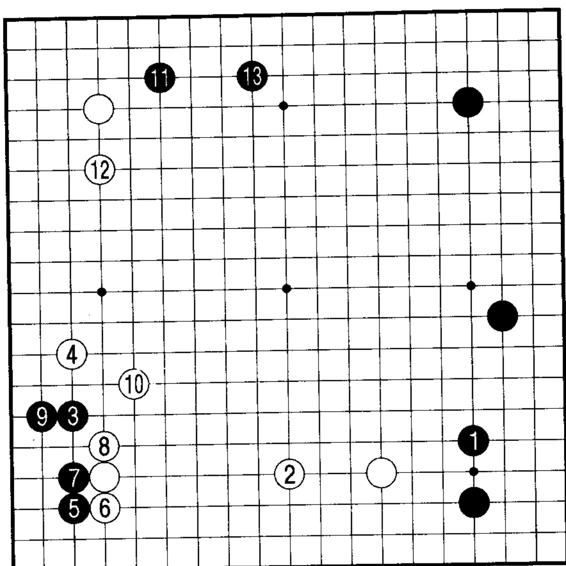
흑1·3으로 전개했을 때 백4로 우상귀를 침투한 후 흑17까지의 과정을 거친 다음 백18의 요처를 차지하는 방법도 있다.

제35형

중국식 포석 4(2연성 대응) — 낮은 중국식(4)

흑의 중국식 포석에 대해 백은 1로 흑의 응수를 강요할 수도 있다. 이 수는 중국식 포석의 의도를 사전에 봉쇄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. 그럼 이후의 포석 변화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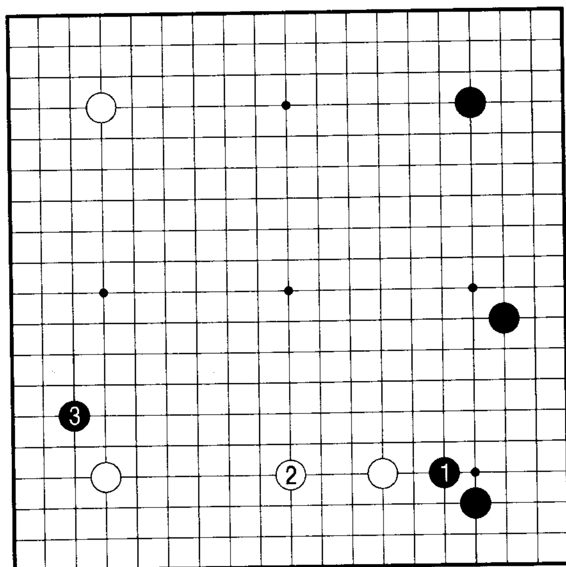




1도

1도(무난한 포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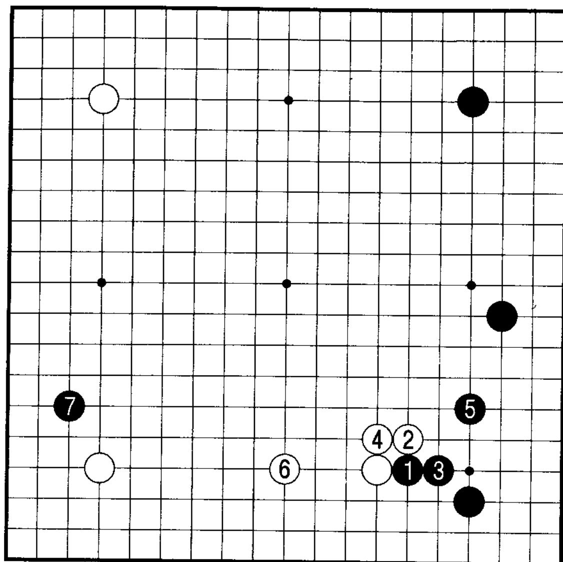
흑1로 지키게 되면 백은 2로 벌려 중국식 포석을 견제하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. 이하 흑13까지 무난한 포석 진행이 예상된다.



2도

2도(대동소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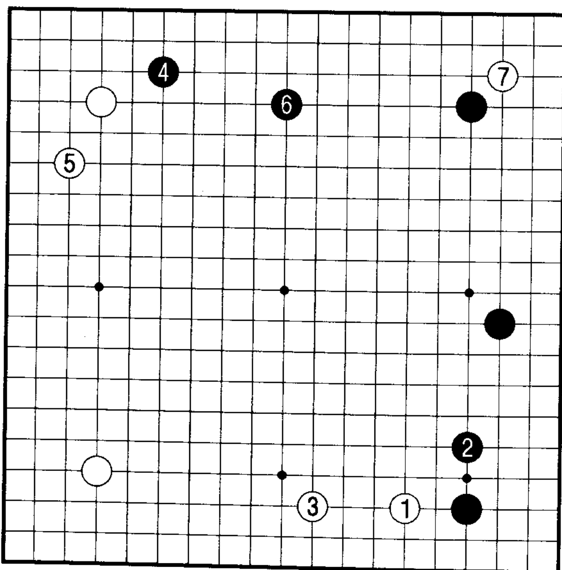
흑은 1의 마늘모로 지키는 수도 있다. 흑3 이후의 진행은 전도와 비슷하게 된다.



3도

3도(적극적 붙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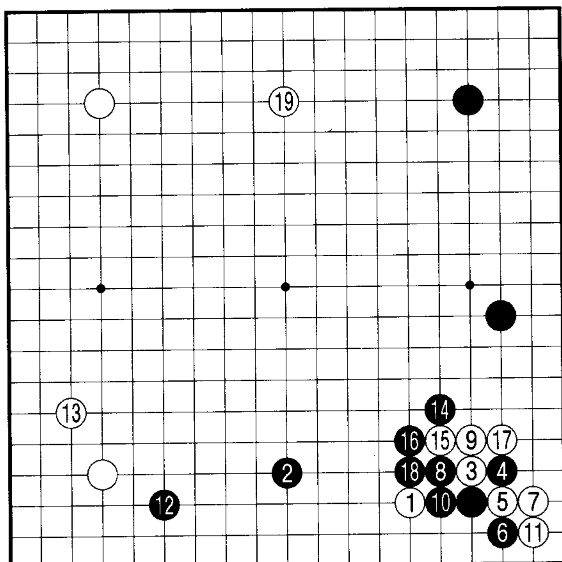
흑은 1·3으로 붙이고 뻗은 후 5로 우하귀를 완벽하게 굳힐 수도 있다. 흑7 이후의 진행도 1, 2도와 비슷하다.



4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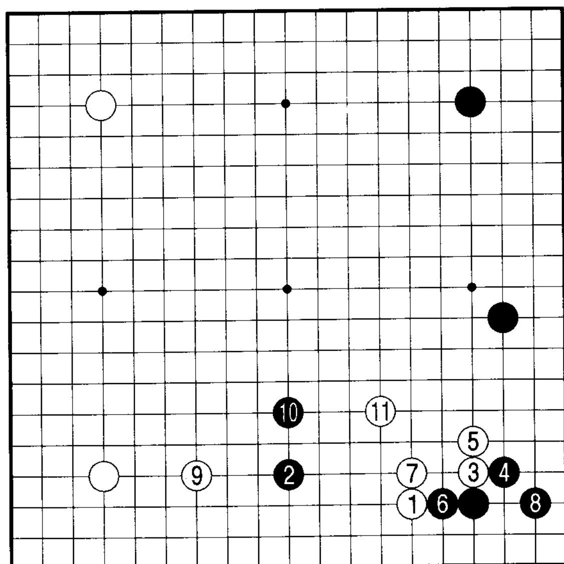
4도(백의 별책)

백은 1·3으로 하변을 결정할 수도 있다. 흑4·6의 전개를 기다려 백7로 침입하면 실리와 세력으로 갈리게 될 것이다.


5도

5도(다른 변화)

백1에 대해 흑2로 갈라치면 백은 3으로 붙인 후 5로 끊는 것이 요령이다. 이하 백19까지의 진행이 예상되는데, 이 결과는 처음과 전혀 다른 진행이다.


6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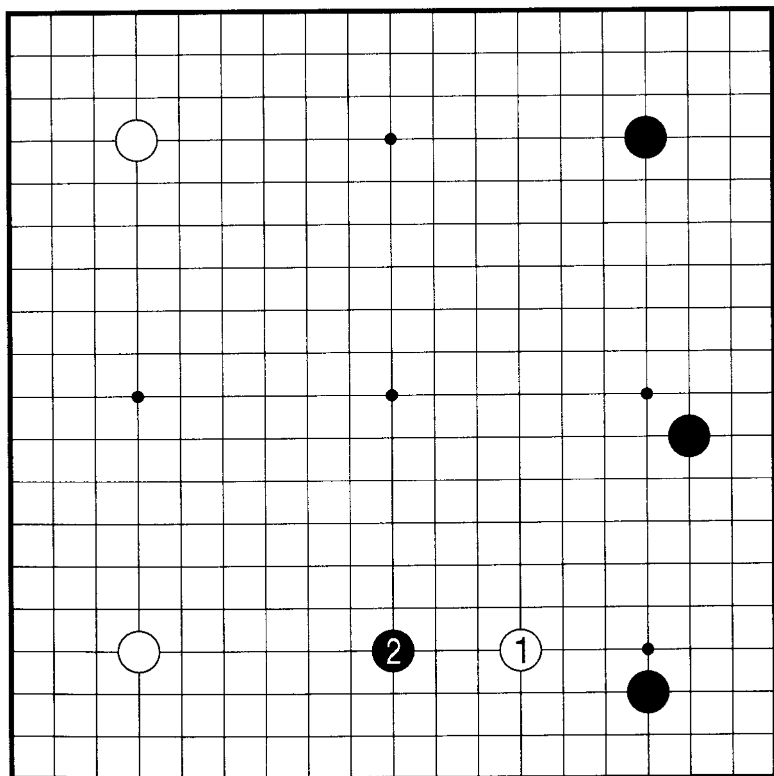
6도(전투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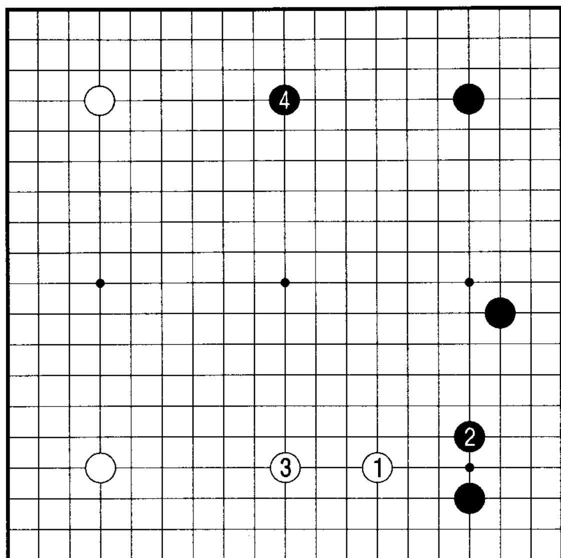
백1, 흑2 때 백3·5의 작전구상도 예상할 수도 있다. 이 진행은 이하 백11까지 전투로 가게 된다.

제36형

중국식 포석 5(2연성 대응) — 낮은 중국식(5)

흑의 중국식 포석에 대해 백은 우상귀에 걸치지 않고 백1처럼 우하귀를 외곽에서 걸치는 수도 가능하다. 계속해서 흑2로 협공한 것은 적극적인 수법인데 이후의 변화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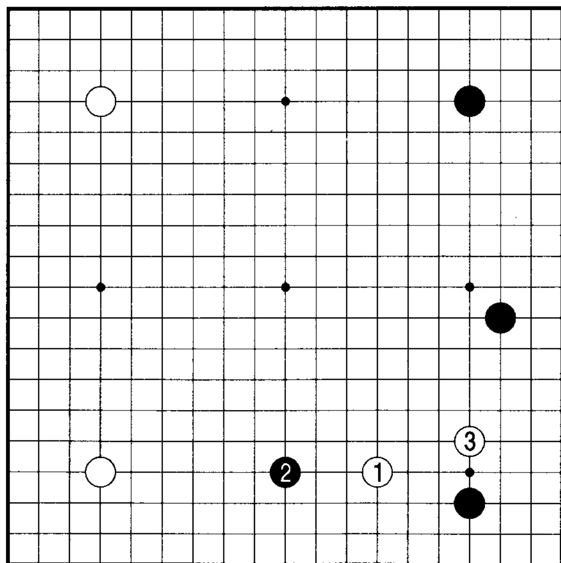




1도

1도(백의 주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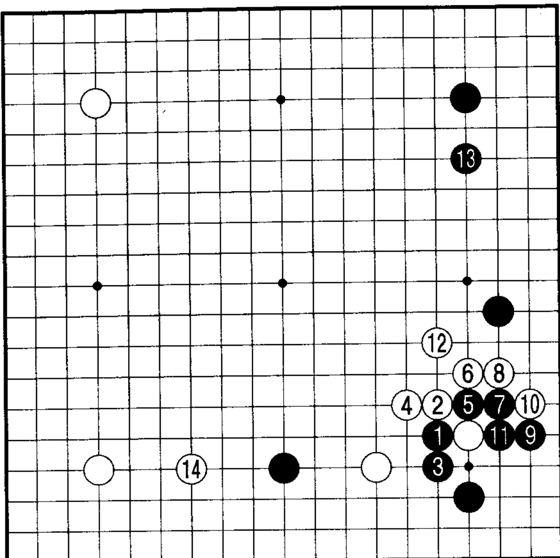
백1로 걸쳤을 때 흑2로 받으면 흑 세력을 견제하려는 백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된다. 계속해서 백3으로 전개하고 흑도 4로 벌리게 되는데 쌍방 불만 없는 포진이다.



2도

2도(기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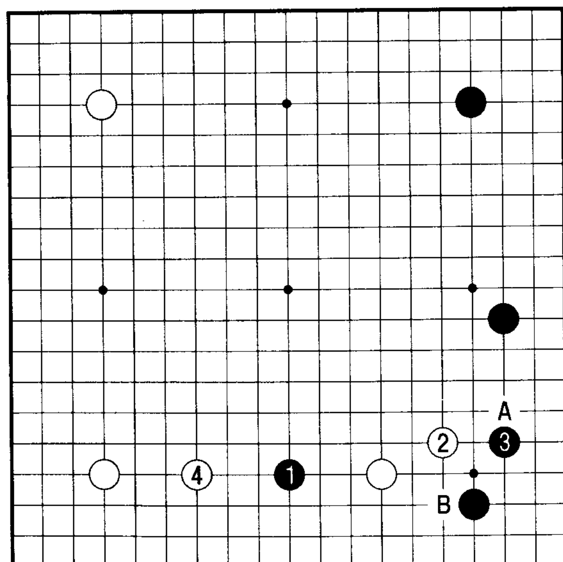
백1로 걸쳤을 때 흑2로 협공하면 백으로선 기세상 당연히 3으로 걸칠 곳이다. 흑은 주변이 강한 만큼 강하게 버티게 되는데……



3도

3도(예상 포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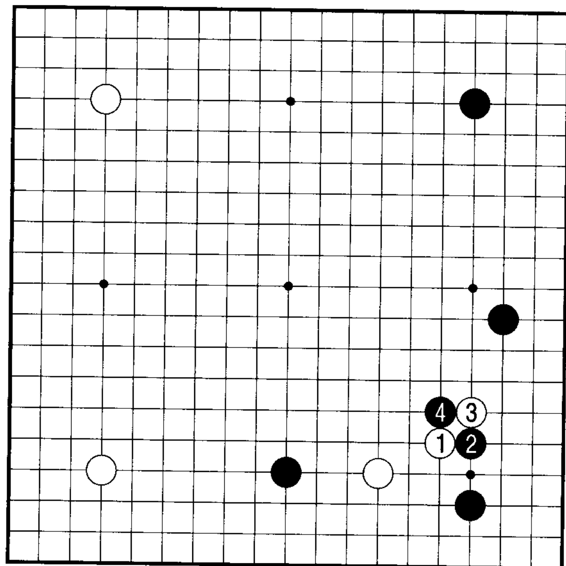
전도에 이어서 흑은 1로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다. 백은 2로 젖힌 후 4에 뻗게 되는데 흑5로 끊고 이하 백14까지 예상된다.



4도

4도(백, 유연한 착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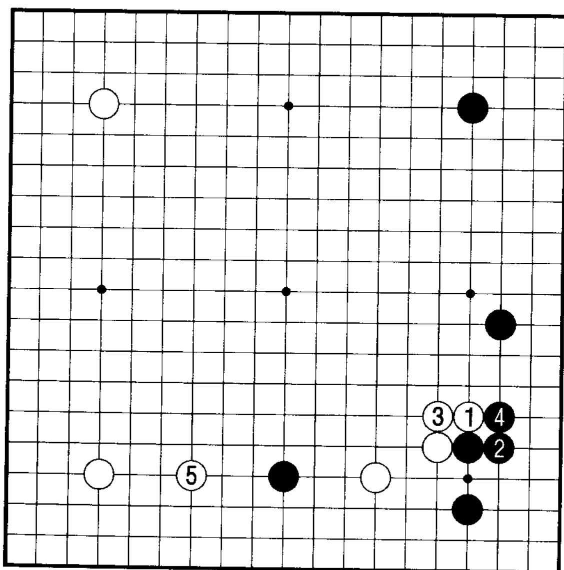
흑1로 협공했을 때 백은 2로 날일자해서 유연하게 둘 수도 있다. 계속해서 흑3으로 받는다면 백4로 협공해서 충분한 형태이다. 귀의 백은 A와 B에 붙여 수습하는 수단을 엿보고 있다.



5도

5도(흑의 강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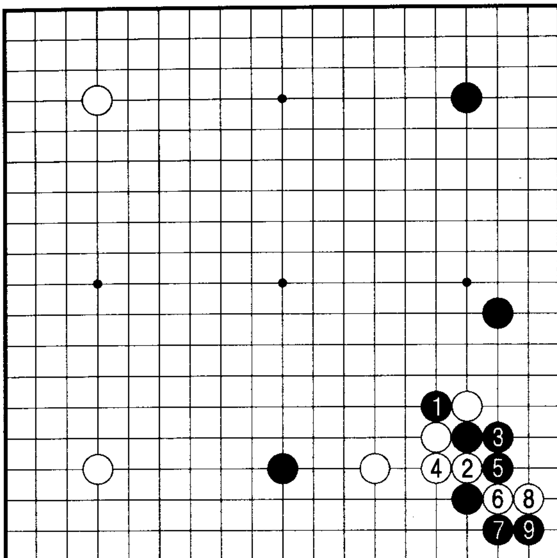
백1로 날일자했을 때 흑은 강하게 두고 싶은 유혹을 받는 곳이다. 흑2로 붙인 후 4에 끊은 것은 최강수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무리수이다.



6도

6도(흑, 불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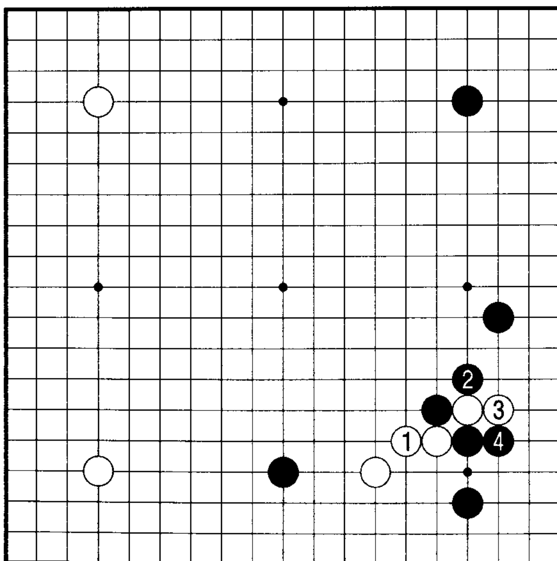
전도의 수순 중 백1로 젖혔을 때 흑2로 뻗는 것은 기백이 부족한 수처럼 보인다. 백3으로 이으면 흑은 4로 둘 수밖에 없는데 백5로 협공해서 백이 활발하다.



7도

7도(백, 불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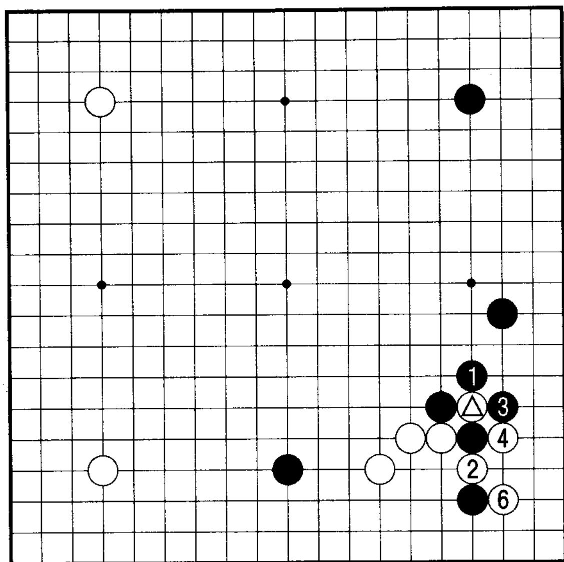
흑1로 끊었을 때 백2로 단수친 후 4에 잇는 것은 기백이 부족한 수이다. 흑은 5로 막은 후 이하 9까지 백 두점을 취해서 충분한 결말이다.



8도

8도(흑, 만족)

백1로 뻗는다면 흑2로 단수치는 것이 좋다. 백3에는 흑4로 막아 백이 망한 모습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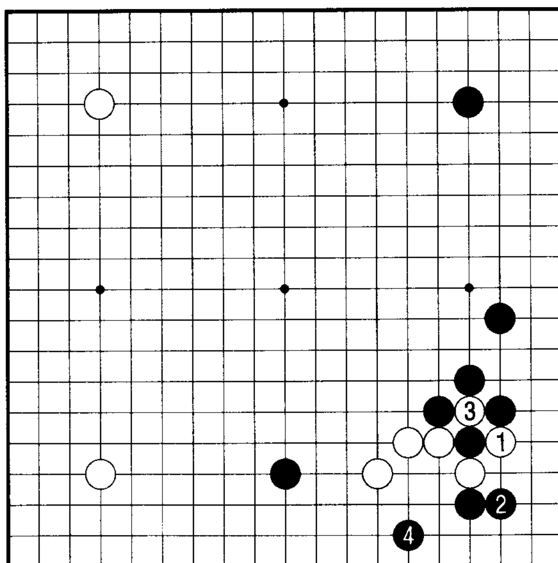


9도



9도(백, 우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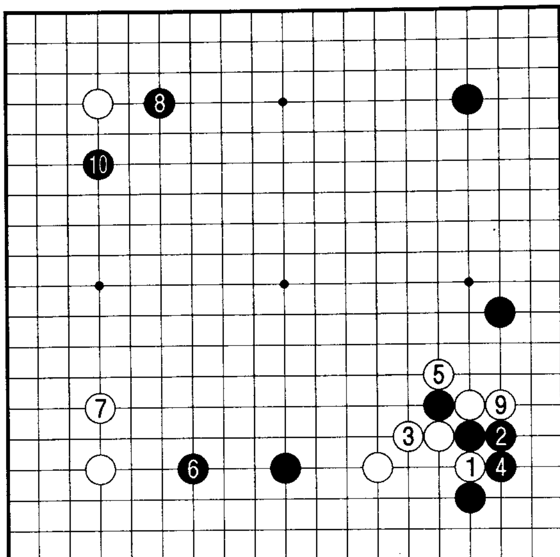
흑1로 단수쳤을 때 백2로 단수치는 변화이다. 계속해서 흑3으로 따낸다면 백4를 선수한 후 6으로 호구쳐서 백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결말이다.



10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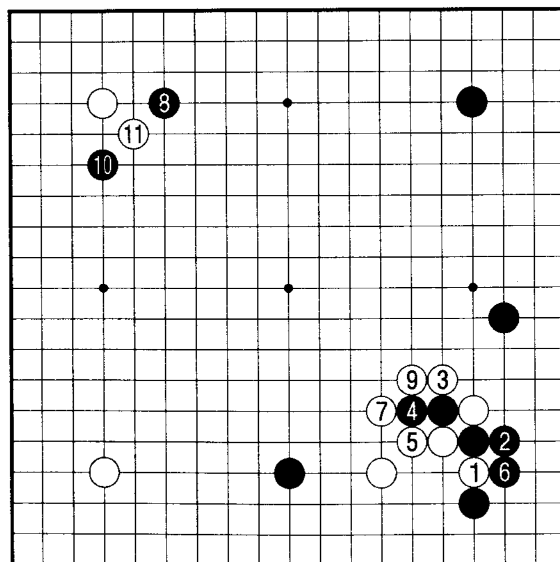
10도(흑의 정수)

백1로 단수쳤을 때 흑은 2로 내려서는 것이 정수이다. 계속해서 백3으로 따낸다면 흑4로 날일자해서 귀의 수습이 가능하다.


11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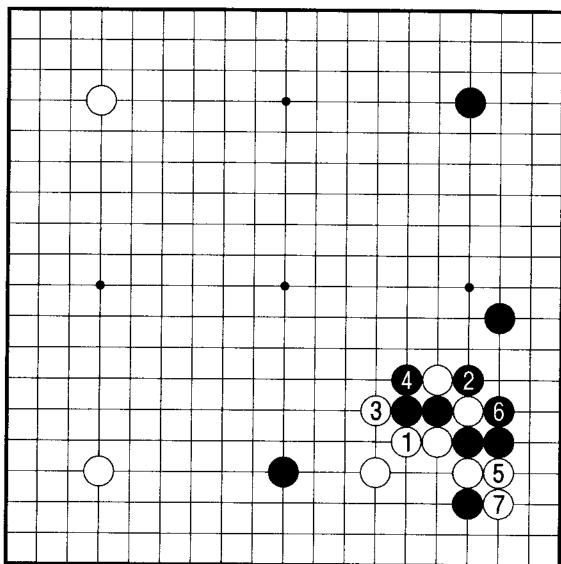
11도(호각)

이번엔 백1로 단수친 후 3으로 뻗는 변화이다. 계속해서 흑2·4로 귀의 실리를 중시한다면 백은 3·5로 단수쳐서 축으로 잡을 수 있다. 그러나 흑도 6을 선수한 후 8·10으로 축머리를 활용해서 충분한 모습이다.


12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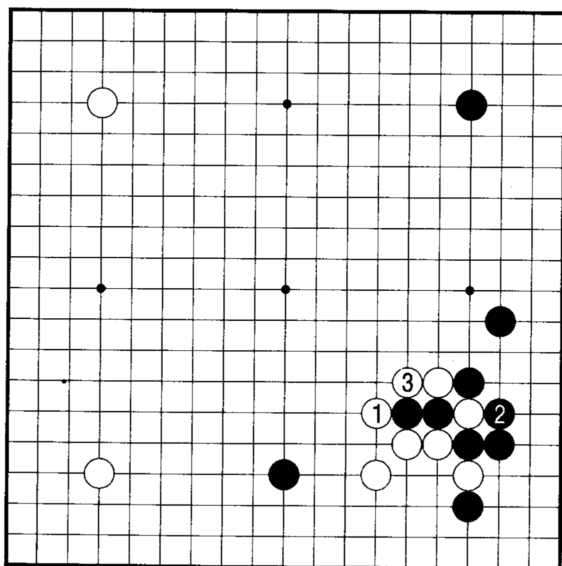
12도(백, 이득)

백1, 흑2를 선수한 후 백3으로 단수치는 변화이다. 이때 흑4로 달아난다면 백5로 민 후 이하 백7로 흑 두점을 단수쳐서 전도보다 백이 유리한 결말이다.


13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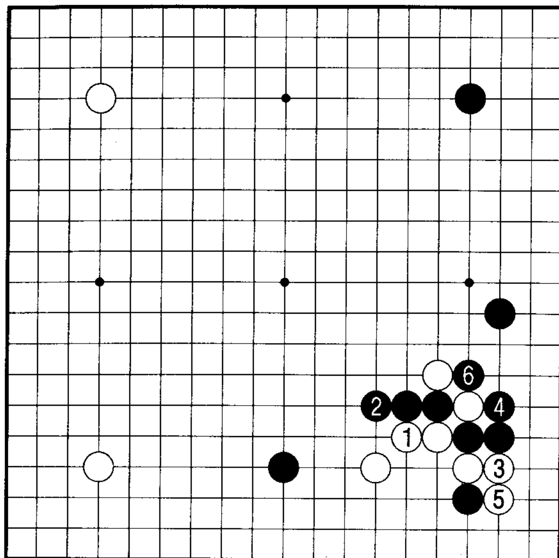
13도(백, 충분)

전도의 수순 중 백1 때 흑2로 단수치는 변화이다. 이때는 백3·5를 선수한 후 7로 귀를 단속하는 것이 수순이다. 이 결과는 백이 유리하다.


14도

14도(백, 우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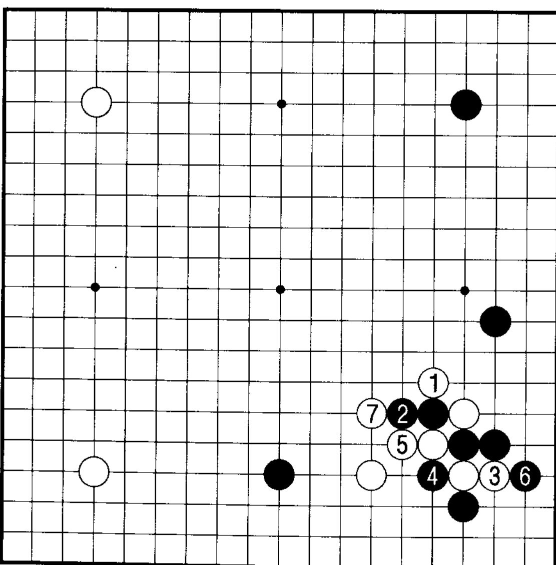
백1로 단수쳤을 때 흑2로 변화한다면 백3으로 단수쳐 충분하다. 이 결과는 흑의 실리에 비해 백의 두터움이 돋보인다.



15도

15도(흑의 정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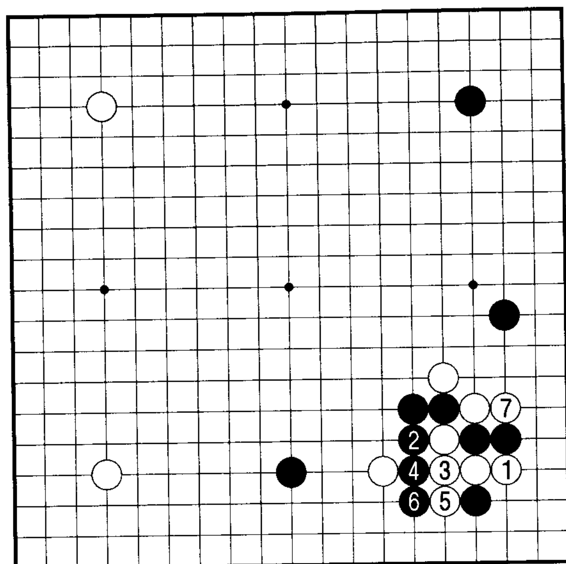
백1 때 흑은 2로 뻗는 것이 정수이다. 계속해서 백3에는 흑4로 단수친 후 백5 때 흑6으로 따내서 흑이 두터운 모습이다.



16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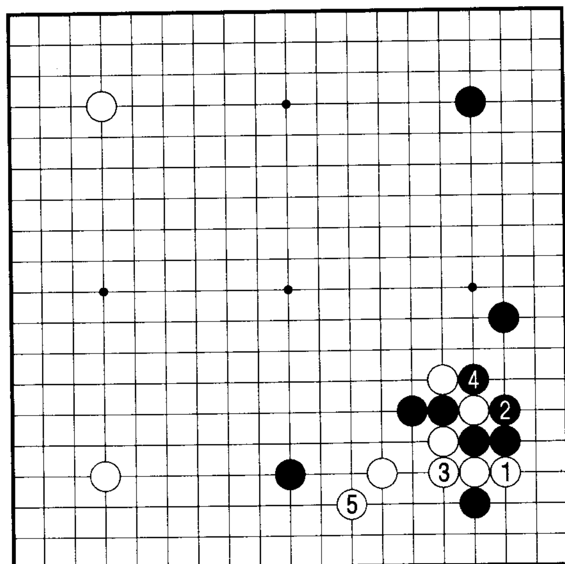
16도(백의 수순)

백은 1로 단수쳐서 흑2로 뻗게 한 후 3으로 막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다. 계속해서 흑4·6으로 귀를 잡는다면 이하 백7까지 흑 두점을 축으로 잡아 백이 유리하다.


17도

17도(백, 우세)

백1 때 흑2로 단수치면 전도와 같은 진행은 피할 수 있다. 그러나 이하 백7까지 실리를 크게 허용해서는 이 역시 흑이 불리한 결말이다.


18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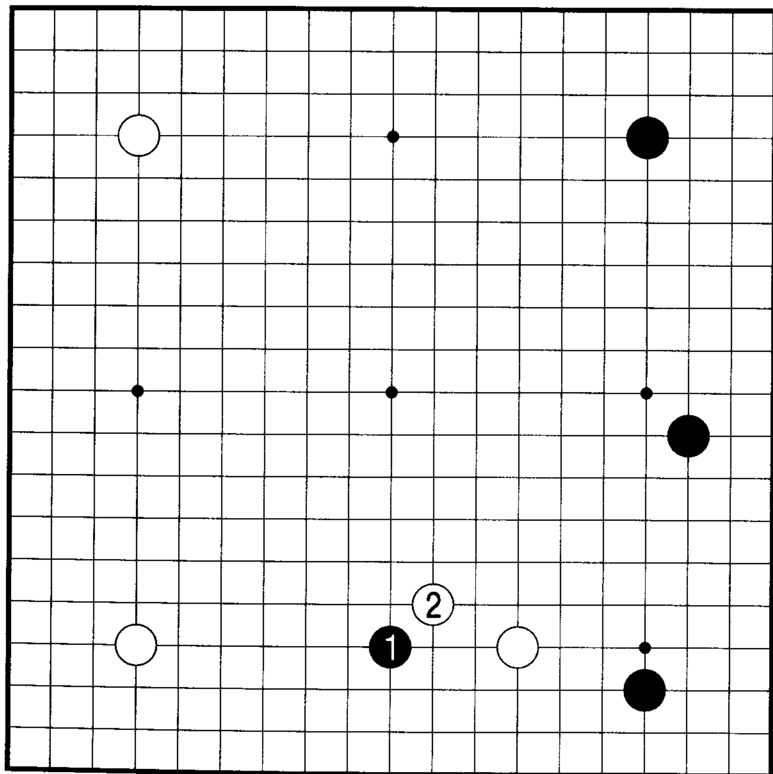
18도(백, 충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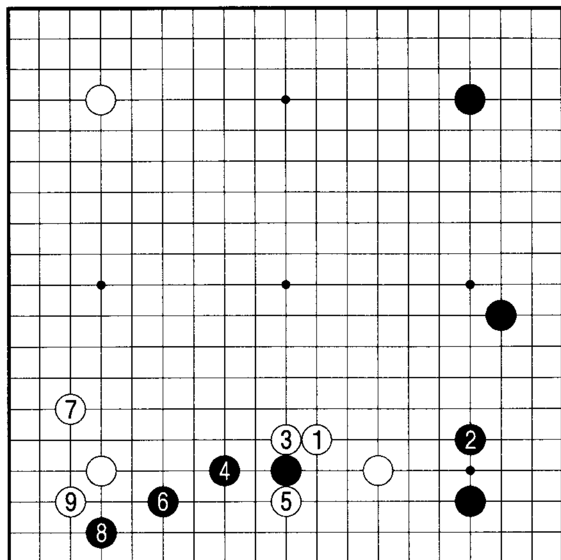
백1 때 이번엔 흑2로 단수치는 변화이다. 이때는 백3으로 이은 후 흑4 때 백5로 실리를 차지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다. 이 결과는 흑의 세력에 비해 백의 실리가 좋아 보인다.

제37형

중국식 포석 6(2연성 대응) — 낮은 중국식(6)

흑1로 협공했을 때 백2로 어깨짚은 것은 이곳을 선수로 활용한 후 귀의 흑을 강하게 공격하겠다는 뜻이다. 그럼 백2 이후의 변화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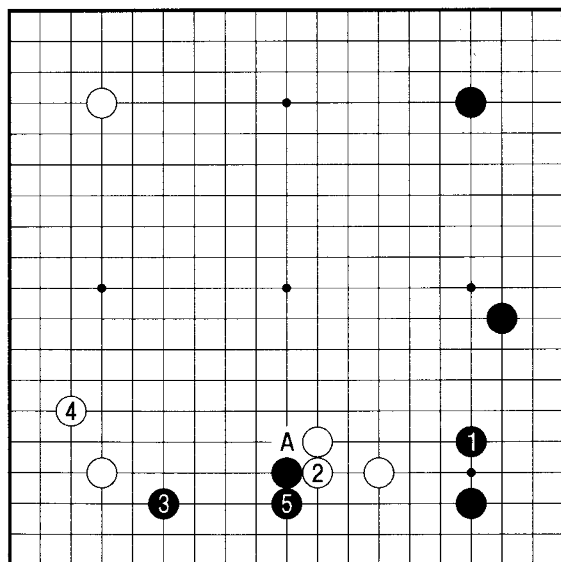




1도

1도(호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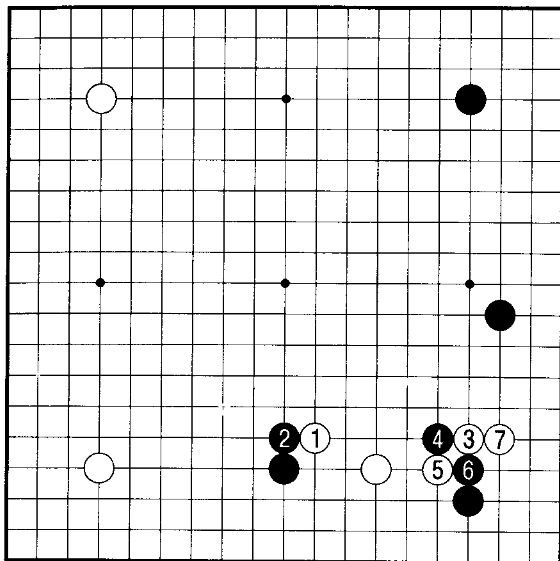
백1 때 흑2로 받으면 가장 간명하다. 계속해서 백3으로 누르고 흑4 이하 백9까지가 예상되는 진행인데 쌍방 호각의 갈림이다.



2도

2도(백, 불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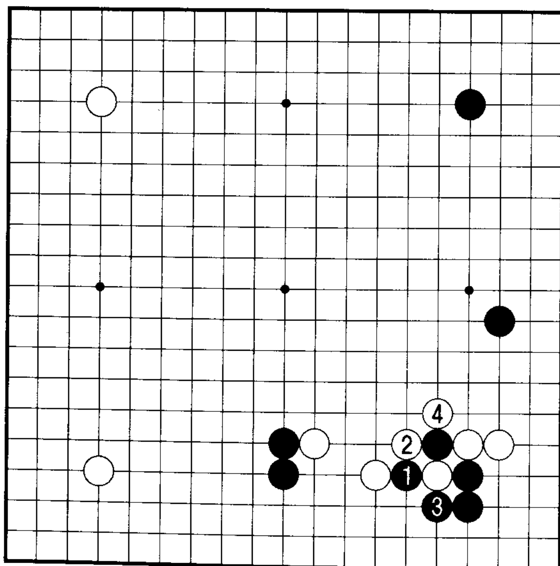
흑1로 받았을 때 백이 A에 누르지 않고 2로 두는 것은 의문수이다. 흑은 3으로 걸친 후 5에 내려서는 것이 좋은 수순으로 백 석점에 대한 공격을 노릴 수 있다.



3도

3도(쌍방 기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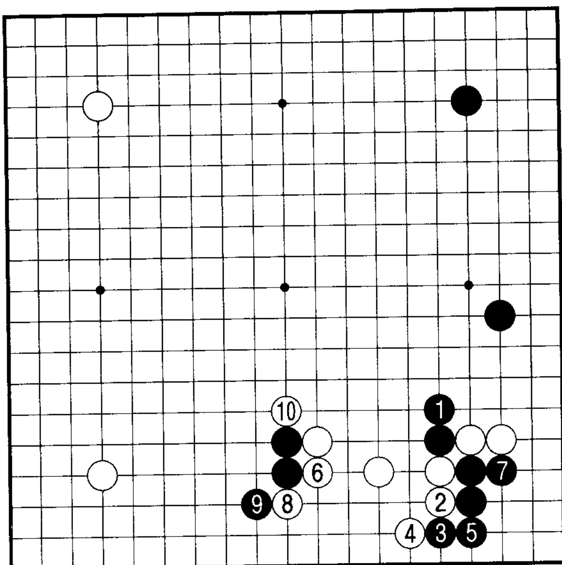
백1로 어깨짚으면 흑은 기세상 2로 밀어 올리고 싶은 곳이다. 계속해서 백3으로 걸치고 흑4 이하 백7까지는 쌍방 기세의 진행인데……



4도

4도(백, 만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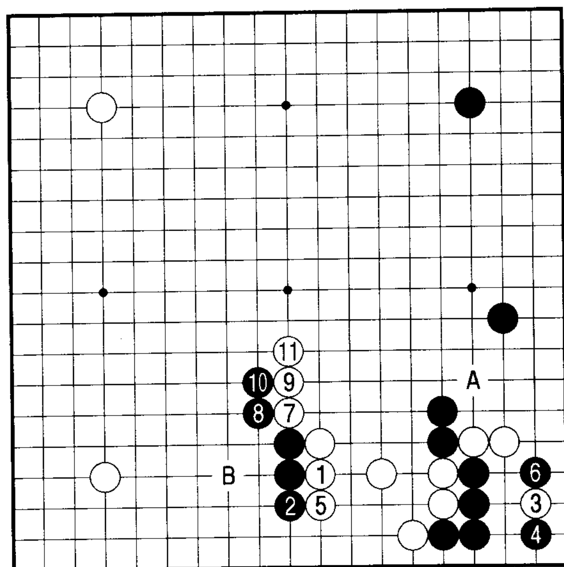
전도에 계속해서 흑1로 단수치는 것은 좋지 않다. 백은 2로 맞단수치는 것이 맥점으로 흑3을 기다려 백4로 봉쇄해서 대만족이다.



5도

5도(백, 충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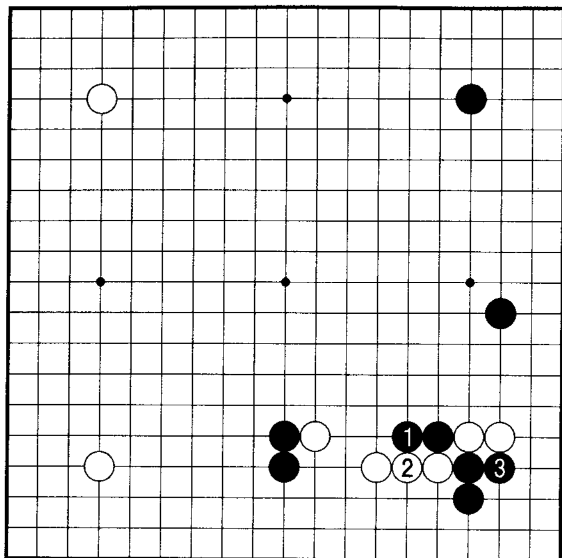
흑1로 뻗는 변화도 검토할 수 있다. 그러나 이 수 역시 백2로 막은 후 이하 10까지 처리하면 흑의 우변보다 백의 하변이 두터워 백이 유리한 결말이다.



6도

6도(흑의 약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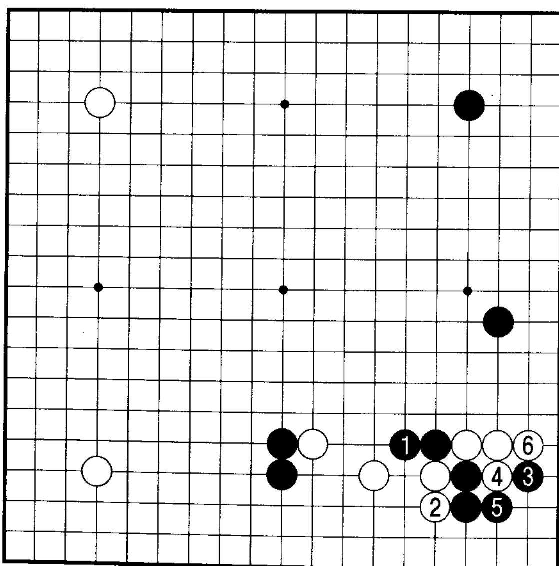
전도의 수순 중 백1로 막았을 때 흑2로 내려서는 변화이다. 이때는 백3으로 날일자하는 것이 좋은 수로 흑4를 기다려 이하 백11까지 처리하면 이 역시 백이 유리하다. 이후 백은 A와 B를 맞보기로 노리고 있다. 수순 중 흑6은 생략할 수 없음에 유의한다.



7도

7도(흑의 최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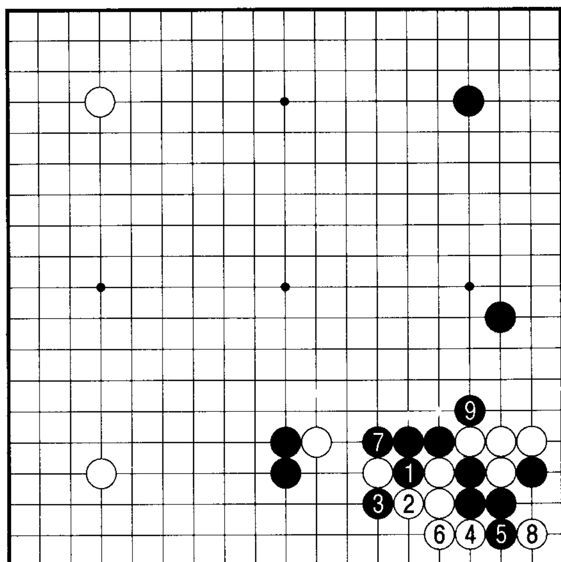
흑은 1로 뻗는 것이 최선의 수이다. 계속해서 백2로 잇는다면 흑3으로 근거를 확보해서 백을 양곤마로 만들 수 있다.



8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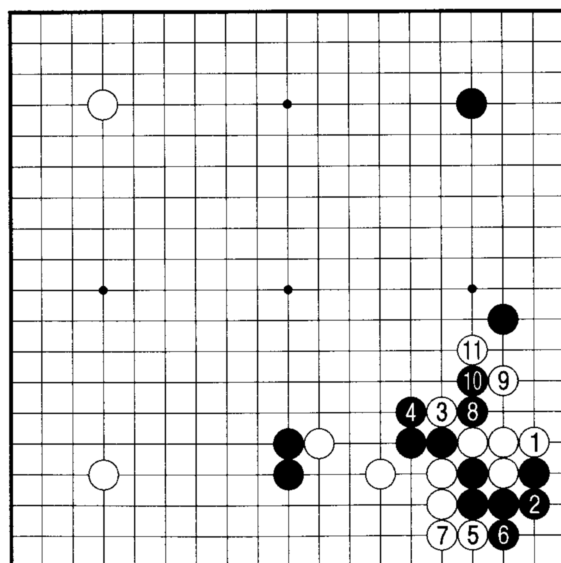
8도(백의 변화)

흑1 때 백은 당연히 2로 막을 곳이다. 계속해서 흑3에는 백4로 찌른 후 6으로 막는 것이 수순이다. 계속해서……


9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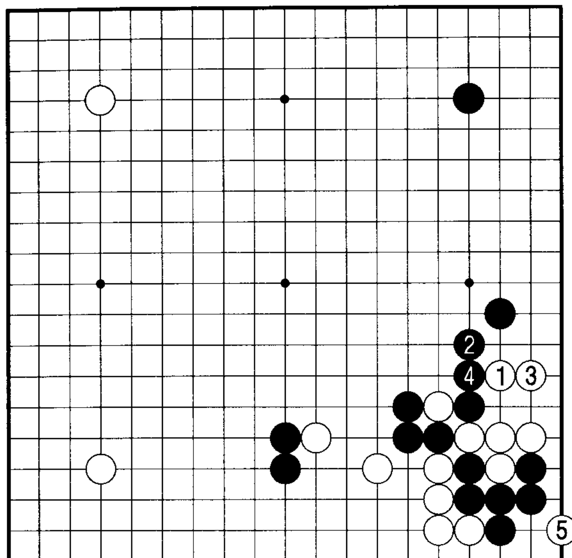
9도(호각)

전도에 계속해서 흑은 1·3으로 끊는 것이 요령이다. 백은 4·6으로 젖혀 이은 후 이하 8까지 귀를 잡게 되는데 흑9로 젖혀 외곽을 봉쇄하면 쌍방 호각의 갈림이다.


10도

10도(흑, 곤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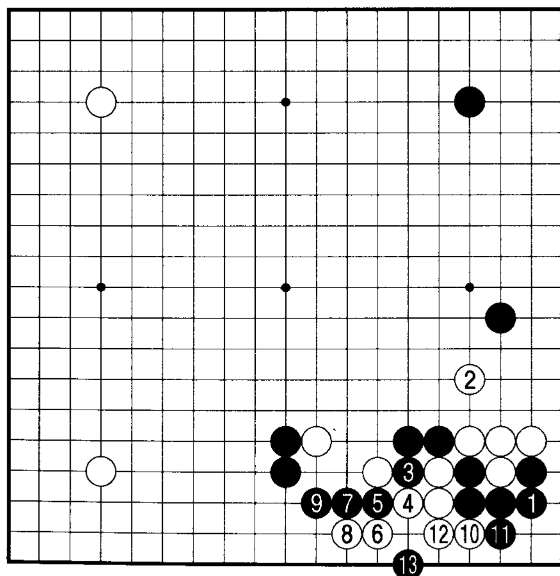
백1 때 흑2로 잇는 것은 의문수이다. 백은 3으로 하나 젖힌 후 5·7로 귀를 젖혀 잇는 것이 좋은 수순으로 흑8 때 백 9·11로 돌파해서 흑이 곤란한 모습이다.



11도

11도(흑, 죽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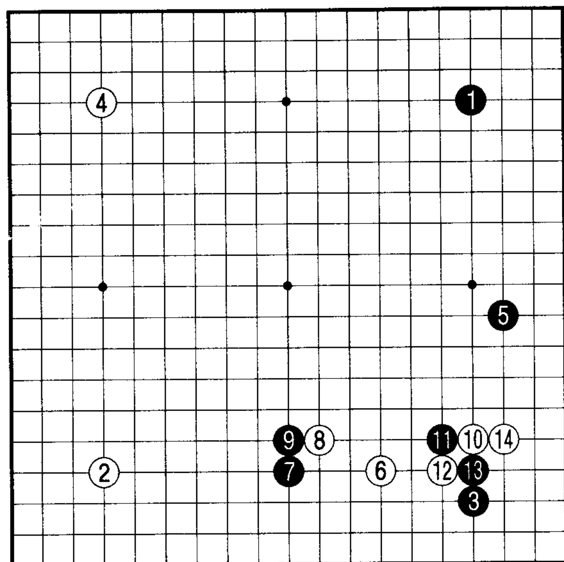
백1 때 흑2로 뻗는 변화이다. 이때는 백3으로 내려선 후 흑4 때 백5로 치중하는 것이 좋은 수순이다. 이 수상전은 흑이 불리한 모습이다.



12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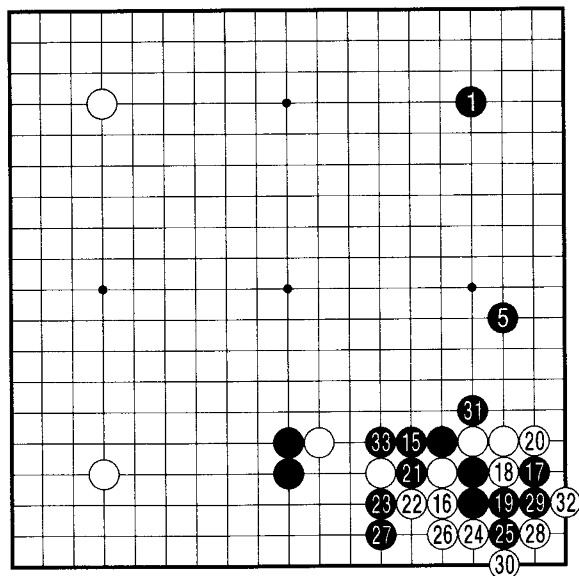
12도(백, 죽음)

흑1로 이엇을 때 단순히 백2로 한칸 뛰는 것은 대악수이다. 흑은 3·5로 절단한 후 이하 흑13까지 공격해서 반대로 백을 잡을 수 있다.


〈1보〉

1보(1~14)

제12기 박카스배 결승 제3국에서 조훈현(백)과 서봉수의 실전보이다. 흑7 때 백8이 신수. 계속해서 흑9라면 이하 백14까지는 필연적인 진행이다.


〈2보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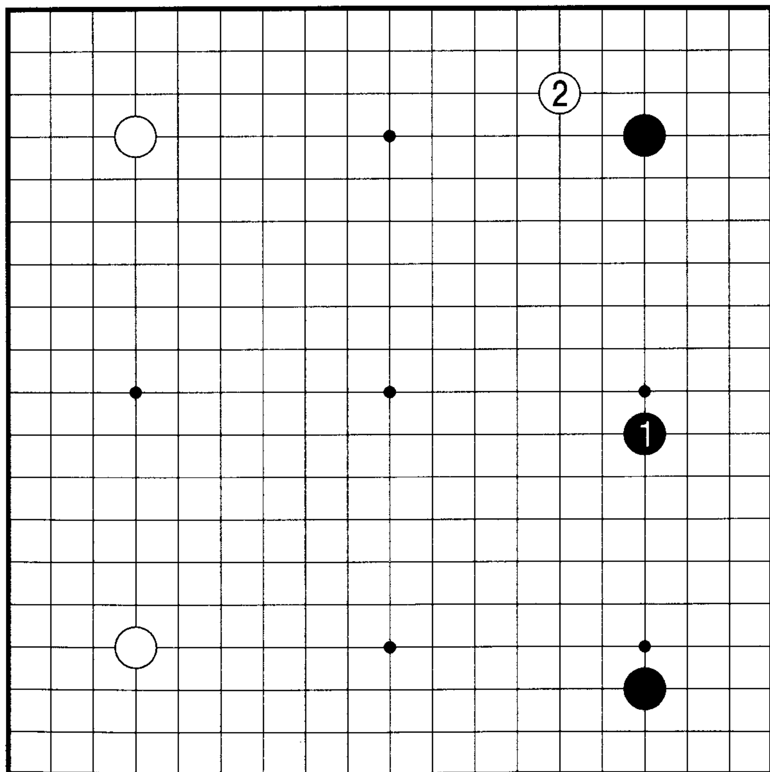
2보(15~3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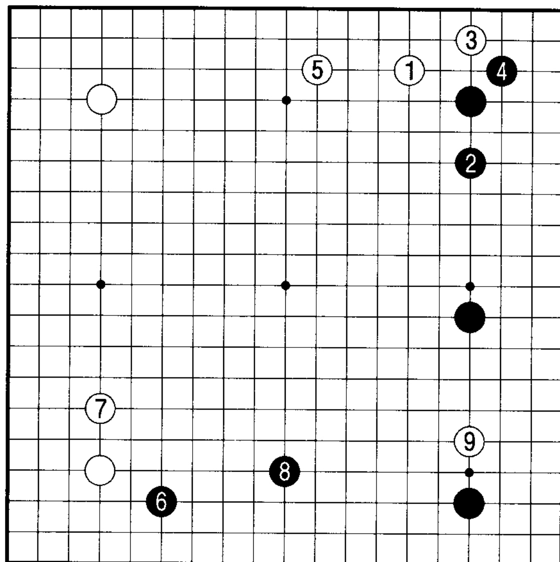
백26 때 흑27로는 33의 곳이 정수. 그러나 백이 28로 둔 덕택에 이하 33까지 쌍방 호각의 갈림이 됐다.

제38형

중국식 포석 7(2연성 대응) — 높은 중국식(1)

높은 중국식 포석은 낮은 중국식 포석에 비해 세력을 중시하는 포진이다. 그럼 흑1로 높은 중국식을 펼치고 백2로 걸친 이후의 진행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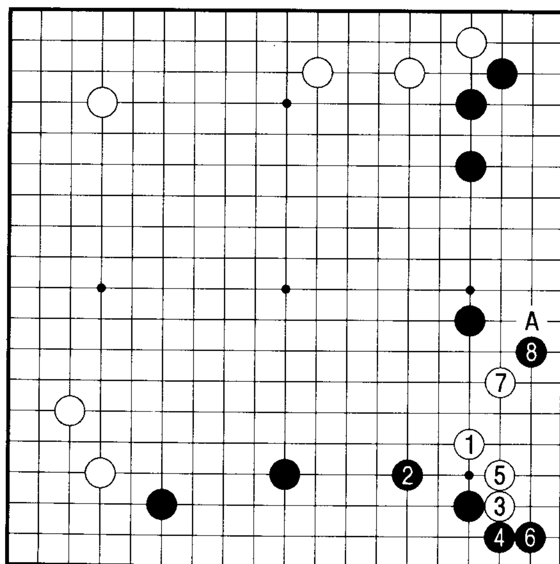




1도

1도(예상 포석)

백1로 걸쳤을 때 흑2로 받으면 가장 평범하다. 계속해서 백3으로 날일자하고 이하 백9까지가 예상되는 진행인데 쌍방 충분히 둘 수 있다.



2도

2도(흑의 공격)

백1로 걸치면 흑은 2로 날일자해서 받는 것이 요령이다. 계속해서 백3으로 붙이고 이하 흑8까지가 예상되는 진행이다. 수순 중 흑8은 생략할 수 없는 요점으로 백A를 허용해서는 안된다.

3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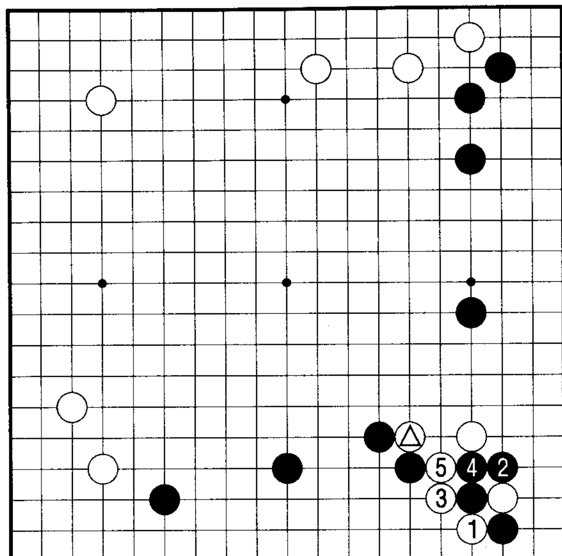
3도(백의 변화)

백1, 흑2 때 백은 3으로 붙인 후 흑4 때 백5·7로 끊는 수단도 성립한다. 계속해서……

4도

4도(호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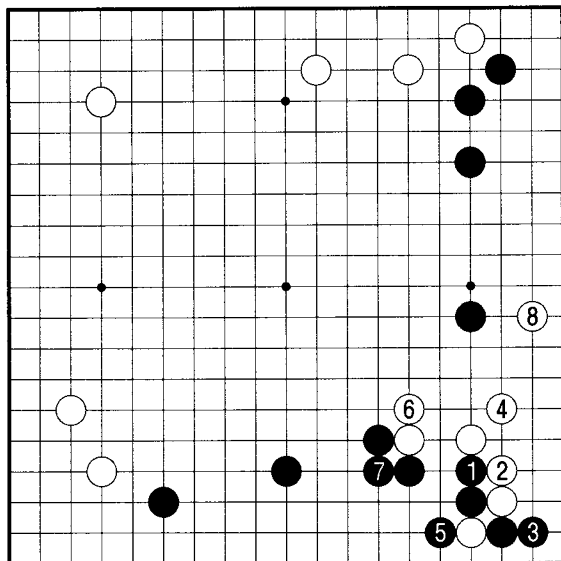
전도에 계속해서 흑1로 뻗으면 가장 간명하다. 백은 2로 단수쳐서 흑 한 점을 잡고 안정을 취하게 되는데 이하 흑9까지 흑 세력대 백 실리의 갈림이 된다.



5도

5도(흑, 불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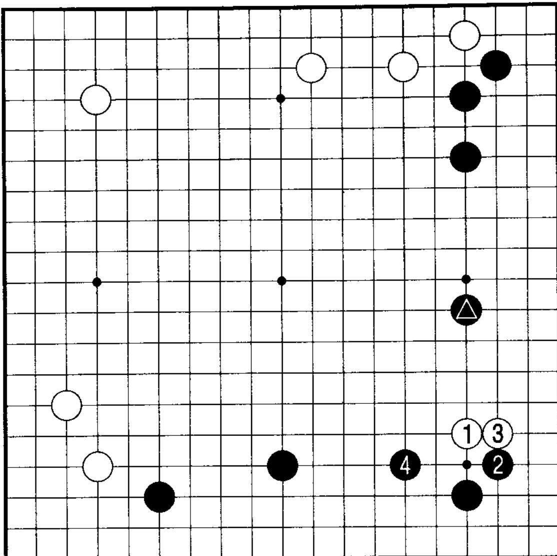
백1로 끊었을 때 흑2로 단수쳐서 백 한점을 잡자고 하는 것은 대악수이다. 백이 3으로 단수친 후 이하 5까지 처리하면 미리 붙여둔 백△ 한점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.



6도

6도(백, 만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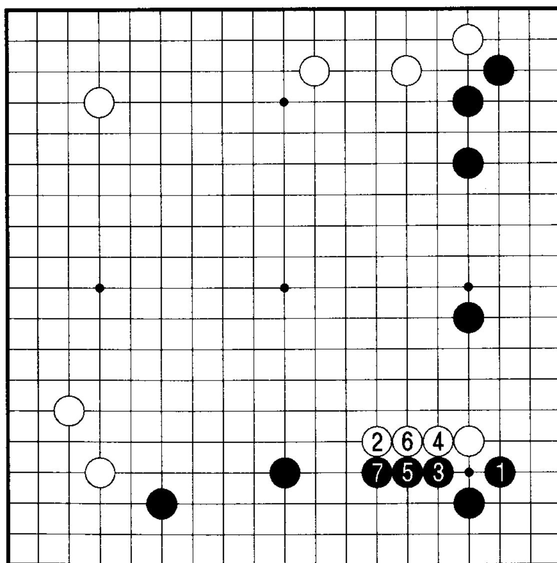
백이 끊었을 때 흑1로 치받은 후 3으로 뻗는 변화도 검토할 수 있다. 그러나 백이 4로 호구친 후 이하 8까지 형태를 정비하고 나면 백8의 자리가 적절해 이 결과는 흑이 약간 불리하다.



7도

7도(흑, 우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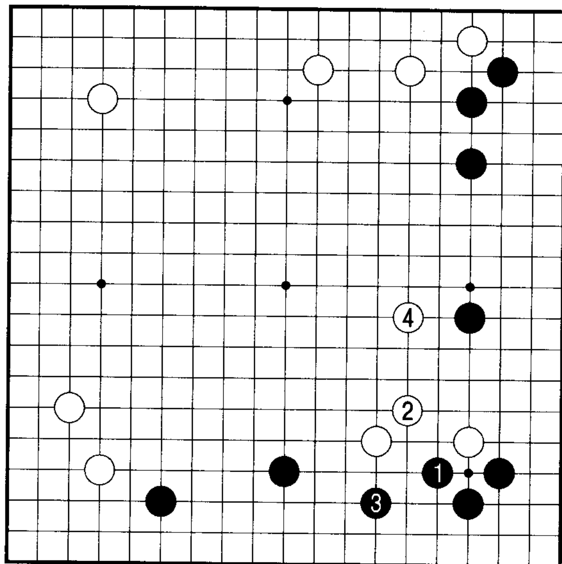
백1로 걸쳤을 때 흑2로 마늘모하는 수도 고려할 수 있다. 이때 무심코 백3으로 받는 것은 무거운 수이다. 흑4로 날일자해서 공격하면 흑▲ 한점이 적절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다.



8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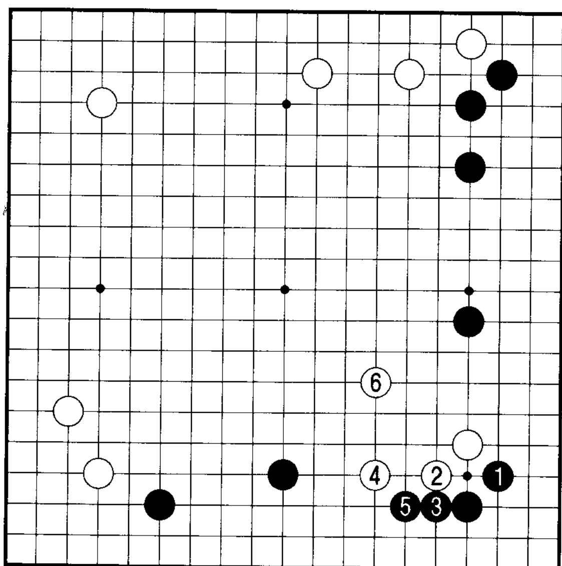
8도(백, 무거움)

흑1로 마늘모하면 백은 2로 두칸 뛰어 행마하는 것이 경쾌하다. 그러나 흑3·5 때 백4·6으로 줄지어 응수하는 것은 무거운 형태가 되어 백이 좋지 않다.


9도

9도(백, 경쾌)

흑1에는 백2로 마늘모 해서 응수할 곳이다. 계속해서 흑3으로 넘는 정도일 때 백4로 씌워 가면 백이 경쾌하게 틀을 갖춘 모습이다.


10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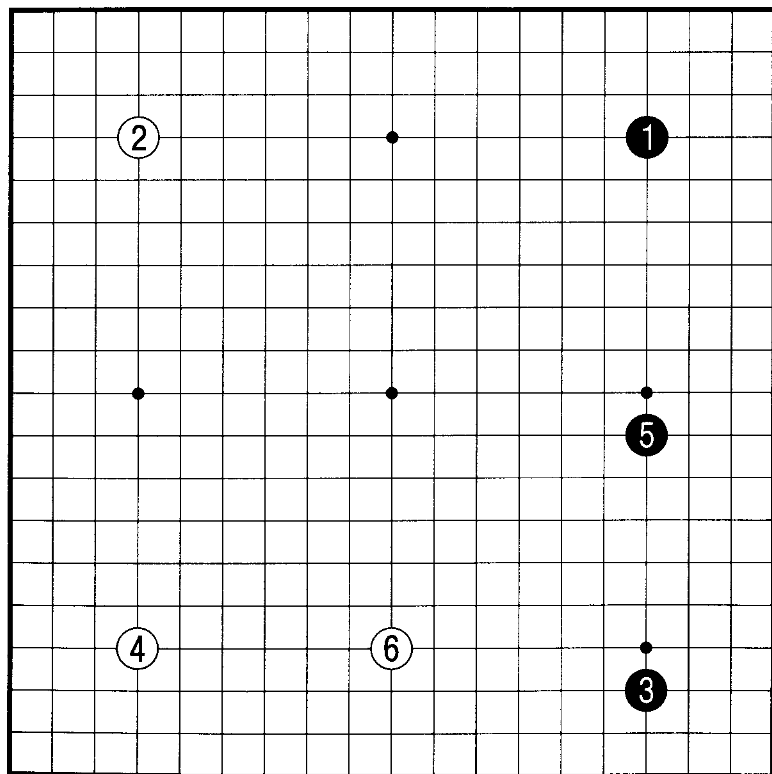
10도(백의 변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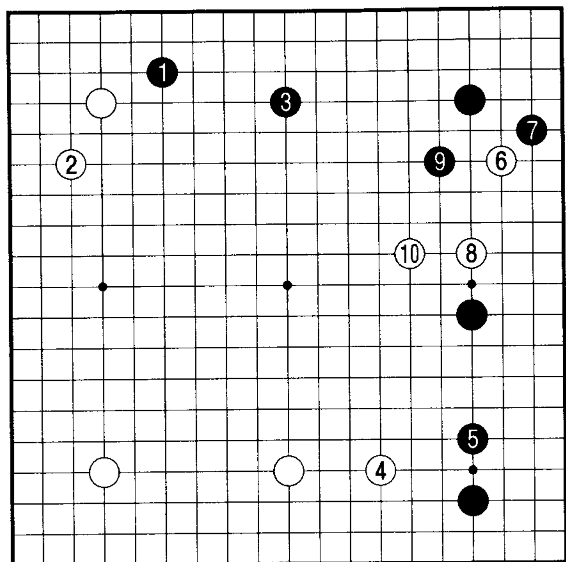
흑1 때 백은 2로 마늘모한 후 4에 한칸 뛰는 변화도 고려할 수 있다. 계속해서 흑3·5로 받고 이하 백6까지가 실전에 흔히 등장하는 기본 포진이다.

제39형

중국식 포석 8(2연성 대응) — 높은 중국식(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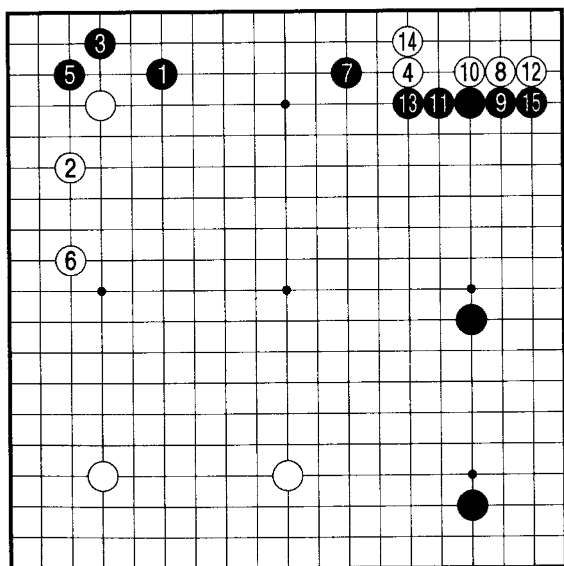
중국식 포석에 대응하여 백6으로 전개하는 의미는 우하 방면의 흑 진영이 하변을 향해 입체적으로 확장 되는 것을 방지하여 장기전으로 유도하려는 것이다. 그럼 이후의 포석 변화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.




1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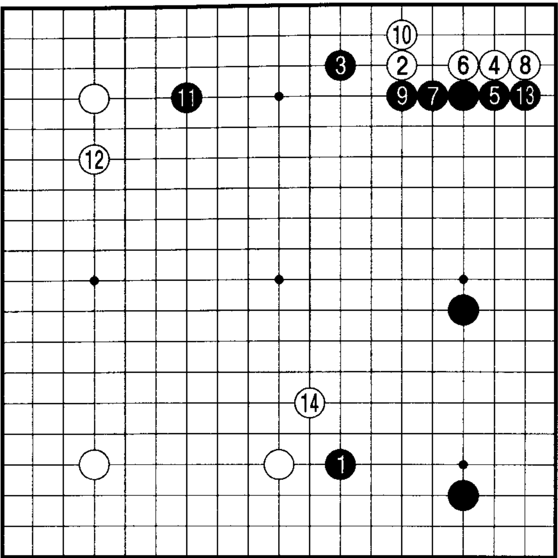
1도(전투)

흑1·3으로 상변의 폭을 넓히게 되면 백4, 흑5의 교환 뒤 백6의 침투가 불가피해져 이곳의 전투에 의해 주도권이 결정된다.


2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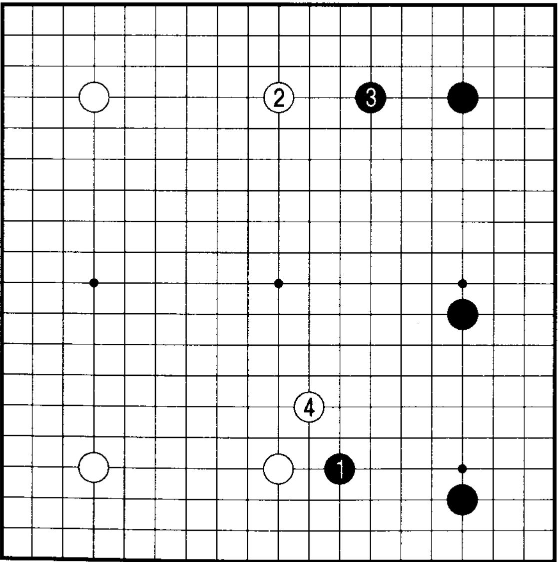
2도(백, 넓음)

흑1, 백2 때 흑3의 달림에는 백4로 우상귀를 걸치게 된다. 이하 흑15까지의 진행은 흑이 우변에 편재될 가능성이 많아 불만이다.


3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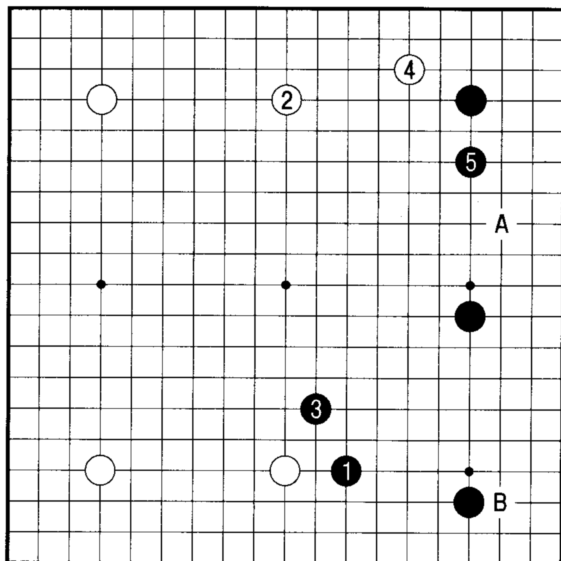
3도(백, 다소 넓음)

흑1로 넓히면 백14까지의 진행이 예상된다. 이 결과는 백이 다소 넓은 폭의 진영을 형성하고 있다. 수순 중 14의 자리는 쌍방 요처이므로 기억해 둔다.


4도

4도(확장의 요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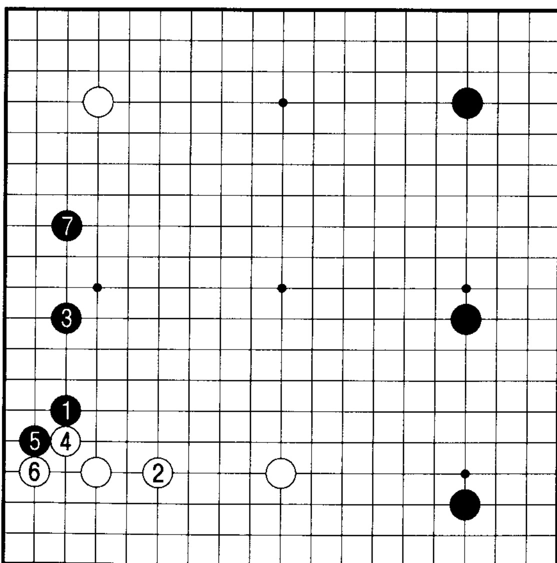
흑1로 넓히고 백2로 벌렸을 때 흑3으로 다가서면 4의 요처를 백이 차지하여 백이 다소 넓은 느낌이다.



5도

5도(흑3, 요처)

흑1, 백2 때 흑3은 확장의 요처다. 흑이 일단 이곳을 차지하여 5까지 진행되면 A와 B의 뒷맛은 남아 있으나 중앙으로 흑이 넓어지고 있어 뒤지지 않는 형세다.


6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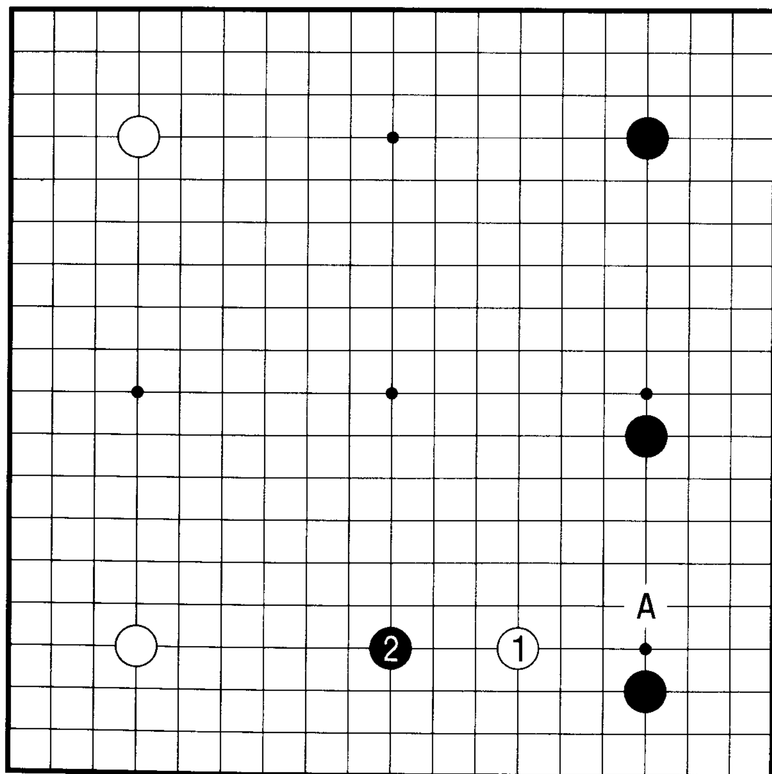
6도(흑, 좌변 개척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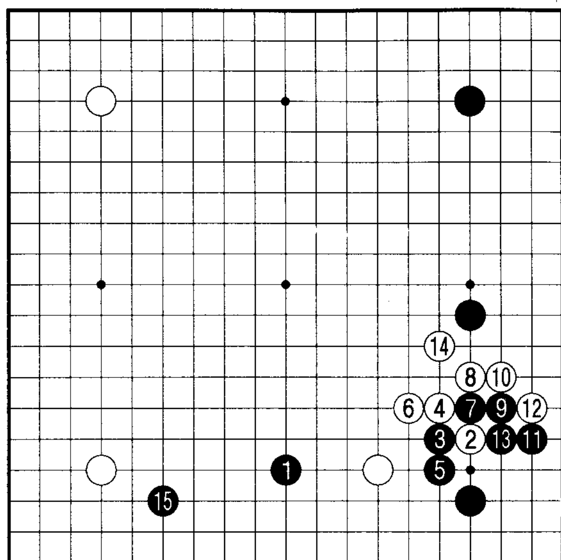
흑은 1쪽부터 착수할 수도 있다. 우변의 확장을 보류하고 좌변을 선점하는 진행도 현대 바둑은 인정하고 있다.

제40형

중국식 포석 9(2연성 대응) — 높은 중국식(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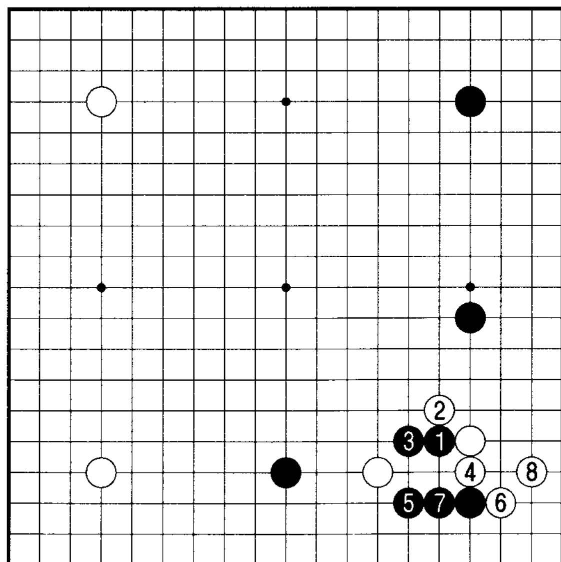
백1로 걸쳤을 때 흑이 A에 받으면 평범하다. 흑2로 협공한 것은 적극적인 수법인데 이후의 변화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.




1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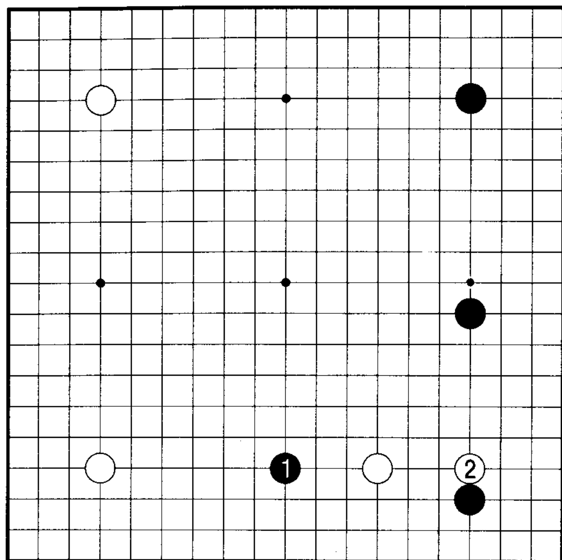
1도(예상 포석)

흑1 때 백2로 걸치면 평범하다. 계속해서 흑3으로 붙이고 이하 흑15까지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기본형이다.


2도

2도(백, 만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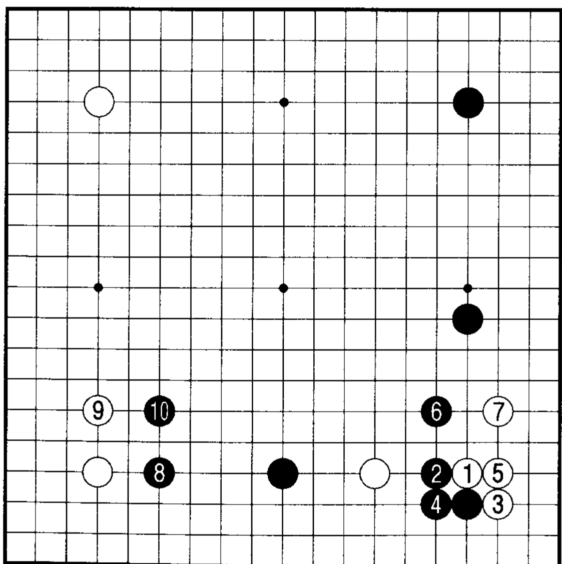
흑1로 붙이고 백2로 젖혔을 때 흑3으로 뻗는 것은 의문이다. 백은 4로 치받은 후 이하 8까지 형태를 갖추어 만족스런 모습이다.



3도

3도(강력한 붙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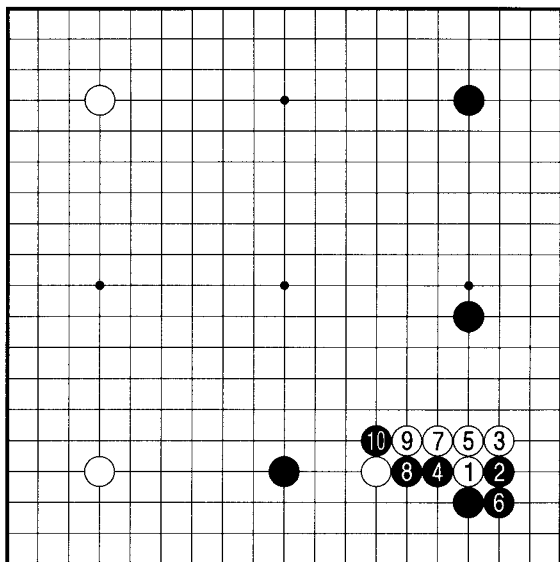
흑1로 협공했을 때 백2로 붙이는 수가 여러 가지 변화를 내포한 수단이다. 그럼 백2로 붙인 이후의 변화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.



4도

4도(상용 포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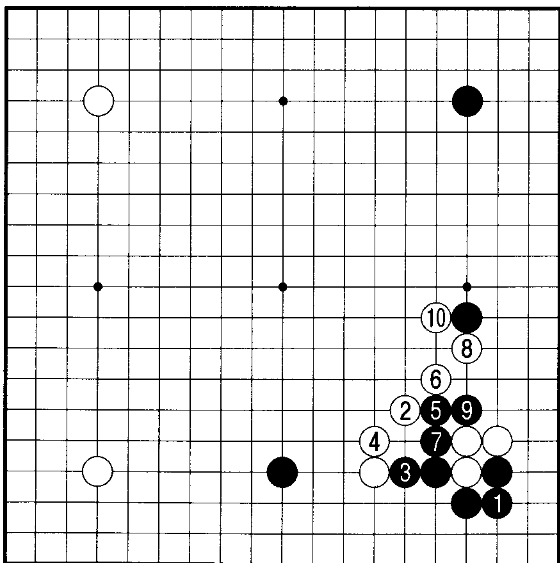
백1로 붙였을 때 흑2로 젖히면 가장 평범하다. 계속해서 백3으로 되젖히고 이하 흑10까지의 진행이 되는데 쌍방 호각의 갈림이다.



5도

5도(백, 곤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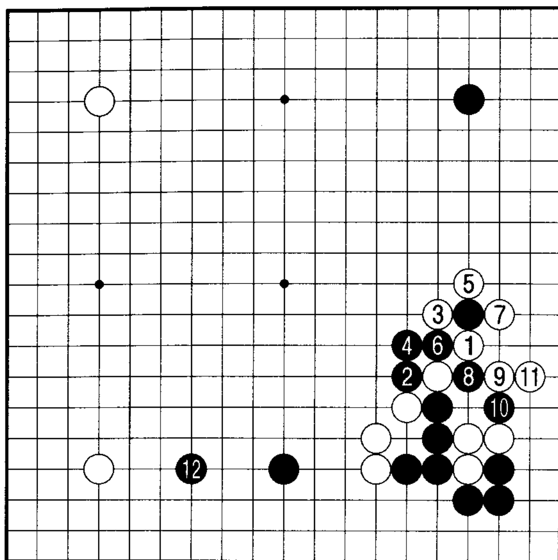
백1 때 흑2로 젖히는 변화이다. 다음 백3으로 되젖히면 흑4로 단수친 후 6으로 잇는 것이 좋은 수순이다. 백7에는 흑8·10으로 절단해서 백이 곤란한 모습이다.



6도

6도(백, 충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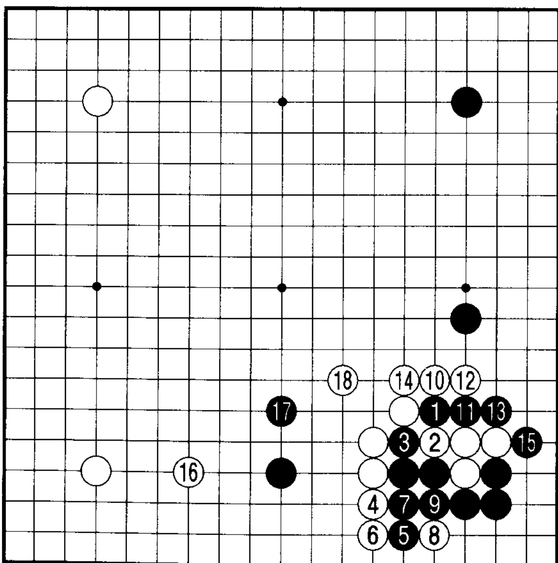
흑1로 이엇을 때 백2로 날일자하는 변화이다. 이때는 흑3으로 치받은 후 5에 건너붙이는 것이 수순. 그러나 백6·8 때 흑9는 실리에 연연한 수로 백10의 자세가 좋아 흑으로선 미흡한 결말이다.



7도

7도(흑의 강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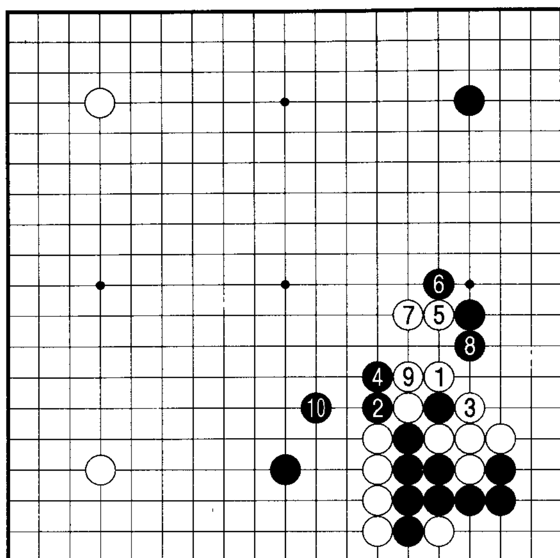
백1 때 흑은 당연히 2로 끊을 곳이다. 계속해서 백3으로 젖힌다면 흑4로 뻗은 후 이하 흑12까지 처리하면 흑이 단연 우세하다.



8도

8도(호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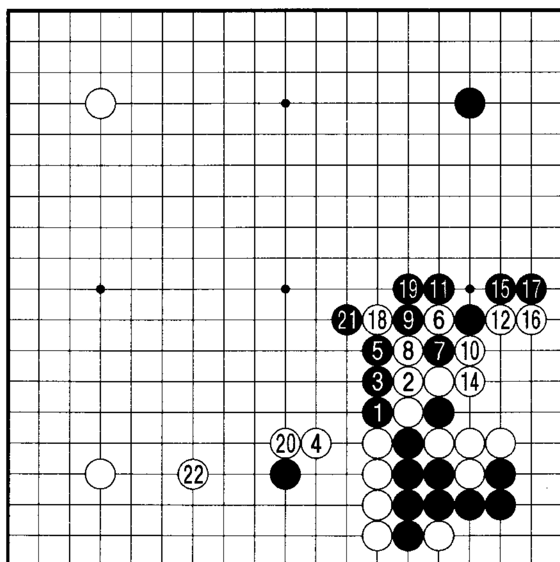
흑1로 건너붙였을 때 백2로 끊는 변화이다. 계속해서 백4로 내려서고 흑5 이하 백18까지 진행된다면 이 결과는 쌍방 호각의 갈림이다.



9도

9도(흑, 우세)

전도의 수순 중 백1로 단수쳤을 때 흑2로 끊는 변화이다. 이때 백3으로 따내면 흑4 이하 10까지 진행되어 흑이 우세한 결말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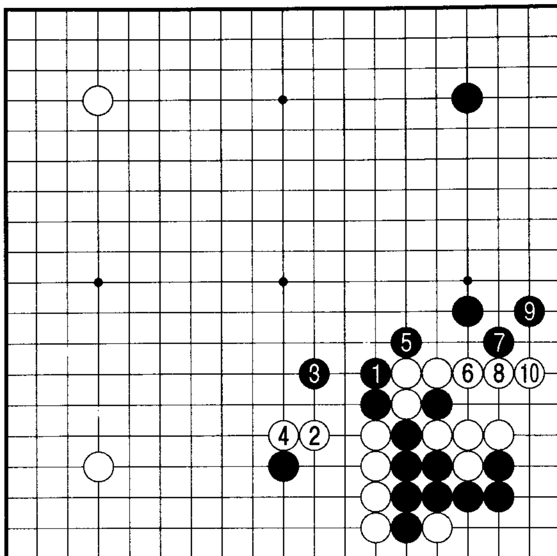


10도

⓭ ··· ❼

10도(복잡한 포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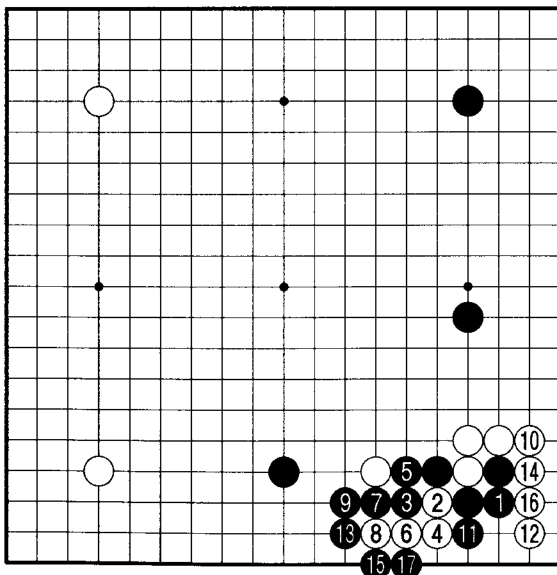
흑1로 단수쳤을 때 백2로 잇는 변화이다. 계속해서 흑3으로 민다면 백4로 한칸 뛰는 것이 행마법. 이후 흑5로 뻗고 백22까지의 진행을 예상할 때 쌍방 모두 어려운 바둑이다.



11도

11도(흑, 우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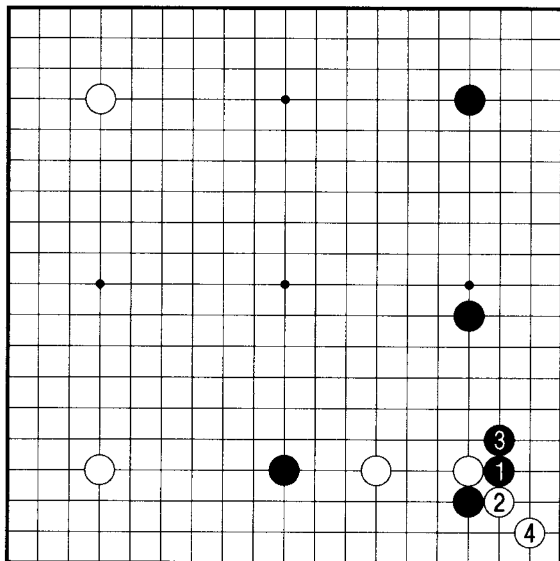
전도의 수순 중 흑1, 백2 때 흑은 3으로 한칸 뛰는 것이 좋은 수이다. 백4로 받아야 할 때 흑5로 젖힌 후 이하 백10까지 공략해서 이 결과는 흑이 우세하다. 수순 중 흑5 때 백6이 행마의 묘.



12도

12도(흑, 두터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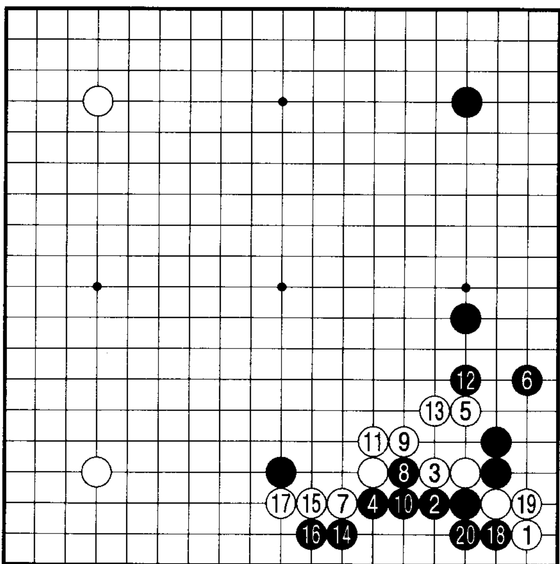
흑1로 이엇을 때 백2로 끊는 변화이다. 이때는 흑3으로 단수친 후 5에 잇는 것이 좋은 수순으로 이하 흑17까지 처리해서 흑이 두텁다.



13도

13도(백의 최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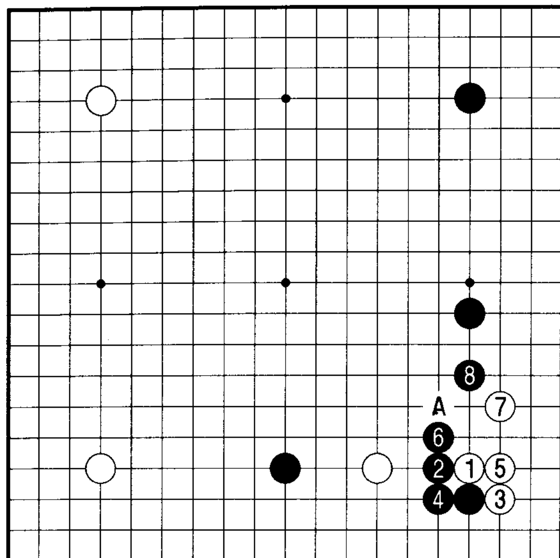
흑1로 젖히면 백은 2로 끊는 한수이다. 계속해서 흑3으로 뻗는다면 백4로 마늘모하는 것이 연관된 맥점이다. 계속해서……



14도

14도(백, 두터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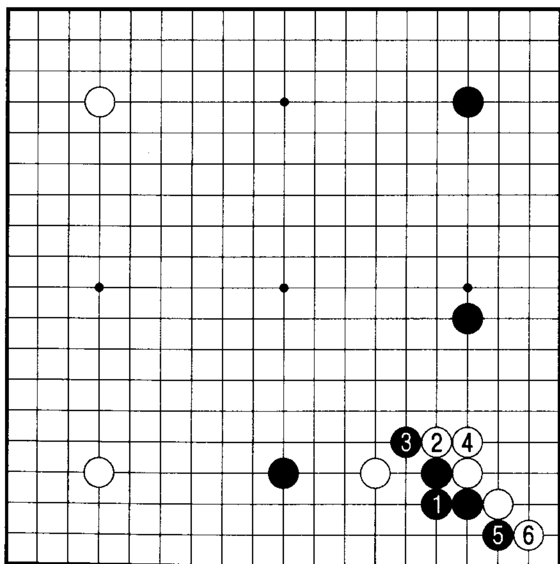
백1로 마늘모하면 흑은 2로 뻗은 후 4에 붙이는 것이 수순이다. 계속해서 백5로 한칸 뛰고 흑6 이하 흑20까지의 진행이 이루어진다면 귀의 백이 잡혔어도 이 결과는 백이 두텁다.



15도

15도(두터운 작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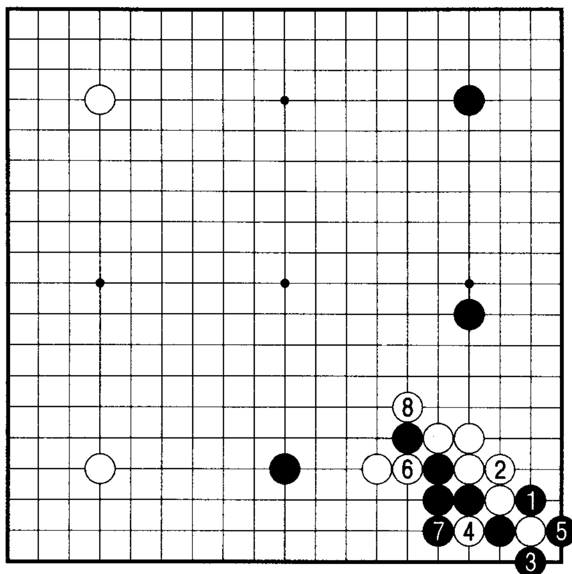
백1로 붙이면 흑은 2로 젖히는 정도이다. 계속해서 백3으로 되젖히고 흑4, 백5까지 진행되었을 때 흑6은 두터움을 중시한 수로 흑8로 씌워 일단락이다. 흑6으로는 속도를 중시해서 A에 한칸 뛰는 것도 가능하다.



16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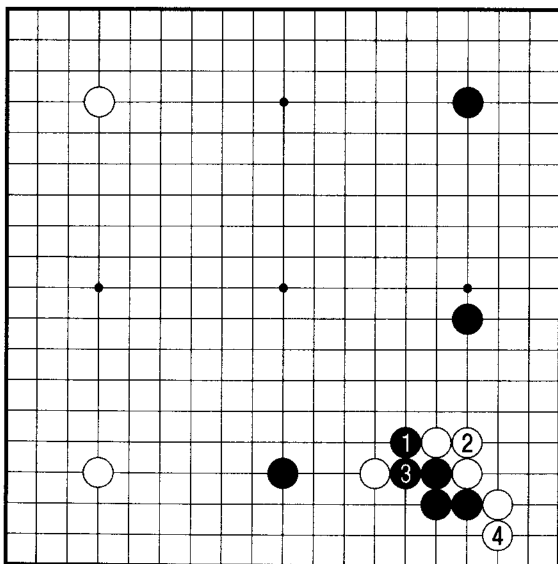
16도(백의 변화)

흑1로 이었을 때 백은 2로 젖히는 수도 가능하다. 계속해서 흑3으로 젖힌다면 백4로 이은 후 흑5 때 백6으로 이단젖히는 것이 요령이다.


17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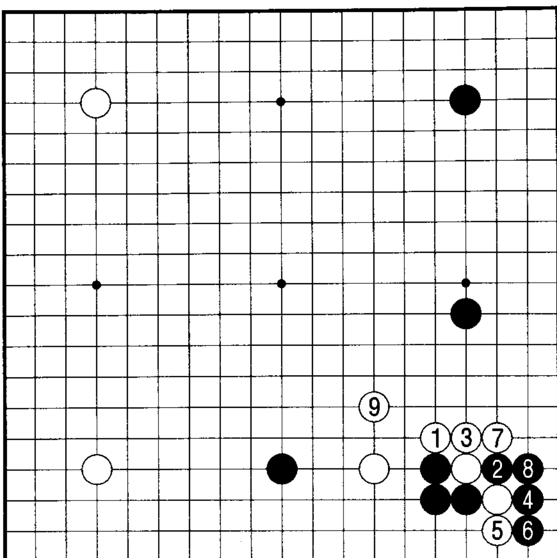
17도(백, 만족)

전도에 계속해서 흑1·3으로 단수쳐서 백 한점을 잡는다면 백4·6을 선수한 후 8로 단수쳐서 흑 한점을 축으로 잡을 수 있다.


18도

18도(백, 충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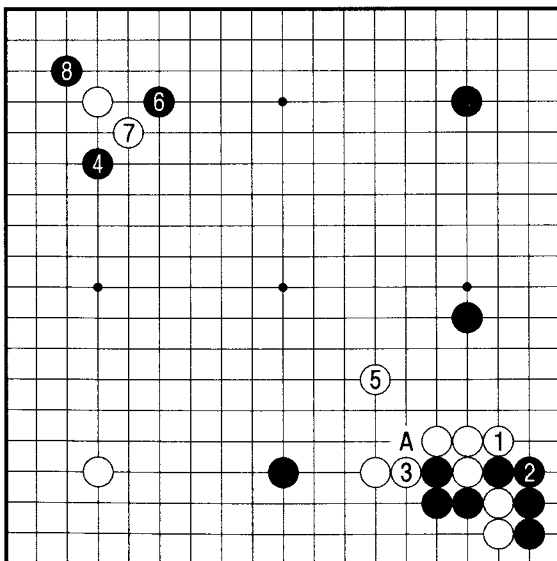
흑1로 젖히고 백이 2로 이은 후 흑이 4로 귀를 젖히지 않고 그냥 3에 이으면 백4로 뻗어 이 역시 흑이 불리한 결말이다.



19도

19도(호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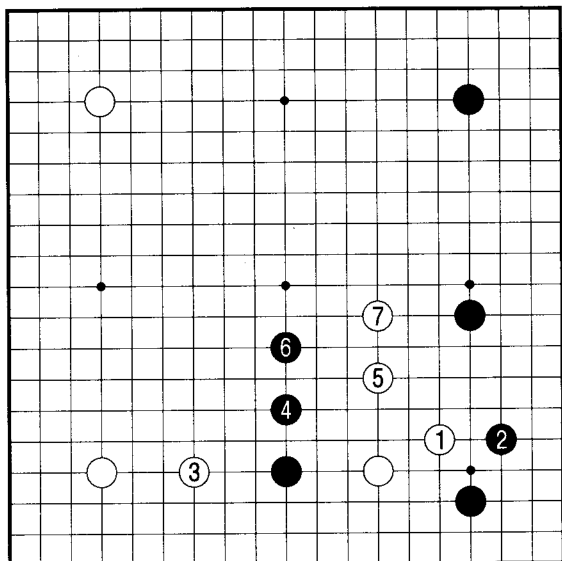
백1로 젖히면 흑은 기세상 2·4로 단수쳐서 백 한점을 잡을 곳이다. 계속해서 백5로 뻗고 이하 백9까지가 예상되는 진행인데 쌍방 충분히 둘 수 있는 갈림이다.



20도

20도(축머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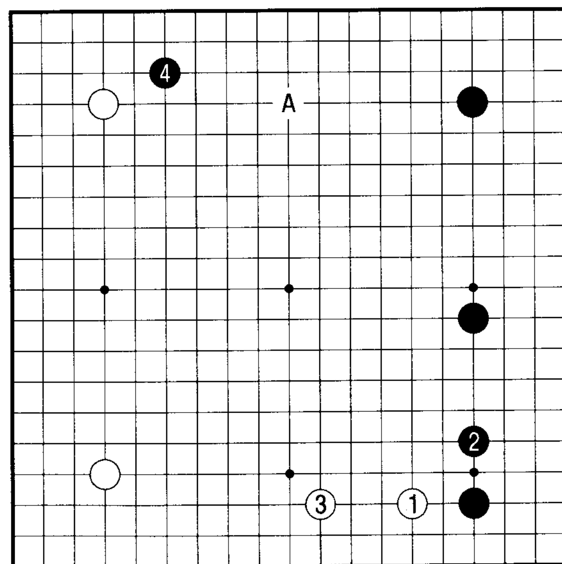
백1, 흑2 때 두텁게 두고자 한다면 백3으로 치받는 수도 가능하다. 그러나 흑4로 걸치면 A의 축머리 관계상 5로 보강할 수밖에 없는데 흑6·8까지 백이 속도에서 뒤지는 포석이 된다.



21도

21도(공중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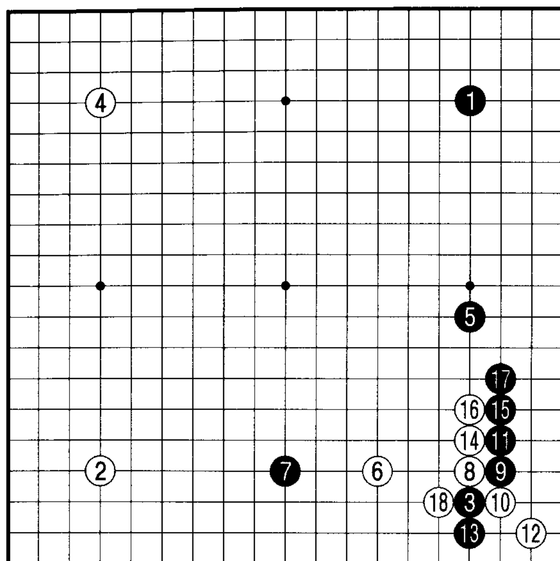
백은 1과 2를 교환한 후 백3으로 벌리는 작전도 고려할 수 있다. 다음 중앙을 향해 흑4로 뛰면 이하 백7까지 공중전으로 유도할 수도 있다.



22도

22도(가벼운 진행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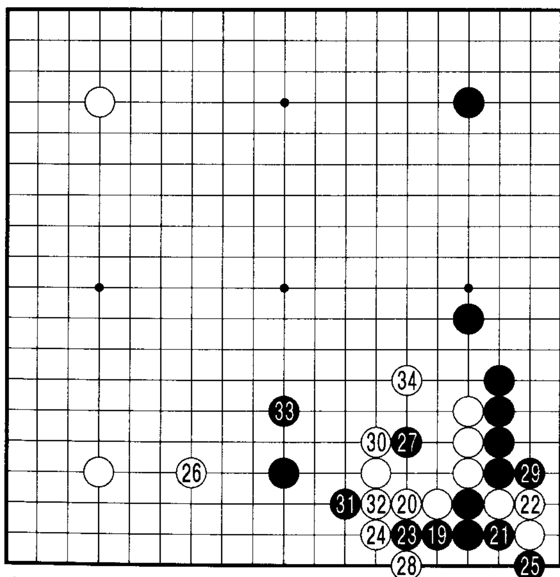
지금까지의 변화가 복잡하다면 백은 1부터 흑4까지 무리없는 평범한 진행으로 갈 수도 있다. 흑4로도 변화를 피하여 A에 둘 수 있다.



〈1보〉

1보(1~1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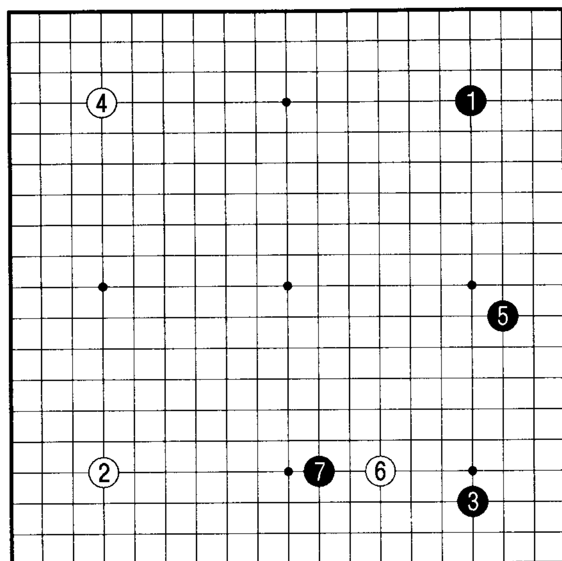
7회 동양증권배 준결승에서 백의 이창호에게 흑의 조치훈이 시도한 높은 중국식 포석이다. 흑5의 위치가 높아 백12의 강수가 성립하게 되었다.



〈2보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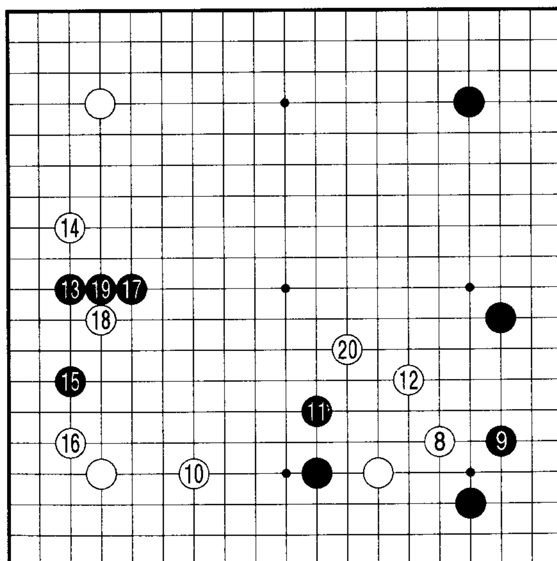
2보(19~34)

흑27로 들여다본 수가 좋지 않았다. 이 수로 인해 백34로 안전하게 진출하여 백의 좋은 흐름이다.


〈1보〉

1보(1~7)

사상 초유의 진로배 9연패를 달성했던 서봉수가 6국에서 흑의 야마다 기미오(山田規三生)에 대해 백6으로 다가섰을 때 흑이 7로 역공한 포석이다.


〈2보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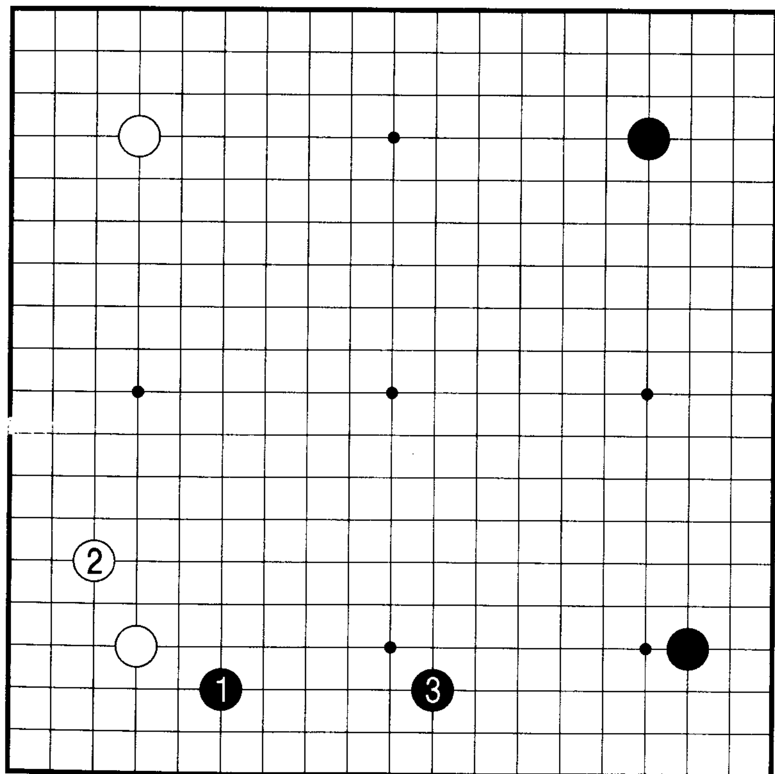
2보(8~2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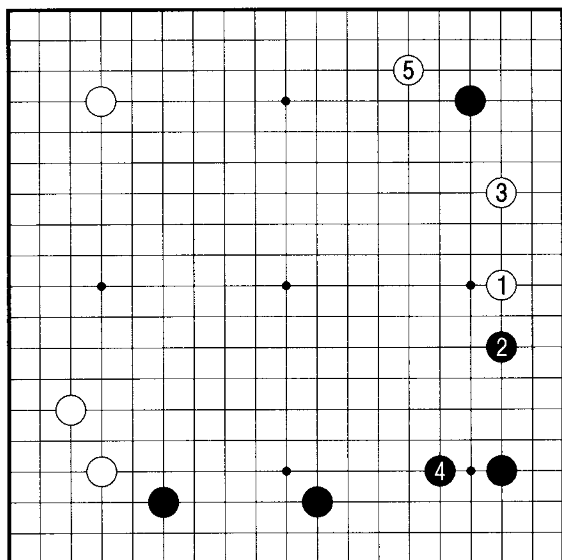
백8 · 10 · 12의 흐름이 경쾌하다.

제41형

중국식 포석 10(2연성 대응) — 미니 중국식(1)

흑은 우하귀를 굳히지 않고 1로 걸치는 수도 가능하다. 계속해서 백2로 받는다면 흑3으로 전개해서 미니 중국식 포진이 된다. 그럼 흑3으로 전개한 이후의 포석 변화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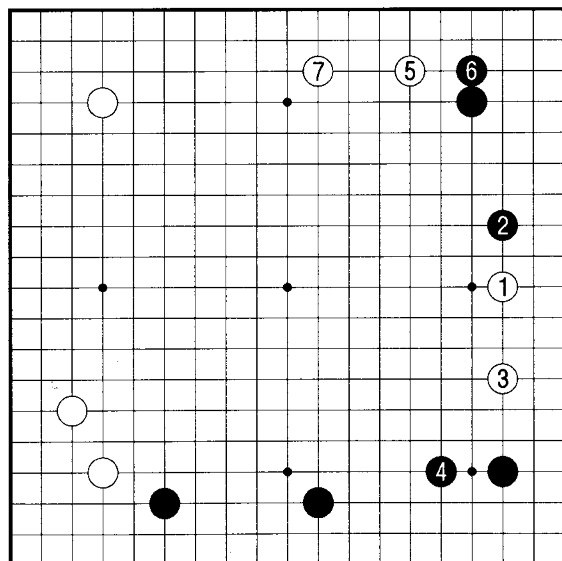




1도

1도(백, 발빠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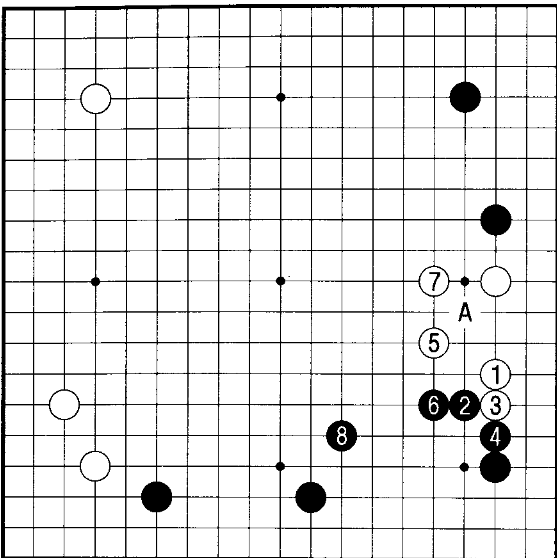
흑이 미니 중국식을 펼치면 백은 1로 갈라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. 계속해서 흑2로 다가선다면 백3으로 두칸 벌린 후 흑4로 굳힐 때 백5로 손을 돌려서 백이 발빠른 포석이다.



2도

2도(백, 충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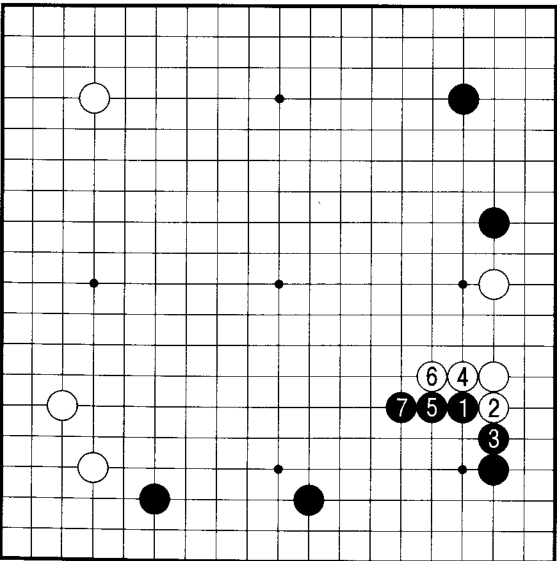
백1 때 흑은 2로 다가서는 것이 보통이다. 그러나 백3 때 흑4로 받는 것은 너무 무미건조하다. 백은 5로 걸친 후 7로 전개해서 충분한 포석이다.



3도

3도(흑, 만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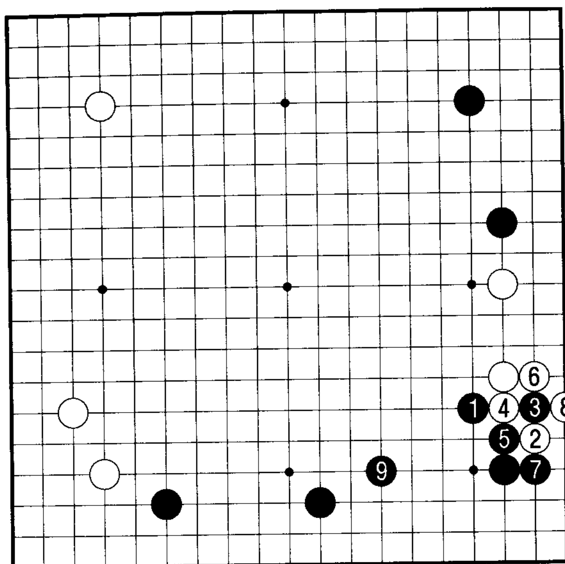
백1로 두칸 벌리면 흑은 2로 어깨짚어 둘 곳이다. 계속해서 백3으로 치받은 후 5로 날일자한다면 흑6·8로 처리해서 흑이 유리한 포석이다. 백7은 A의 약점 관계상 불가피하다.



4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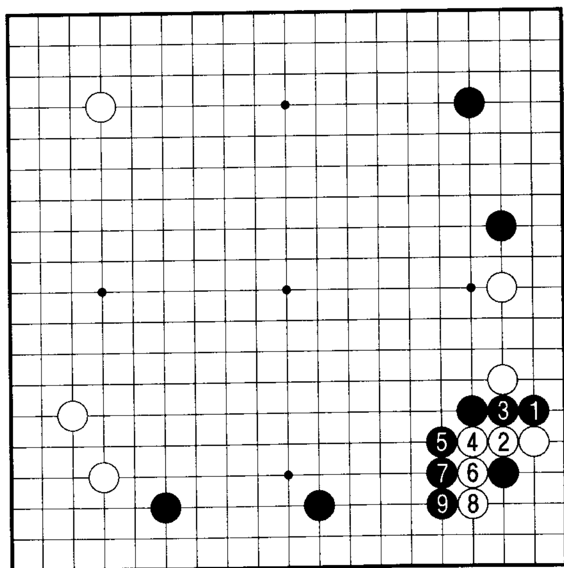
4도(흑, 충분)

흑1 때 백2로 치받은 후 4로 미는 변화이다. 이때는 흑3으로 받은 후 5에 뻗는 것이 수순이다. 백6, 흑7까지 진행되면 하변 흑 모양이 이상적인 모습이라 흑이 유리하다.


5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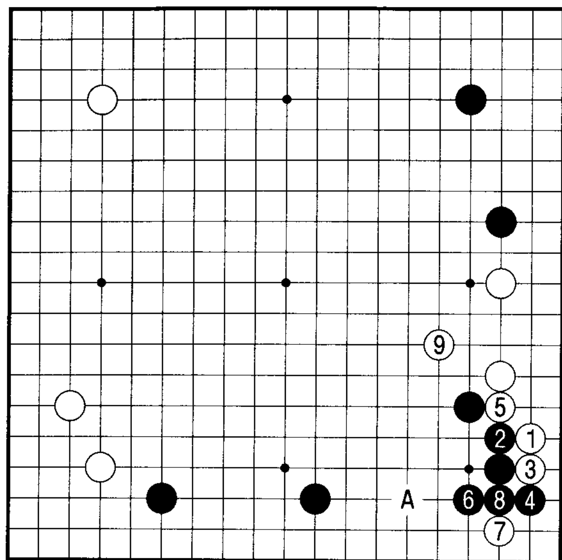
5도(최신 포석)

흑1로 어깨짚으면 백은 2로 날일자해서 응수하는 것이 신종 수법으로 정수이다. 계속해서 흑3으로 건너붙이고 이하 흑9까지가 기본형인데 쌍방 불만없는 갈림이다.


6도

6도(백, 옹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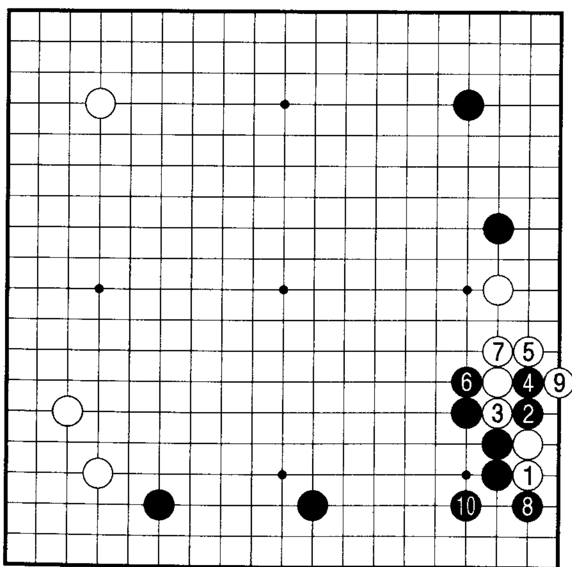
흑1의 건너붙임에 대해 백이 2로부터 8까지 귀를 차지하는 것은 소탐대실이다. 귀의 집은 중앙의 두터움에 미치지 못한다.



7도

7도(흑의 약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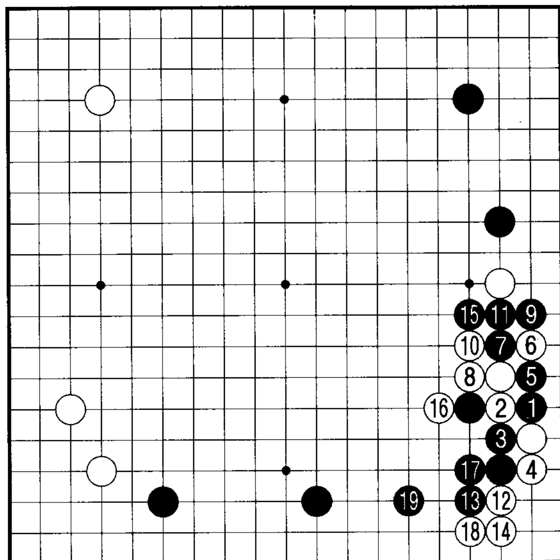
백1 때 흑2로 막는 것은 좋지 않다. 백은 3으로 민 후 이하 9까지 처리해서 충분한 결말이다. 흑으로선 A의 약점이 부담으로 남는다.



8도

8도(흑, 만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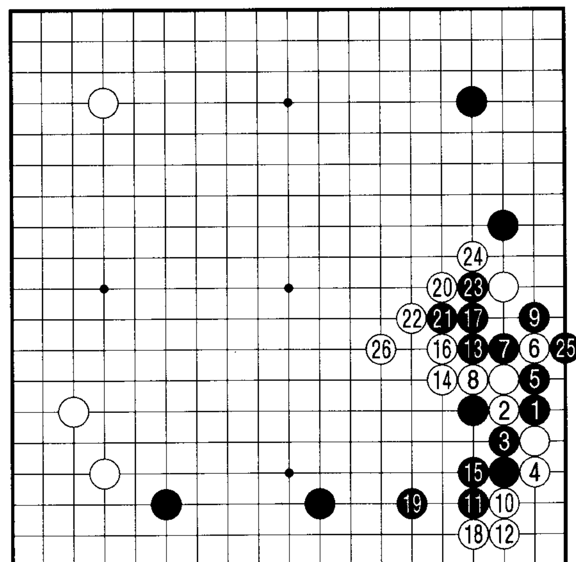
백1 때 흑2로 젖히는 변화이다. 계속해서 백3으로 끊는다면 흑4로 민 후 이하 10까지 처리해서 이 결과는 흑이 유리한 포진이다.



9도

9도(흑, 우세한 전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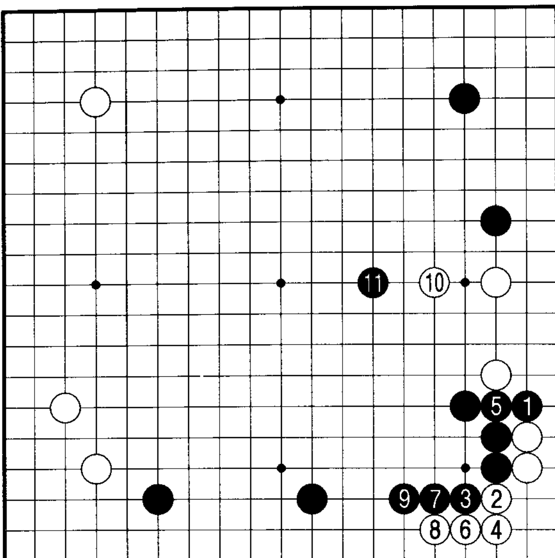
흑은 백6에 대하여 흑7로 끊어 전투할 수도 있다. 이하 흑19까지의 결과는 흑의 절대 우세이다. 백도 수순을 바꾸어……



10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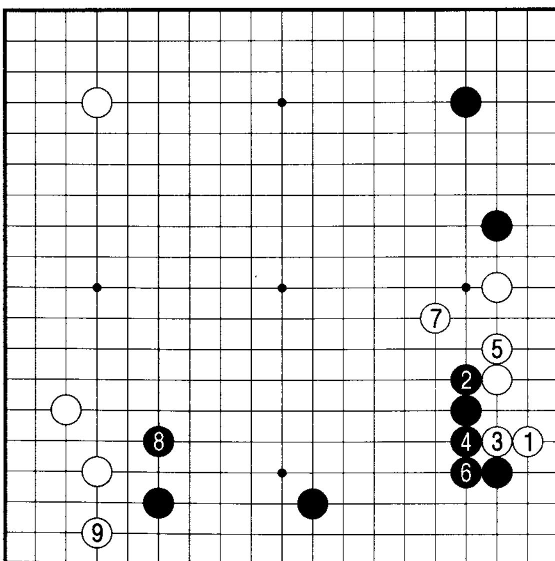
10도(백, 다소 유리)

전도의 수순 중 흑9까지 진행되었을 때 단순히 백10 · 12로 사는 것이 좋다. 이하 백26까지의 결과는 백이 다소 유리하다.


11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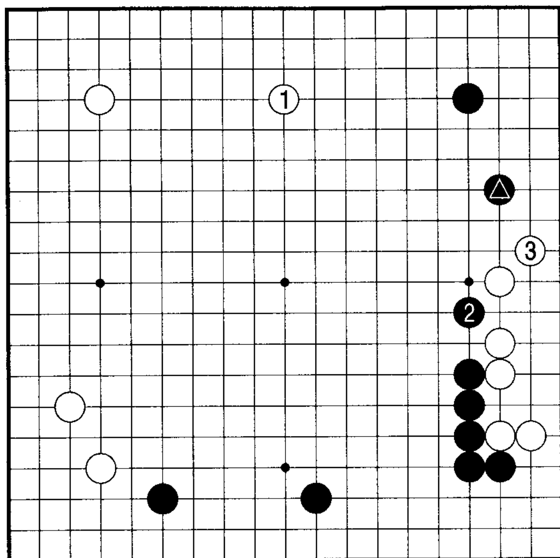
11도(백의 변화)

흑1 때 백은 2로 젖혀 변화할 곳이다. 계속해서 흑3으로 젖히고 이하 흑9까지가 필연적인 진행인데 백이 선수로 실리를 취한 만큼 충분한 결과이다. 백10 때 흑은 11로 공격해서 실리의 손실을 보상받아야 한다.


12도

12도(흑의 변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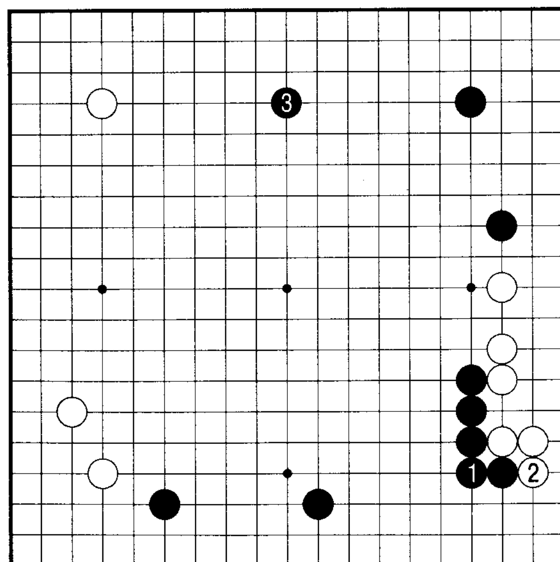
백1 때 흑은 2로 막는 수도 고려할 수 있다. 계속해서 백은 3으로 찌른 후 5에 뻗는 것이 수순인데 흑6 이하 백9까지가 예상되는 포석 진행이다.



13도

13도(한칸의 차이)

우상의 흑이 ●에 있을 때엔 손을 빼고 백1에 전개할 수 있다. 흑2에는 백3으로 탄력있게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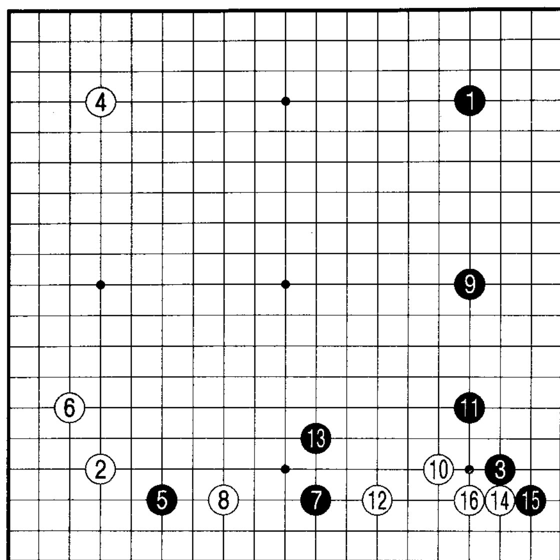


14도

14도(백, 실리 중시)

전도의 수순 중 흑1로 이었을 때 백은 2로 미는 수도 가능하다. 이 수는 후수이지만 실리상으로 매우 큰 곳이다. 흑은 3으로 전개해서 발빠른 포석을 펼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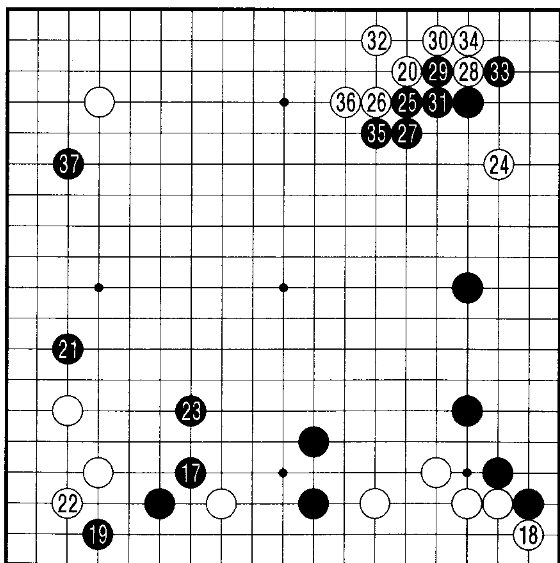
〈실전 포석 1〉



〈1보〉

1보(1~1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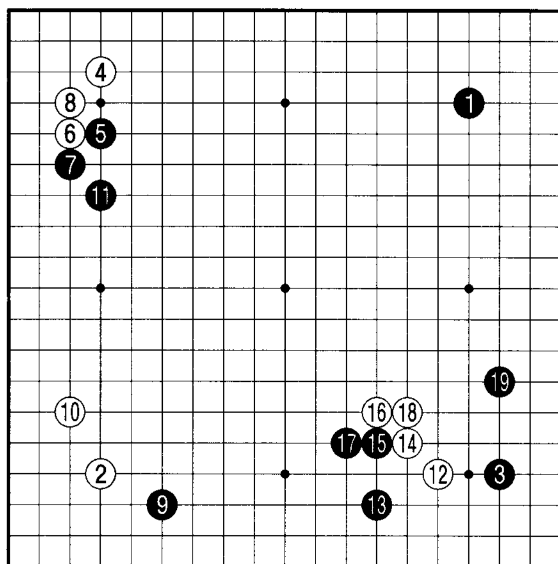
14기 KBS바둑왕전 결승1국에서 백의 이창호에게 흑의 유창혁이 구사한 미니 중국식 포석이다. 백8의 침입은 신수이나 의문이었다. 백10과 12의 흐름도 독특했으나, 흑13으로 뛴 자세가 좋아 성과가 없었다.



〈2보〉

2보(17~37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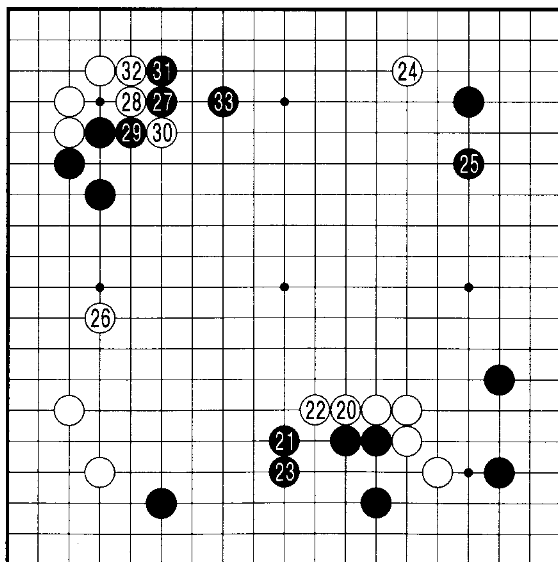
23으로 뛰어 흑의 호름이 좋다. 우상귀를 선수로 정리하고 37에 걸쳐 흑 우세의 국면이다.



〈1보〉

1보(1~19)

이 바둑은 29기 왕위전 도전6국에서 백의 유창혁에게 흑의 조훈현이 시도한 미니 중국식의 변형 포석이다. 흑11에 대해 외면하고 백12로 걸친 것은 우하귀가 소목이기 때문이다. 백18의 이음은 두터운 수.



〈2보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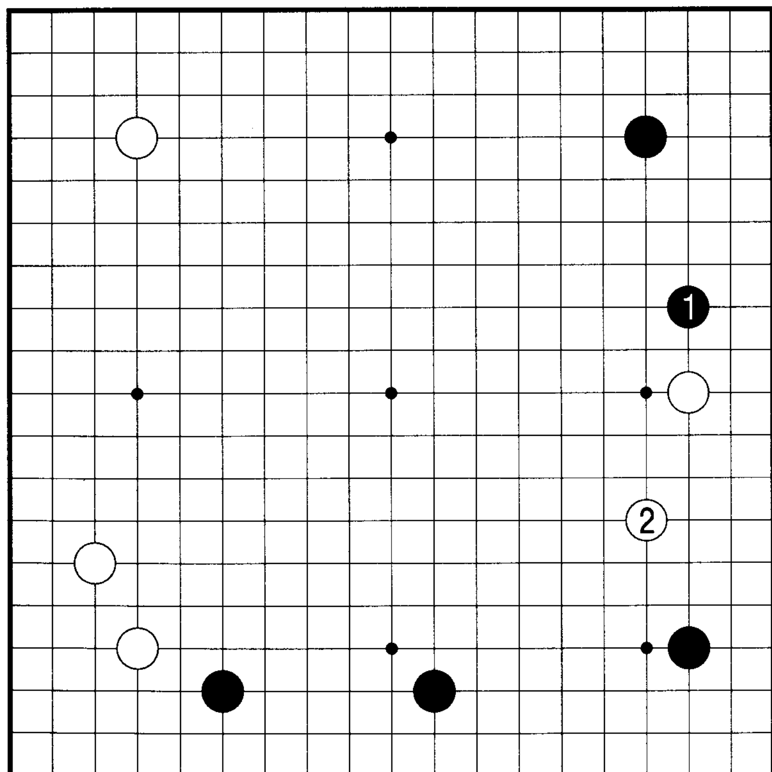
2보(20~3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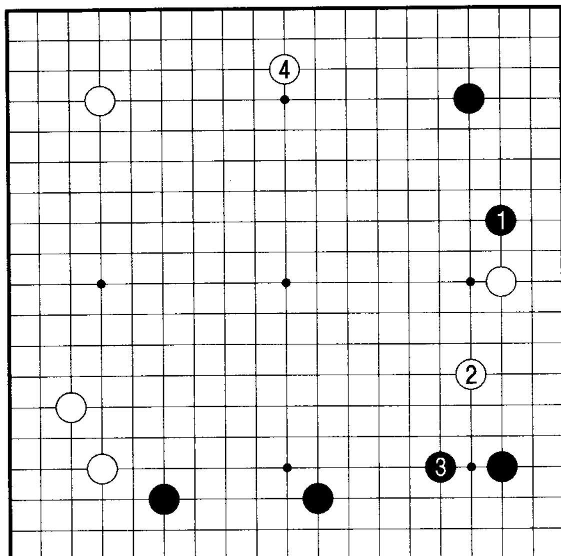
흑23까지 흑의 실리가 돋보이기는 하지만 백도 두텁다. 이 두터움을 배경으로 백26의 공격을 시작으로 30의 절단까지 전투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.

제42형

중국식 포석 11(2연성 대응) — 미니 중국식(2)

흑1로 다가섰을 때 백2로 눈목자하는 변화이다. 이 수의 의도는 중국식 포석의 위력을 사전에 견제하려는 것이다. 그럼 백이 눈목자로 벌린 이후의 포석 진행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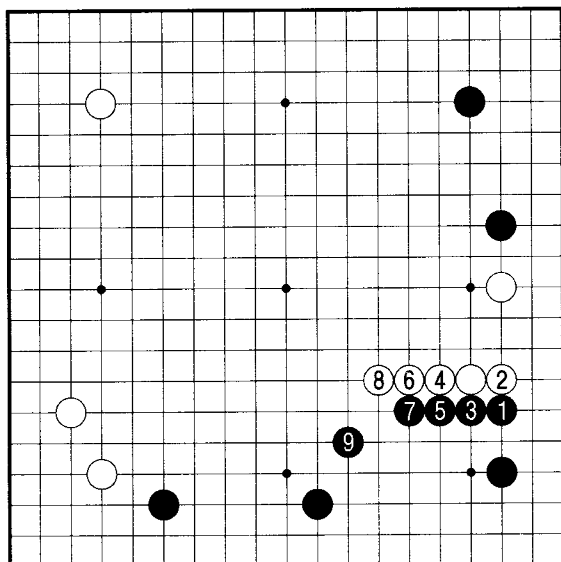




1도

1도(백, 활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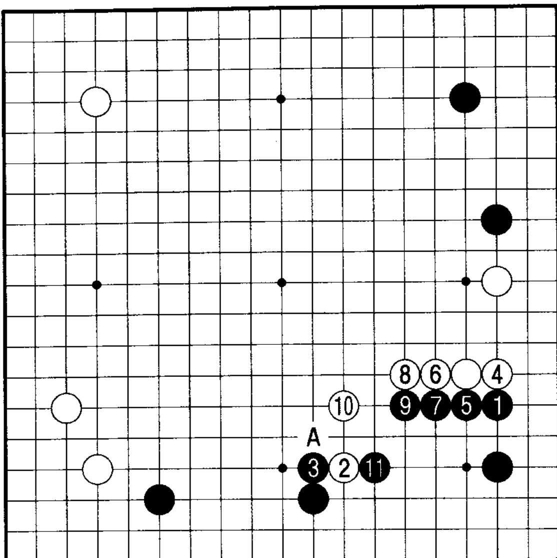
흑1, 백2 때 단순히 흑3으로 받는 것은 백4로 전개해서 백이 활발한 포석이다.



2도

2도(흑, 만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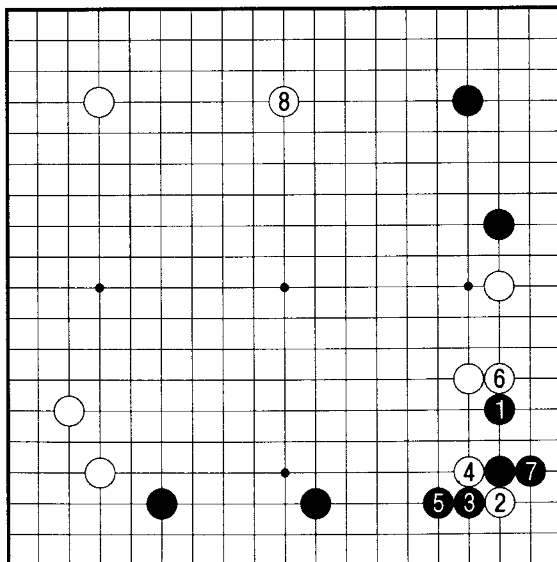
흑1 때 단순히 백2로 막는 것은 흑의 의도에 말려든다. 흑은 3으로 민 후 이하 9까지 하변을 이상적으로 구축해서 충분한 포석이다.



3도

3도(백의 응수타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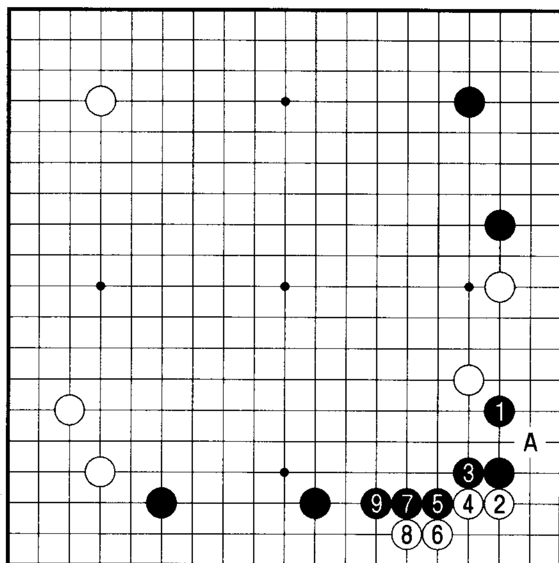
흑1에 대해 백이 직접 응수하지 않고 2로 어깨짚어 응수타진하면 이하 백10까지의 진행이 예상된다. 이 결과는 백A의 활용이 남아 백도 둘만하다.



4도

4도(흑, 불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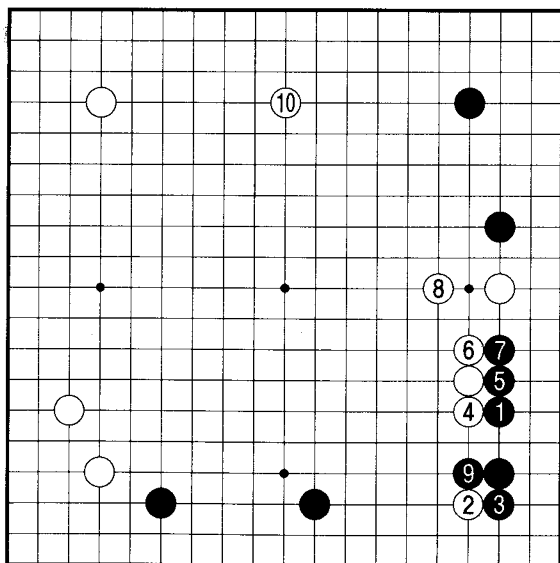
흑1 때 백2로 귀에 붙여 타진하는 수도 고려할 수 있다. 흑3으로 젖히는 것은 흑의 실수이다. 백은 4로 끊은 다음 6을 선수로 막고 8에 선착하여 백이 좋다.



5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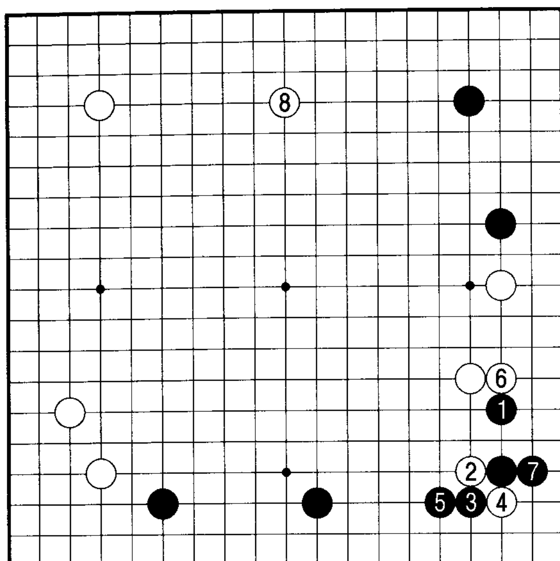
5도(흑, 두터움)

백2로 귀에 붙였을 때 흑도 3으로 침착하게 뻗어 이하 9까지 참는 것이 좋다. 이 진행은 A가 우하귀 백의 사활에 선수로 작용하므로 우변의 백 두 점이 흑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.


6도

6도(무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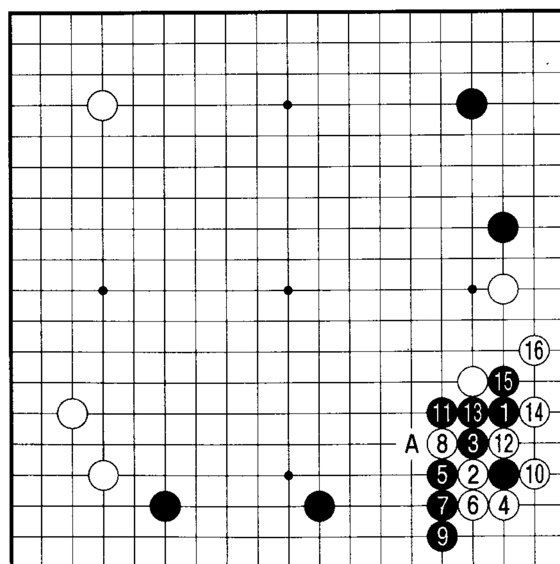
흑1 때 백2의 타진도 가능한 수이다. 흑3으로 막으면 백8까지 자세를 잡고 백10으로 선착하면 무난한 진행이다.



7도

7도(유력한 붙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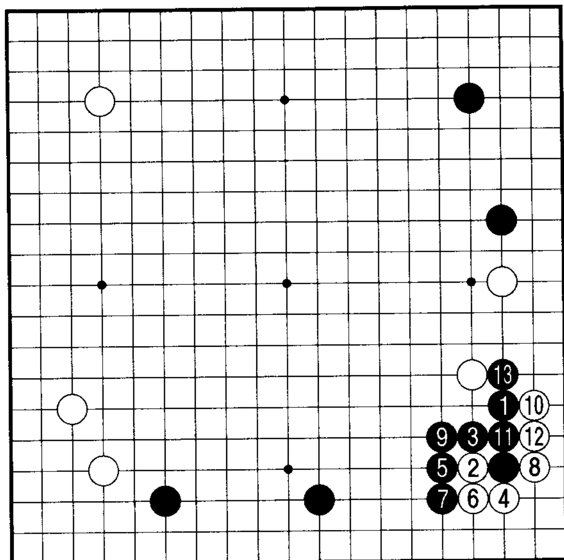
흑1 때 백2로 붙이는 응수타진이 유력하다. 흑3으로 젖히면 백4로 맞끊어 이하 흑7까지 이 진행은 4도로 환원된 모습이다.



8도

8도(백, 호형의 연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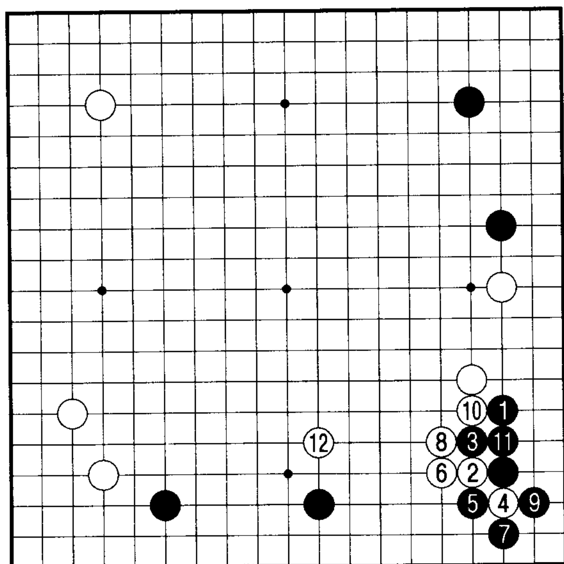
흑1, 백2 때 흑이 3 이하로 변화하면 백8로 끊어두는 수순이 좋다. 백16까지 넘고나서도 아직 A로 달아나는 맛이 남아 있다.



9도

9도(백8, 수순착오)

흑7까지 진행되었을 때 백8로 먼저 단수하는 것은 수순착오이다. 흑이 9의 곳을 이어 13까지 처리하면 흑이 두텁다.



10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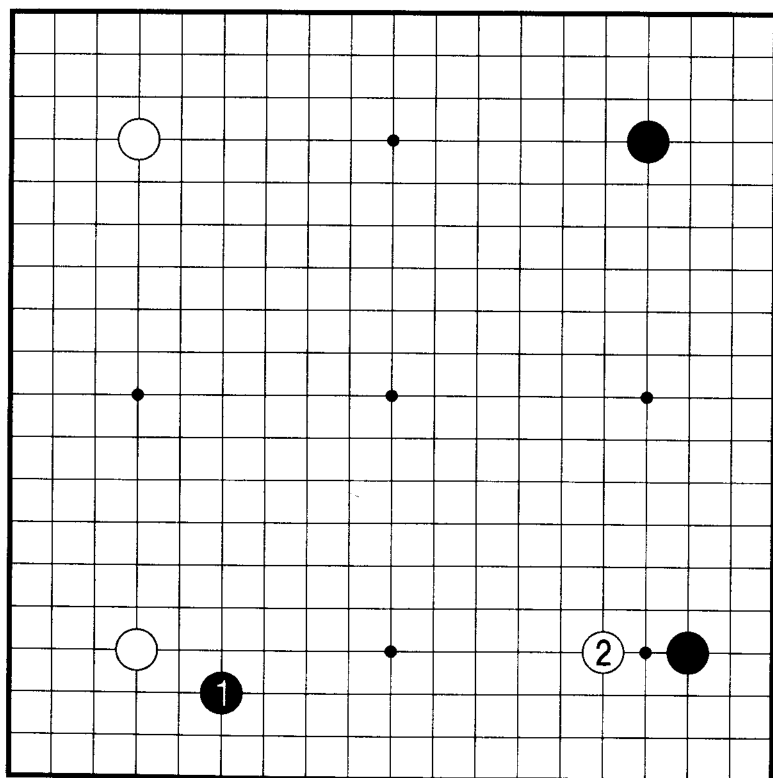
10도(백, 만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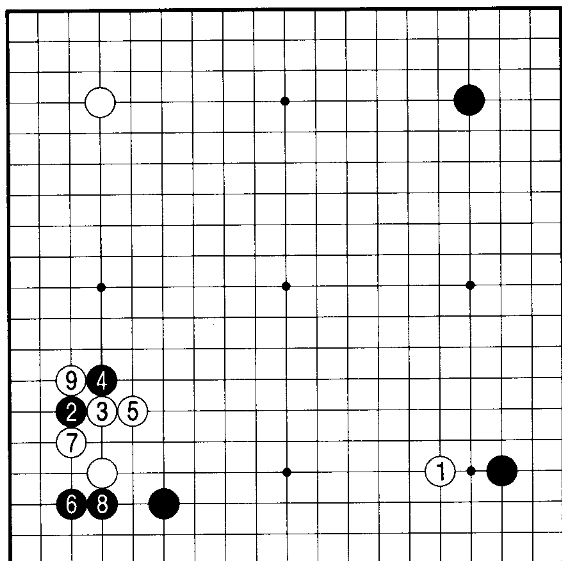
백4까지 진행되었을 때 흑이 5·7로 복잡한 변화를 시도하면 백은 12까지 유연하게 대처하여 만족이다.

제43형

중국식 포석 12(2연성 대응) — 미니 중국식의 견제

흑1로 걸쳤을 때 흑의 미니 중국식 포석을 견제하고 싶다면 백은 2로 역으로 걸치는 것이 좋다. 백2로 걸치면 바둑이 잘게 잘게 나뉠 가능성이 높다. 그럼 이 후의 포석 변화를 알아보기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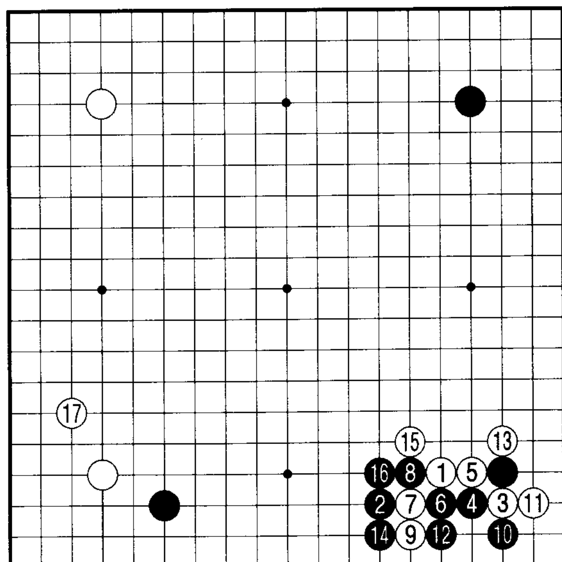




1도

1도(흑의 양걸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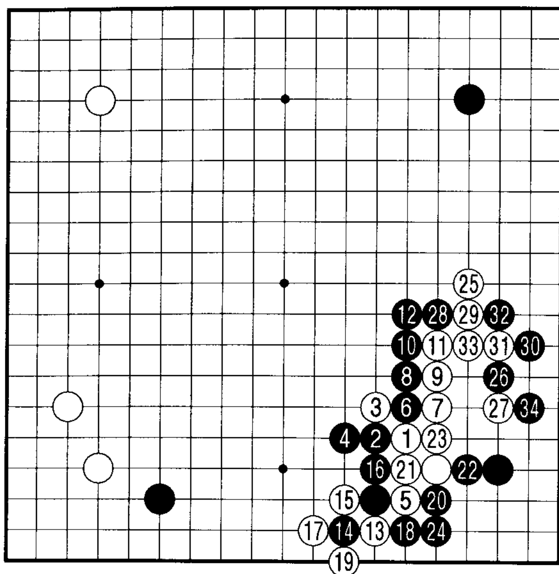
백1 때 흑은 2로 양걸침할 수도 있다. 백3으로 붙인다면 흑4로 젖힌 후 이하 백9까지 흑은 선수로 실리를 취하는 것이 요령이다.



2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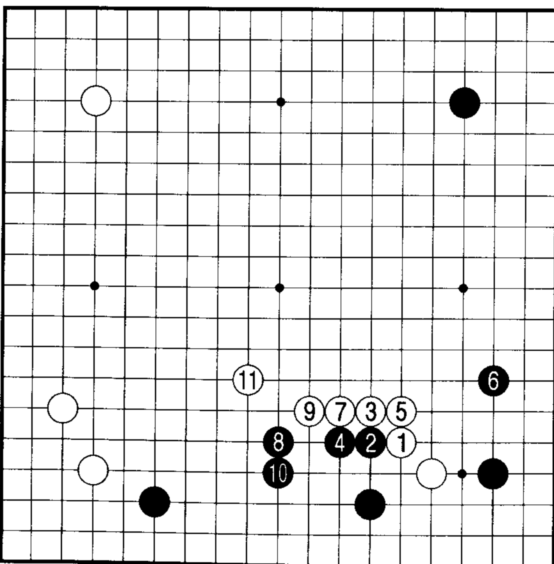
2도(흑, 두터움)

백1로 걸쳤을 때 흑2로 협공하는 수는 가장 일감으로 떠오르는 수. 계속해서 백3으로 붙인다면 흑4로 젖힌 후 이하 16까지 처리해서 흑이 두터운 포진이다.


3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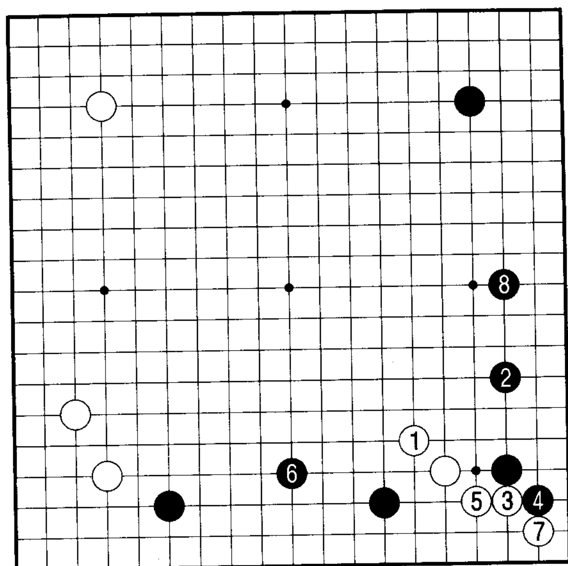
3도(흑, 유리)

백이 1의 마늘모로 행마하면 흑은 2로 붙여 전투로 끌고 갈 수도 있다. 백3으로 젖히고 흑4 때 백5로 붙이는 것은 흑6으로 절단하여 대항할 수 있다. 이하 흑34까지 이 진행은 백이 불리하다.


4도

4도(백, 무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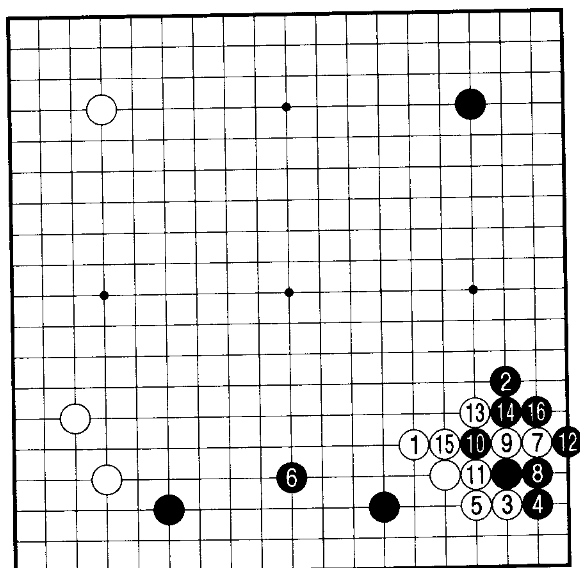
흑2·4로 붙이고 늘었을 때 백은 5로 잇는 것이 좋다. 이하 백11까지 중앙을 두텁게 하여 불만이 없다.



5도

5도(흑, 발빠른 전개)

흑은 2로 전개한 후 백 3으로 붙이면 흑4로 하나만 젖힌 후 6·8로 발빠르게 변신할 수도 있다.



6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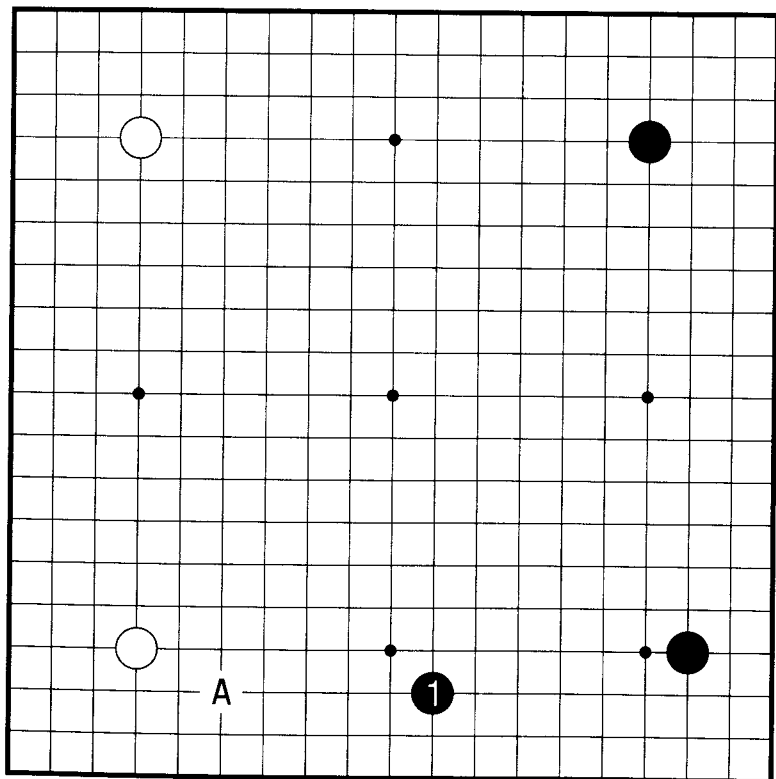
6도(백, 중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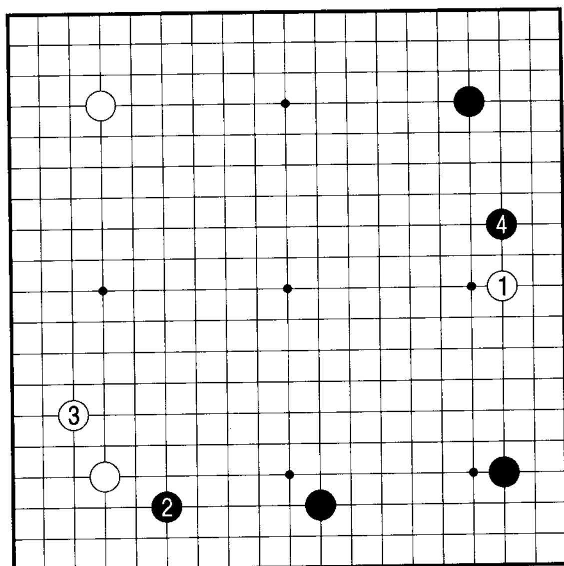
흑6으로 전개했을 때 백도 7로 치중하여 변화를 모색할 수 있지만 이하 흑16까지 돌이 뭉친 모양이 되어 불만이다.

제44형

중국식 포석 13(2연성 대응) — 중국식의 변형(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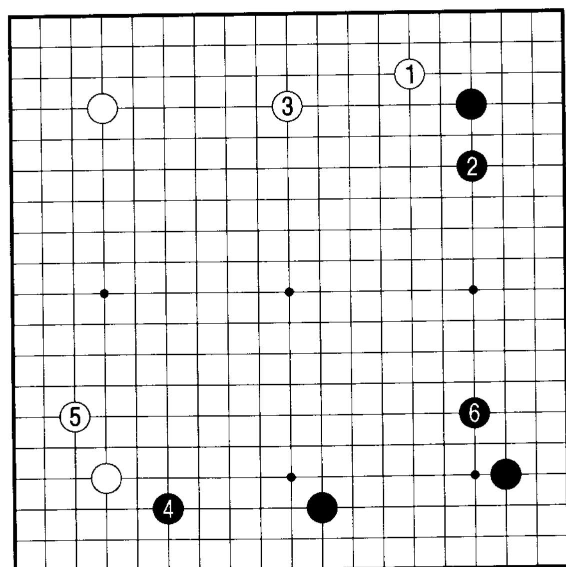
흑은 A에 걸치지 않고 곧장 1로 전개하는 포석 작전도 가능하다. 흑1은 어디까지나 기존 돌의 착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뜻이다. 이것도 중국식의 아류라고 볼 수 있다.




1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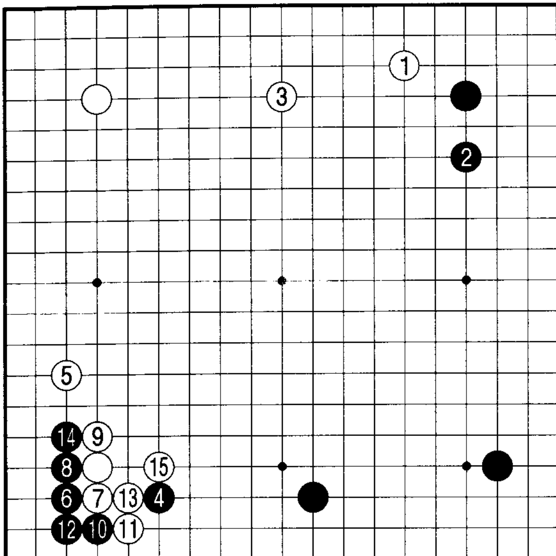
1도(환원)

백1의 갈라침은 좋은 자리. 다음 흑2, 백3을 교환하고 흑4에 육박하면 미니 중국식으로 환원된다.


2도

2도(흑, 호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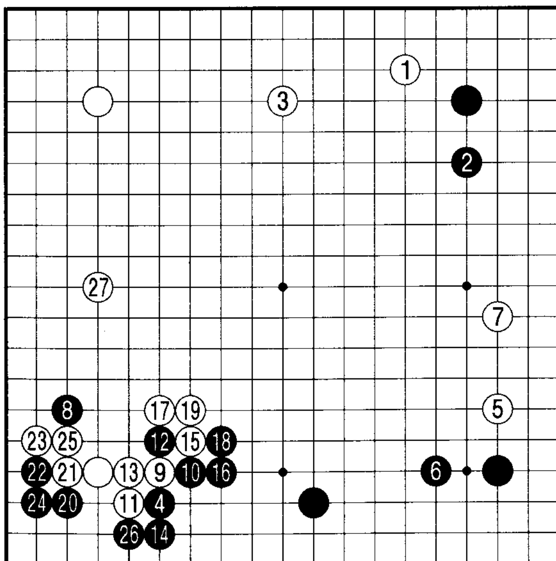
백이 상변을 1·3으로 전개하면 흑은 4와 5를 교환한 뒤 6으로 진영을 완성하여 불만이 없다.



3도

3도(백의 유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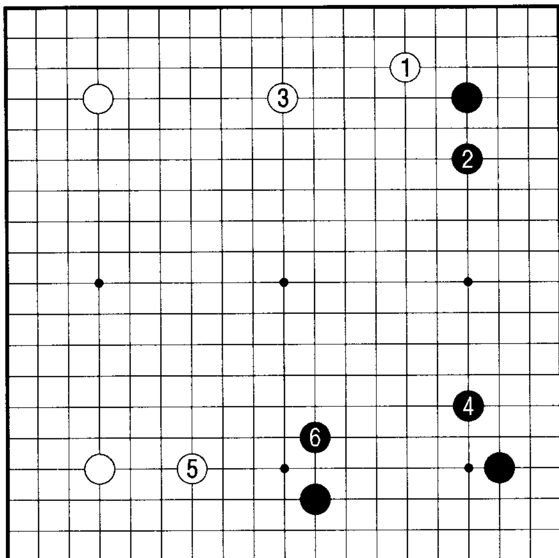
백1·3으로 전개하고 흑4로 걸쳤을 때 백5의 눈목자는 3·三 침입을 유인한 수이다. 흑6으로 3·三 침입하면 흑14까지의 교환이 이루어진 뒤 백15의 자세가 좋다.



4도

4도(백, 우변 파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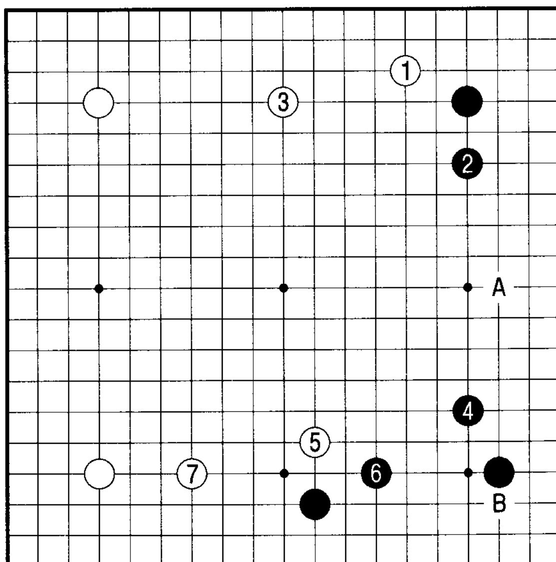
흑4의 걸침에 백이 직접 응수하지 않고 5·7로 자리를 잡는 것이 유리하다. 이하 백27까지의 결과는 백이 넓은 포석이다.



5도

5도(흑4, 진영의 요처)

백1·3으로 전개했을 때 흑도 단순히 4에 지키는 것이 좋다. 흑6까지의 진행은 우하의 흑 진영이 완성도가 높아 다소 유리하다.



6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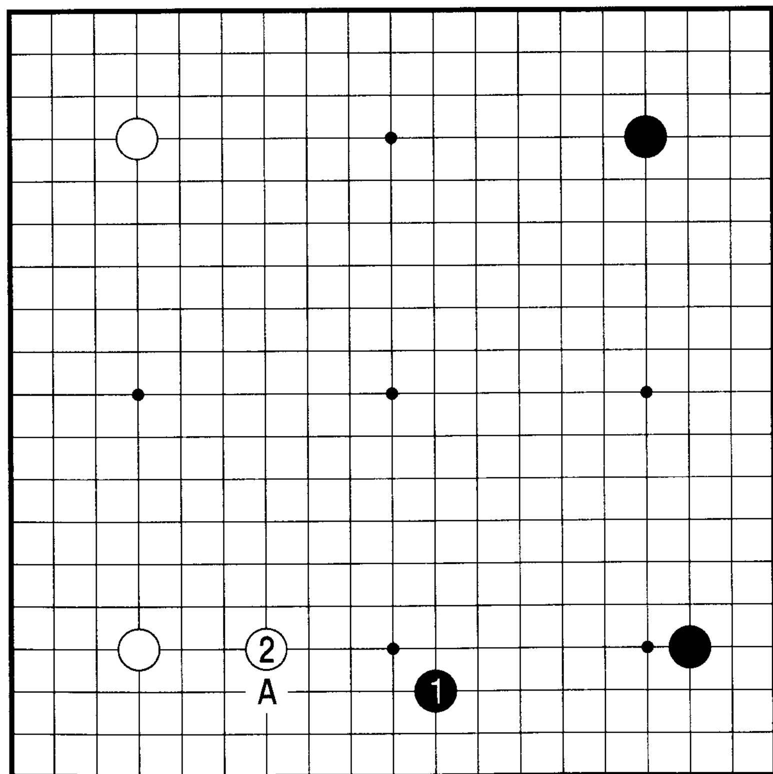
6도(백의 수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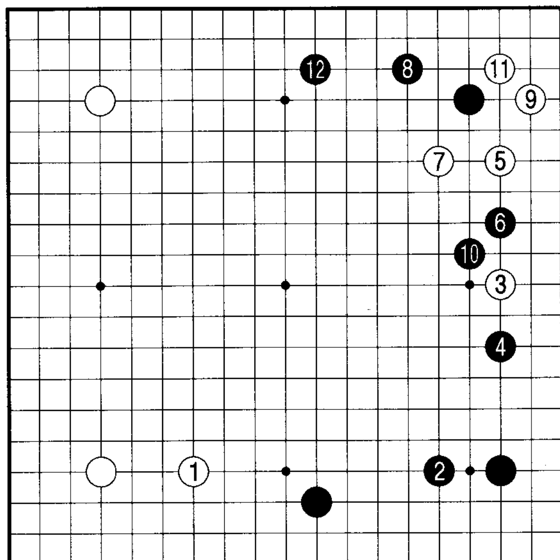
흑이 4로 진영의 요처를 차지하면 백도 5로 삭감한 후 7에 지키는 것이 수순이다. 아직 흑의 진영내에는 A, B의 약점이 남아 있다.

제45형

중국식 포석 14(2연성 대응) — 중국식의 변형(2)

흑1로 전개했을 때 흑의 미니 중국식을 견제하는 방법은 백2나 백A에 굳히는 것이다. 백A는 실리를 중시한 것이고 백2는 세력을 중시한 수이다. 그럼 세력을 중시한 백2 이후의 포석 변화를 알아보기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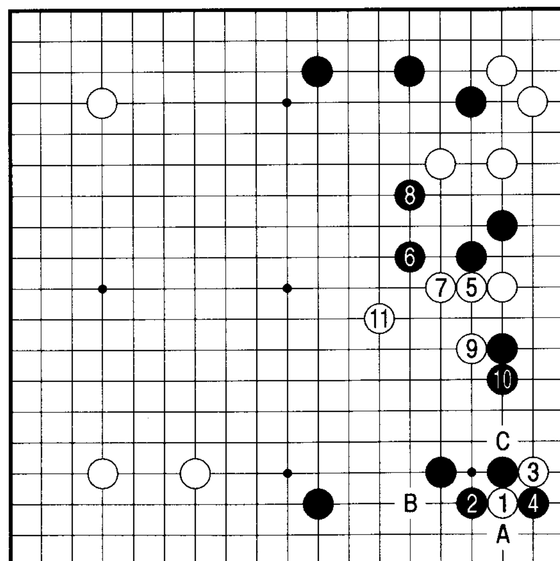




1도

1도(호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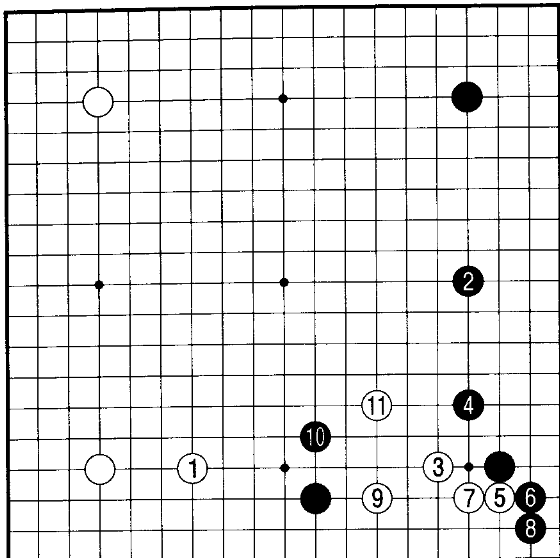
백1 때 흑2로 귀를 굳히면 가장 평범하다. 계속해서 백3으로 갈라치고 흑4 이하 흑12까지가 예상되는 진행인데 쌍방 충분히 둘 수 있는 갈림이다.



2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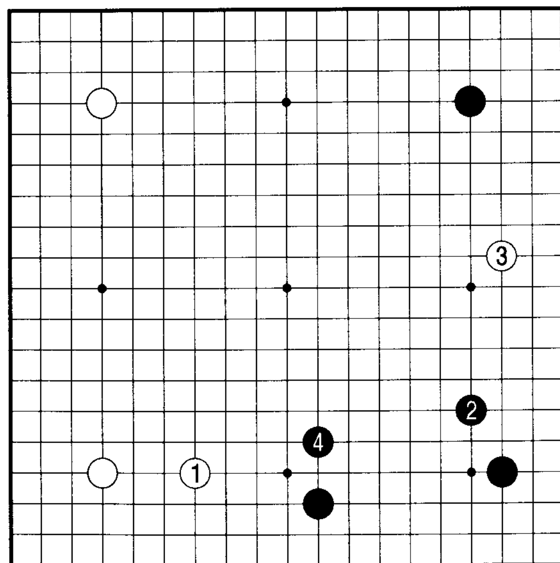
2도(1도 이후 진행)

백1·3은 우하귀에 맛을 남기는 상용수법으로 차후 A를 이용한 B의 침입과 C의 단수를 보고 있다. 흑은 이 맛을 고려하여 흑4로 A에 단수하는 방법도 있다. 이하 백11까지 예상되는 포석 진행이다.


3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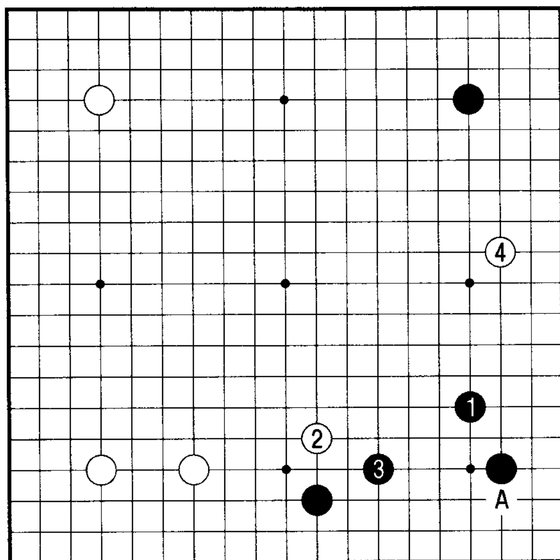
3도(백, 만족)

백1 때 흑2로 전개하는 것은 의문이다. 백은 곧장 3으로 걸치는 것이 좋은 수로 흑4 때 백5 이하 11까지 처리해서 백이 유리하다.


4도

4도(흑, 활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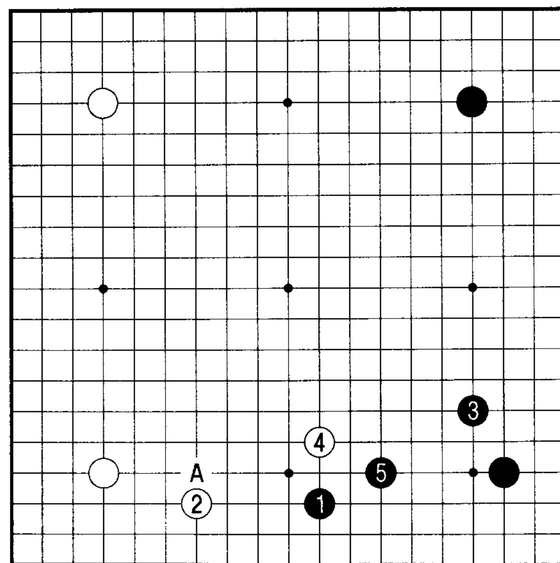
백1 때 흑2로 귀를 굳히는 변화이다. 이때 평범하게 백3으로 갈라치는 것은 흑4로 한칸 뛰어 하변이 이상적으로 굳어진다.



5도

5도(백, 만족)

흑1로 날일자하면 백2로 모자씌우는 것이 호착이다. 계속해서 흑3으로 받는 정도일 때 백4로 갈라치면 이 결과는 백이 유리하다. 귀의 흑은 A에 붙이는 뒷맛이 남아 있다.



6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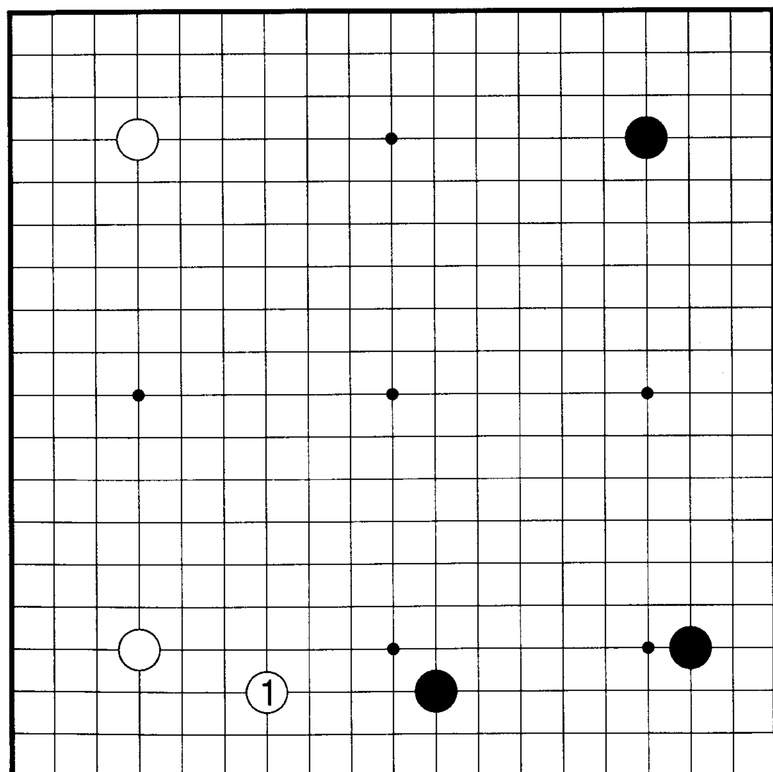
6도(차이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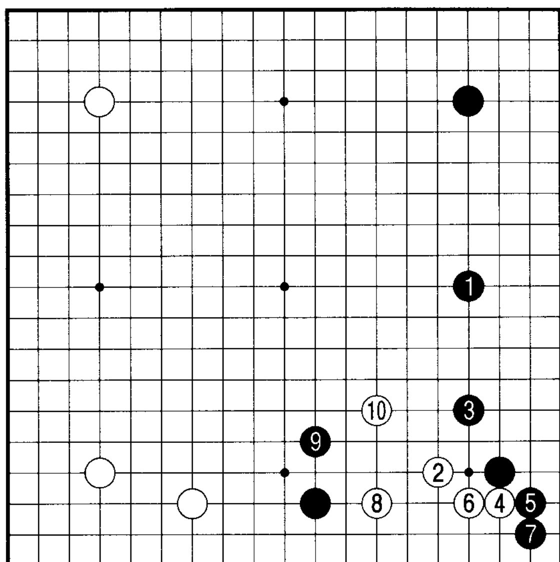
흑1 때 백2의 귀굳힘이라면 흑3으로 날일자하는 것이 호착이 된다. 백4, 흑5까지의 진행을 예상할 때 백2로는 A에 있는 것이 보다 활발하다.

제46형

중국식 포석 15(2연성 대응) — 중국식의 변형(3)

백1의 지킴은 실리에 민감한 수이다. 그러나 좌하 방면으로 흑이 육박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것이므로 두 칸 전개와 비교할 때 그 취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. 그럼 백1 이후의 포석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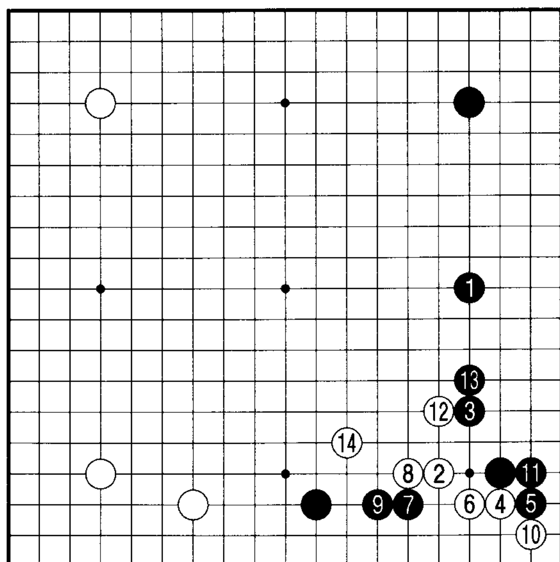




1도

1도(침입을 간과한 흑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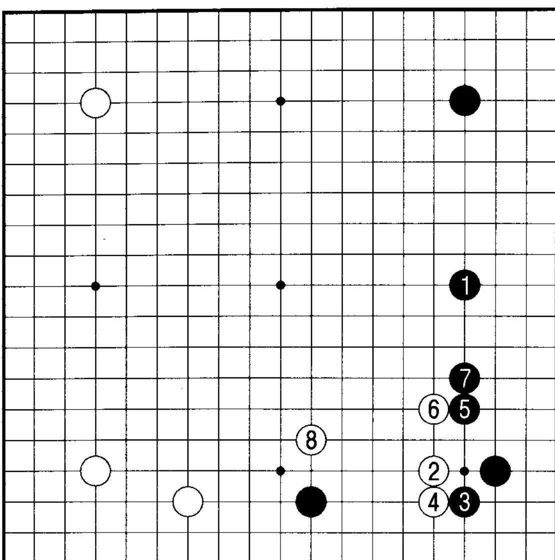
흑이 1로 진영을 넓히려는 것은 2의 침입을 간과한 것이다. 백10까지 주도권을 백에게 넘겨주게 된다.



2도

2도(흑, 공격 불가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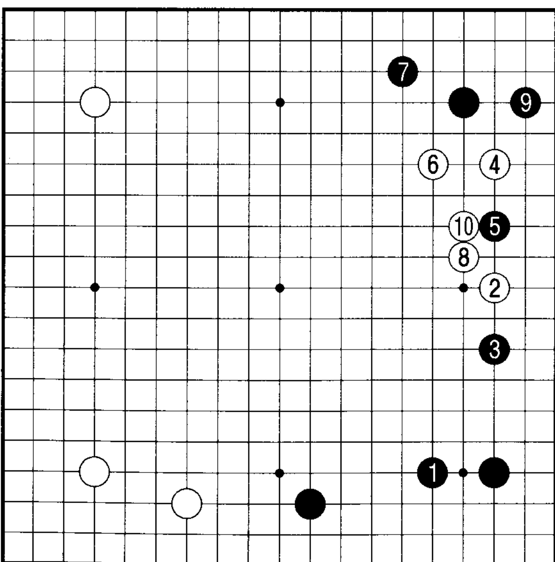
백6까지 진행되었을 때 흑7의 육박으로도 이 백을 공격하기는 쉽지 않다. 백14까지 오히려 흑이 수세에 몰린다.



3도

3도(공수역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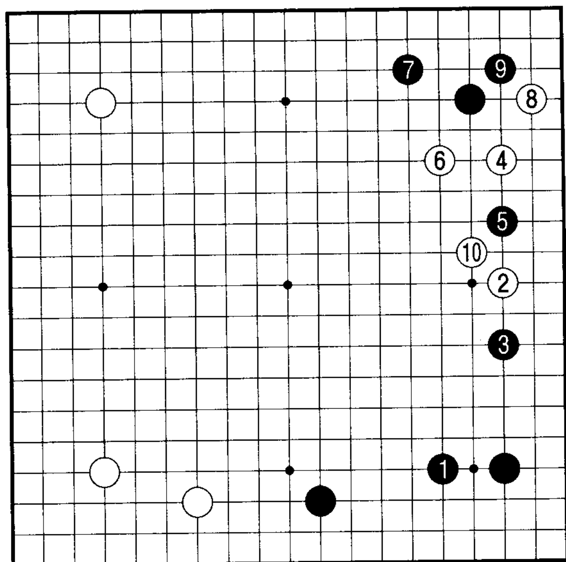
백2로 걸쳤을 때 흑3·5로 공격하는 것도 무리다. 백6, 흑7을 교환한 다음 백8로 씌우면 흑의 중앙진출이 어려워 역공을 당하게 된다.



4도

4도(지킴이 정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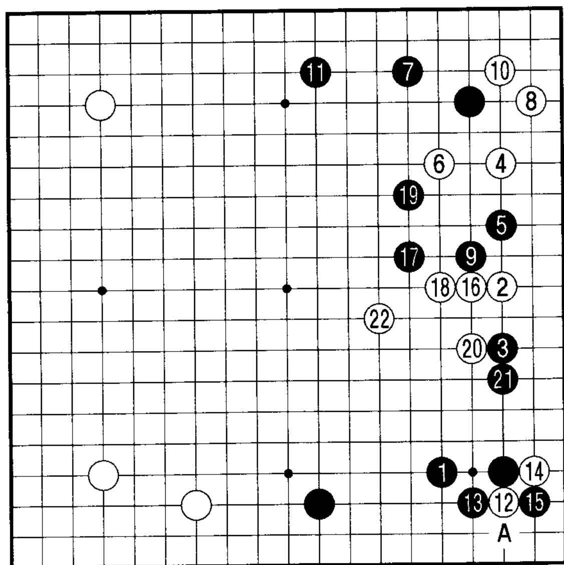
흑1의 수비는 가장 견고한 정수다. 그리고 백2의 갈라침에는 흑3으로 육박하여 우하의 진영을 확장하는 것이 옳다. 이하 백10까지 예상 포석이다.



5도

5도(흑, 느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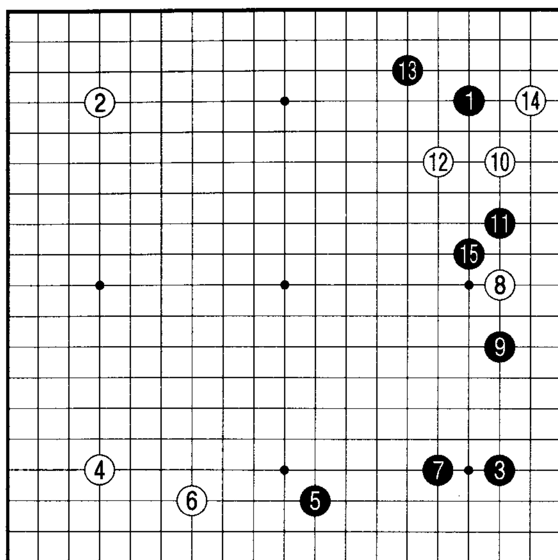
전도의 진행이 백이 불만이라면 본도 흑7 다음 백8로 달리게 되는데, 이때 흑9는 느슨하다.



6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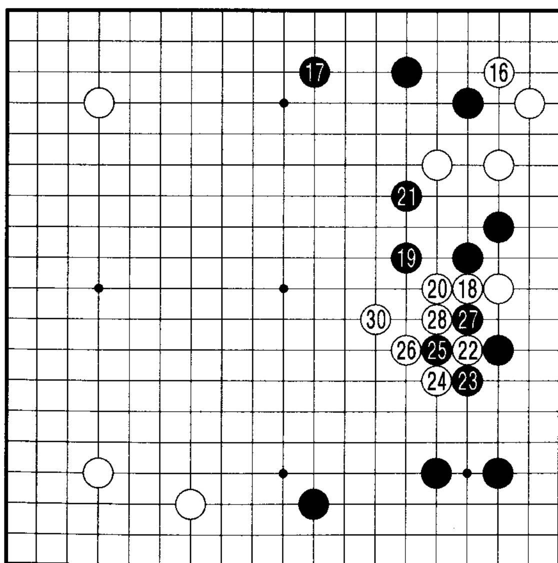
6도(흑, 반발)

백8까지 진행되었을 때 흑9로 반발하는 것이 현대감각이다. 이 진행은 45형의 2도와 같다. 마찬가지로 수순 중 흑15로는 A에 단수할 수도 있다.


〈1보〉

1보(1~15)

제8회 동양증권배 결승 제3국이다. 백은 고바야시 사토루이고 흑은 조훈현이다. 흑5에서 백6으로 굳힐 때 흑7로 지키는 흐름이 변형된 중국식의 결정판이며, 백8의 갈라침에는 흑9로 다가서는 것이 정수이다. 이하 흑13까지 진행되었을 때 백14, 흑15로 서로 반발하여……


〈2보〉 29 … 22

2보(16~30)

백30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. 이 진행은 서로 어울린 그림이며 이후의 중앙전이 관건이다.